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회장: 노대환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장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1월 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49 호

비행기가 김포를 떠나면서 우리들은 한껏 들떠 있었다. 우리가 만든 악극 '물고넘는 박달재'의 미주 순회공연이 시작된 것이다.

10년전의 대중연극을 재현시켜 뮤지컬의 본고장인 뉴욕까지 진출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LA 공연은 예상대로 이틀 4회 전공연이 매진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고조들을 올리며 막을 내렸다.

우리는 두 번째, 뉴욕에서 긴장속에 개막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뉴욕은 문화적으로 입맛이 까다로운 관객층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의상과 소품정리를 하는 중에 '금봉'이 역할의 여주인공이 분장실에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두가 뉴욕 분위기에 들떠있는 틈에 '금봉'이를 숙소에 그냥두고 모두 버스에 탔던 것이다. 주인공 없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김 상 열

는 공연이라니 모두가 아연실색하였다. 숙소는 극장에서 한시간이 넘는 거리. 전화걸고 콜택시 보내고 난리를 치는데 흑인 택시기사에게 부축이된 금봉이가 비몽사몽으로 분장실에 들어온다. 모두 떠난 빈 숙소에서 위경련을 일으켰던 것이다.

연출자인 나는 물론 주최측도 모두 사색이 됐다. 1천석의 극장은 벌써 관객들로 가득 차있다. 미국의 법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의사없이 링겔조차 꽂을 수가 없다.

'울고넘는 박달재' 뉴욕공연

주인공이 넘어진 공연… 더구나 '금봉'이는 전체 대사의 80%를 해야하고 10곡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개막시간 5분이 지나니 객석에선 개막을 재촉하는 박수소리가 터져나온다.

"할수 있겠니?" 나는 다그쳐 묻는다. "일어설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금봉이의 손발에 바늘로 사관을 뜬다. 검은 피가 나온다. 금봉이는 겨우 일어나 천천히 무대로 향하며 "선생님…함께해요"한다. 나는 공연내내 무대옆에서 손에 땀을 쥐며 무대위의 '금봉'이를 주시한다. 우리 모두 외국공연에 들떠서 바로 이웃, 남을 보살피지 않았던 것이다.

쇼핑하고, 사진찍고, 먹고 마시는 중에 남의 외로움과 고통을 방치했던 결과였다.

막이 내리자 어두운 무대로 뛰어가 '금봉'이를 껴안았다.

"잘했다 금봉아!" 내손엔 진득한 땀이, '금봉'이의 얼굴엔 해내 자의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극단 신시대표, 극작 · 연출가〉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한-중-일 교토대회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로"

3국불교 상호협력 등 '선언문' 채택

나라현 동대사서 세계평화 기원법회도

관련기사 3면

한중일 불교교류우호회의 제3차 대회가 10월 26일부터 3일간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려 3국불교의 친선과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 등 제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본 선언'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3국불교우호교류회의는 내년부터 대규모 대회를 지양하고 각국의 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에서 서주스님(참보사 조실)을 비롯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과 각종단 간부등 대표단 참관단 2백여명이 참가했다. 주최국인 일본과 중국에서도 각각 2백여 승재가 불자가 참가했다. 입정교성회 교또 보문관에서 27일 열린 개회식은 개회선언에 이어 각국 대표의 인사와 기조연설 및 보충연설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한국대표단장 월주스님은 "3국의 불교인들은 각국의 정치적 이념적 장벽을 넘어 인도주의적 교류와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나까무라 고오류(中村康隆) 대회장(일중한불교교류회의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3국불교도는 진정한 화합공생의 이상을 확고히 하고 세계 인류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교환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 서로 도우며 사는 21세기를 열자"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이번 대회에도 불참한 조박초(趙朴初) 중국불교단 명예단장도 축사를 보내 "이번 대회가 불법홍통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 발양하고 상호교류를 강화해 불교를 세계로 전파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각국 대표단의 기조 연설과 보충연설에서 한국측은 지하스님(중앙승가대총장)이 기조연설에 나섰고 성초 진각종통리원장과 법종스님(보문종부원장) 안효강 총지종법장원장이 보충연설 했다.

28일 동대사(東大寺)에서 봉행된 '세계평화 기원법회'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오늘의 중생들이 서로 화합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발원했다.

이날 오후 나라현 신공회당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제3회 한중일삼국불교우호교류대회 일본 선언문'을 채택했다.

〈교토=임연태 기자〉



◇한중일 불교교류우호회의 제3차 대회가 일본 경도에서 열려 3국불교의 친선과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사찰환경 보존대책 세워라"

조성준의원 대정부 질의

조성준 국민회의 의원은 10월 29일 제185회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사회 · 문화분야)에서 경주 황룡사 · 분황사, 익산 미륵사, 부여 정림사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증 · 복원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조성준의원은 이와함께 △문화재예산의 증액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 △해인 · 동아골프장 문제 △안동 제비원 마애미륵불 주변 음식점 허가문제 등 불교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황용사 등의 복원문제와 관련, 송태호 문체부장관은 "현재 황용사와 미륵사의 규모와 건축양식에 대한 조사를 추진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사찰복원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여앞서 고건 국무총리는 △문화부문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한 전시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해인 · 동아골프장 건설 반대 △문화재 보호 위한 자치단체 행정지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원합의 재협상을"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은 10월 24일 속초 컨상턴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10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이 내무부, 문화체육부와 협의한 합의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관람료징수사찰에 '집권여당과 내무부 국립공원 관리공단 임직원의 산문출입을 엄금' 등의 현수막 설치와 공원입장료 폐지서명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강원총람' 11일 출간

조계종 2년여 작업

승가교육인 산실인 전통강원 관련 종합 자료집인 〈강원총람〉이 2년여 작업끝에 발간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1일 오후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 역대강사 및 각 강원 동국대 중앙승가대 하림 승가대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총람〉 출판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강원총람〉은 강원개관, 사미 강원편, 사미니 강원편, 강원 강본 및 교재, 옛강원편, 역대 강사편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불교 근현대 강원 연표 등을 부록으로 담고 있다.

제2 석굴암 조성 찬반 21면
산사도 오수정화 대책을 23면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늦가을의 고즈넉한 정취가 완연한 11월에는 운주사의 천불천탑(千佛千塔)을 찾아 누운 부처님이 일어나는 날 세상이 바뀐다는 민중들의 바람(願)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운주사의 탑과 불상들은 파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예감도 주지않는 평범한 논과 구릉 속에 자리한 쌍봉사는 기묘한 긴장감과 기대를 품게 하는 이색적인 절집입니다. 장면 1칸 측면 1칸에 3층목탑 모양을 하고 있는 대웅전의 고풍스런 모습과 우리나라 부도 가운데 첫손으로 꼽고 있는 철감선사부도탑의 정교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은 저절로 감탄사를 연발케 합니다.

누운 부처님 언제 일어나시려나

11월 테마여행 - 운주사 · 쌍봉사

■ 참가 안내

◇출 발: 11월 22일(토) 밤10시 · 조계사 앞
◇회 비: 4만원(조식제공)
◇안 내: 환호관(전남대 박물관 하예연구사)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1-221460(선정호)

12월 불교문화 테마여행
◇출 발: 12월 13~14일(1박2일)
◇장 소: 제주도 존자암지 · 법화사지 · 약천사 등지
◇출 발: 40명(선착순)
※12월 불교문화 테마여행 참가 접수도 함께 받습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 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를 거듭할 수록 감동과 신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공모 내용

△주 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본사사장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경 미리내 실버타운 유무상통마을 기공 축

平和를 빕니다.

미리내 실버타운 유무 상통 마을 기공식을 성대히 마칠 수 있었음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참석해 주시고 또한 성원을 보내 주셨음은, 이 나라 노인 복지를 위해 좀 더 열심히 일해 보라고 하시는 채찍으로 알고 깊이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참으로 전형적인 우리의 가을 날씨였고 고운 색깔로 아름답게 물든 미리내의 단풍, 산들과 호수는 가히 절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녕 노부모님들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리지 못함을 널리 헤량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두손모아 비옵니다.

- 도척성당 주임 겸 사회복지법인 오로지 종합복지원 -
방 상 복 신부 두손모음



■ 건축내역(연건평 6,045평) :현재 1만평부지 토목공사 완료
⊙ 지하층(967평) : 체력단련장, 전기실, 세탁실, 방재실, 영안실, 엘리베이터홀(2)
⊙ 1층(1,378평) : 성당, 주방, 식당, 친친실, 상담실, 면회실, 사무실, 치매실, 물리치료실 기계욕실, 방실, 진찰실, 의무실, 의료부속실
⊙ 2층(1,966평) : 은동실, 강당, 자원봉사실, 물품창고(남 · 여), 커피숍, 휴게실, 성경공부실, 회의실, 서예실, 도서실, 취미교실, 국악교실, 미술교실,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레크오락활실, 기도실, 도예실, 원예실, 공작실, 이용실
⊙ 1층~5층(4,079평) : 주거시설(3종 수내원 숙소) ⊙ 부대시설(남경당 3평)

■ 입주금 내역

구 분		전용면적	분양실수	보증금	생활비	총입주금
1인실		8.5평	200실	1억원	5천만원	1억5천
2인실		17평	18실	2억원	1억원	3억
입주방법	1인실	1억금	공칭25%	공칭50%	공칭75%	일주시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2인실	5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6 천만원

* 위 보증금은 중간에 나가시거나 사망시, 본인이나 자손 혹은 본인이 지명하신 분께 돌려 드립니다. 이 보증금은 투자구입 및 조성비, 상계비와 감리비, 건축비로 충당되는 돈입니다. 투고서, 그 밖에 입주할 다른분의 보증금으로 충분히 내 드릴 수 있습니다! 선화나 방문 해 주십시오.

⊙ 입주예정일 : 2000년 5월경 ⊙ 건축허가번호 : 안성 97-6-246
⊙ 설 계 : (주)네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신 제 철(안드레아)
⊙ 감 리 : (株)東綜合建築士事務所 대표이사 배 승 업
⊙ 시 공 : (주)진덕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진 국(토마스)
⊙ 주 관 : 사회복지법인 오로지 종합복지원(도척성당 설립)

문의및 계약처
● 사회복지법인 오로지 종합복지원
(464-880)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유정리 579-1
☎ (0347)64-9751~4 / FAX. 64-9750
● 작은 안나의 집 직원모집
사회복지사 0명
간호사 또는 조무사 0명
믿음주는 시공, 신뢰 받는 건설
珍德産業株式會社

사 설

한·중·일 우호의 열매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로'라는 대주제로 한·중·일 불교교류우호회의 제3차 대회가 일본 경도에서 성료됐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세기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아니면 21세기는 어떤 세기가 되어야 할까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번 대회는 불교의 세기적 역할에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995년 첫모임을 가졌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는 역사적으로 '불법흥통을 유대로 면면히 이어가는 황금의 고리'임을 역설하면서 중국의 북경에서 제1회 3국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사회 종교 정치 경제 여러 분야의 중요인사들이 관심있게 참여함으로서 성황리에 회의를 마쳤었다. 제2회 대회는 1996년 9월 서울에서 '21세기에 있어서 한·중·일 불교의 사명'이란 주제를 갖고 부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우의와 협력관계를 고취했다. 이제 이런 출발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영글어 가면서 올해는 일본의 경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21세기는 정신의 시대라고 한다. 신구세기의 전환기에 즈음하여 역사의 바른 인식을 깊이하며 전쟁의 재화를 교훈으로 하여 삼국불교도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사회의 안녕과 정화를 촉진하여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확신한다."

이 말은 이번 경도의 제3회 한·중·일 불교삼국불교우호교류회의에서 채택된 일본선언에 담긴 내용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라는 목적적 표어를 내세운 뜻을 잘 표현해 준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제 사업, 둘째 삼국불교우호교류회의를 발전 확충시키기 위한 협의, 셋째 학술 및 인적교류의 제사업, 넷째 불교이해를 한층 깊게 하기 위한 제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홍포의 제사업을 들고 있다. 모두 하나같이 목적에 걸맞는 실천사업들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세기가 열리는 지금을 맞아 시의적절하고 희망적인 회의가 이어지게 되었음을 우선 반기는 마음이다. 차제에 우리 모두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문제를 짚어보면서 이 회의가 외화내빈적인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속속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삼국의 우의를 다지는 것은 물론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런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 이 진리를 실천하고 우매한 대중을 위해 올바르게 가르쳐야할 스님과 불자들이 혹시 편협되거나 왜곡되게 가르치는 일은 없는가. 더 나아가선 몽매한 대중들의 어리석음을 좇아오히려 부동한 일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대중들은 부처님 말씀을 가리키는 스님의 손가락을 쳐다보기 때문이다. 그 손가락이 편협되고 왜곡되고 부동한데서야 옳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대중들은 절에 간다고 해서 불교도가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어야 불교도이다. 나의 종교적인 마음이 혹시 나 개인의 영달이나 욕심채우기나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부처님앞에 선다면 그는 절에 다니는 반불교적인 대중일 것이다. 모처럼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경하할 마당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속마음을 한 번 씻어볼 계기로 삼아보자는 뜻이다. 이런 청정함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목표를 내어건다고 한들 허수아비놀음일 뿐이다.

소쩍새마을

종합복지타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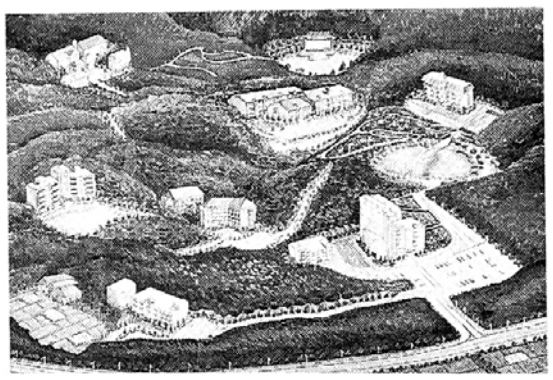
강원 횡성에 19만평 부지마련…내년 4월 기공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송한리에 95년 승가원 설립이후 2년간 추진해온 19만7백49평의 소쩍새마을 부지를 선정함에따라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복지타운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승가원은 10월 24일 오후2시 중앙승가대에서 승가원 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 발표회를 개최하고 부지매입등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했다. 소쩍새 마을은 내년 4월부터 2천5년까지 종합복지타운 부지에 2백여평의 대웅전을 비롯 병원 노인요양원 자원봉사자센터 연수원 체육관 숙소 직원주택을 짓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와 재활작업장 재활농장등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가족 3쌍을 위한 장애인부부주택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회에서 승가원은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땅 한평 사기운동' 후원자들의 부지매입 계약금 10%를 9월 30일 지급한 상태라며 총예산 3백68억원의 조성을 위해 20%의 자부담, 30%의 기업, 사회단체의 기부 체납, 50%의 정부보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3천여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복지타운 소쩍새 마을 구상도.

"신도증발급 극히 저조"
조계종 종정감사 보고회

조계종 종정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휴)는 10월28일 8개반이 15일간 벌인 종정감사에 대한 종합 평가와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신도증 발급현황이 평균 20%에 머물러 상당히 미진해 확보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송광사 방장추대도 촉구했다.

WFB 28차 대회
내년 10월 호주서

WFB 제28차 국제대회가 98년 10월 호주 울룽공에서 열린다.

WFB한국본부 박동기 회장은 WFB본부 회장단이 최근 회의를 열고 4년마다 열리는 대회를 호주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율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자"

조계종 율사 11명 '승려법 개정' 청원

조계종 기초교육기관으로 승가대학(중앙승가대학 강원) 선원 동국대 이외에 율원이 추가 지정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을 비롯 율사스님 11명은 기초율원을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청하스님등 율사스님들이 제출한 청원에 따르면 율은 선, 교와 함께 출가 승가가 지녀야 할 중대한 요건이라며 기초율원 설립과 교육기관으로서의 학력인정을 요청했다. 특히 현재 강원이나 선원교육에서 스님으로서 수지해야 할 사분율이 강의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행 승려법 제17조 1항의 "종단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을 수료하였거나 기초선원과정을 이수한 자는 종단에 지정한 단일계단에서 비구 비구니계를 품수한다"에서 "기초율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초율원은 교육과정이 3년으로 사미(1학년) 치문(2학년) 아함경(3학년)이 적당하며 인원도 강원수준보다 훨씬 많지 않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번에 율사스님들이 제출한 청원서는 19일 종회 교육분과위원회를 거쳐 10월30일 중앙종회 안건으로 채택되면 공식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현존하는 유일한 율전문교육기관은 파계사 영산율원으로 구족계를 받은 스님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원과정이다.

전통강원 연합 논의
승가대학인련 학인대회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비대위원장 범우스님)은 10월25일~26일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범어사 등 14개 강원 4백여명의 학인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대의원회의 및 '97학인대회를 개최했다.

25일 대의원회의에서는 전승련 정관개정으로 △전국전통강원연합 결성 △조직체계 조정 △재정조항 삭제 등을 의결하고, 토론회를 통해 △국립공원 관람료 폐지운동 적극동참 △구족계 수지 자격요건의 평등화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26일에는 서도(書道), 역경, 법고,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을 가졌다.

세계불전협 2000년대회 서울서

올 日대회 대장경전산화 통일안 마련 못해

오는 2000년 세계전자불전협의회(이하 불전협회) 제6차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불전협회는 10월23~26일 일본 오타니대학에서 '마크업(Mark Up)과 코딩(coding)'을 주제로 제4차를 열어 5차 회의는 1999년 대만에서, 6차 회의는 2000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는 한편 '불전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간의 의견조율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따라서 2000년 제6차 불전회의는 그동안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 진행하고 있는 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국제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한국불교계가 불전협회의 주요 회원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불전협회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대장경 등 불교문헌 전산화의 표준화를 꾀하고 '세계불교문헌D/B'를 구축하기 위해 창립된 세계 유일의 불교문헌 전산화 협의기구이다.

한편 이번 4차 회의에는 14개국 1백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글자 구현 체계 △문장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불전 통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99년 대만에서 열릴 차기 회의에서 마크업·코딩 등 불전 통일안이 다시 논의된다.

그러나 불전협회 회원국은 팔리·신수·중화·고려대장경 등의 전산화 작업이 다른 방법으로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통일안보다는 각국이 개발-사용하고 있는 방식 중에서 가장 나은 안(案)을 '공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통일안' 논의는 2000년 6차 회의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21세기는 지역복지 시대"

4대 종교 '복지역할' 포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10월 27일 개최한 '종교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불교복지 제4차 세미나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등 각 종교 참가자들은 "21세기에는 지역사회에 중점을 둔 정신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종교복지재단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한 성문(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삼천사주지)스님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25개 교구본사와 지역사찰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지역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복지정책은 경제능력에 걸맞는 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예산의 투자로 생산적 인력을 창출한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결국 한국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종교계의 복지참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순희목사(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간사)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현황' 발표를 통해 "21세기를 맞아 정신적인 구호가 중요한 봉사의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동체성 상실과 정체성 상실에 대하여 영적이고 정신적인 사회구호적 봉사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회복지활동 개요'를 발표한 최재선국장(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은 "가톨릭교회는 교구 및 본당예산의 10%를 투여해 21세기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사목과 사회통합적 다양화를 통해 전문성제고와 국제구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불교 고윤석관장(원광장애인복지관)은 '원불교의 복지활동'을 통해 "앞으로 북한및 외국의 난민과 빈민구호사업을 통한 세계평화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교의 사회복지시설 현황(96년 기준 문체부 등록)은 총 653개소중 종교계에서 653개소(82.8%)를 운영중이며 각 종교별로는 불교 37개 개신교 4백17개 가톨릭 74개 원불교 17개 기타순으로 나타났다. 불교복지시설에 비해 개신교는 13배 천주교는 2.3배로 기독교가 전체사회복지시설의 75.2%를 차지했다. 〈우〉

"지역사회 정신복지 관심 필요"
불교·기독교·원불교 등 동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불교 세계화를 위해 함께…

성 명 서

사찰지역 공원 입장료 징수폐지 서명운동에 붙여

사회정의와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 주지 모임"**에서는 **9월 22일 제주 관음사** 결의에 따라
"사찰 지역에서의 공원 입장료 징수 철회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그 결의의 당위성을 국민대중에게 천명하고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폐지와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 전통 사찰이 처해있는 상황과 부당성은

첫째 : 사찰이 공원이고, 공원이 곧 사찰이다.
1) 우리 나라 자연공원의 대부분은 사찰을 중심으로 주변사찰 임야에 지정 되어 있다. 따라서 공원의 실재 소유주는 사찰이다.
2) 공원의 관광자원으로써의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사찰과 사찰림은 거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둘째 : 문화재 보호구역이 곧 공원이고, 공원이 곧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1) 대부분의 사찰과 사찰림은 자연공원법보다 강력한 (행위제한이 극심한) 문화재 보호법 적용지역이다.
2)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 주변 환경보존을 위한 보호구역 또는 명승지로 경내와 사찰림 대부분을 지정 보호하고 있음으로, 사찰의 자연공원 지정 자체가 무의미하다.

셋째 : 사찰 문화재 관람권 한 장이면 공원지역 출입까지 허락 받은 것이다.
1) 문화재 관람료는 소유주인 사찰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징수한 것으로 입장 및 관람의 범위는 사찰 경내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지역을 포함한다.
2) 문화재 소유자로부터 이미 출입관람을 허용 받은 이용자에게 남의 소유 문화재와 재산을 근거로 또다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유래를 찾을 길 없다.

넷째 : 지금 내무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만행은,
1) 1970년이래 소유주인 사찰의 동의 없이 남의 소유재산을 근거로 공원 입장료를 계속 징수해 왔으며,
2) 일부 합의된 사찰의 경우도 합의된 30%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3) 1987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관할권을 이관하면서 약속한 "5년이내 공원입장료 징수 폐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4) 1997년 내무부, 문화체육부, 조계종이 합의한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 합동징수 원칙이 내무부 산하 하급기관인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의 독단으로 일방 파기되는 하극상의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불공정·부당·불평등한 상황이 계속 되었어도 국리민복과 공익의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해 왔다.
그러나 작금의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중심으로한 당국의 오만 불순한 만행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의 인내와 자재를 거부하게 한다.

이에 우리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주지 모임"은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를 단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첫째 :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1)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찰에서의 공원입장료 징수의 부도덕성과 부당성을 시인하고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문화재 보호법 및 전통사찰 보존법 적용 사찰과 임야에 대한 공원 지정을 해지하여, 불교발전의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사찰의 자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원 관리 운영 예산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 이천만 불자와 함께 결의하건데
1) 공원입장료 징수 거부운동과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2) 법률적 대응도 불사한다.
3) 범불교, 범국민 결의대회를 강행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1997. 10. 24.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주지 모임일동

「일본선언」

-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제 사업
- 3국 불교우호교류회의를 발전 확충시키기 위한 협의
- 학술 및 인적교류의 제 사업
- 불교이해를 한층 깊게하기 위한 제 사업
- 불교 홍포의 제 사업



◇10월 27일 입정교성회 보문관서 열린 본대회 장면.


◇기자회견에 나온 3국대표. 오른쪽부터 월주스님, 고바야시스님, 도술인 부단장.

우호 확인넘어 공동사업 '행동화'

한-중-일 불교대회 성과와 의의

각국 연락사무소 설치 '연례대회' 지양
불교홍포 '합심'…환태평양시대 선도

10월 27일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본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3국의 대표들은 취재기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측에서 월주스님이 중국측에서 도술인(刀述仁) 중국불교대표단 부단장이 일본측에서는 고바야시(小林隆彰) 일본대표단장이 나왔다.

-고바야시 스님께 묻습니다. 한국의 조계종은 '나눔의 집'을 통해 정신대할머니들의 불우한 노후를 적극 돕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일본 불교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들도 전해듣고 매우 큰 감동을 받고 있다. 일본 불교계의 전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데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종파별로나 사찰별로 정신대할머니들을 위해 무엇이든 일을 해야 한다는 필연성은 느끼고 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 부처님 자비의 정신으로 그들을 위해 일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

-도술인부단장께 묻습니다. 중국의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동반도의 공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공해가 한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불교계는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작년 한국대회에서도 이같은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난다. 그때 우리는 정부에 이 내용을 건의했다. 그 결과 중국불교회가 환경운동에 적극성을 갖게 되었고 정부도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 생태보존과 관련된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상해 산동반도등지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강도높게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북돕기등 세계빈민 구호 앞장"

3국대표 기자회견

日-정신대 보상 中-환경문제 '관심'

-세계적인 구호의 대상이된 북한을 돕기위한 3국불교의 활동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주스님: 한국불교계는 북한동포 돕기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상당한 양의 구호물품이 북에 직 간접적으로 전달됐으며 이런 운동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고바야시: 일본은 종파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연력사 봉사단이 직접 북한을 방문, 곡물을 전달하고 그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돌아 온 것으로 안다.

일본 불교계는 북한뿐 아니라 타국가에 대한 원조도 하고 있다.

▲도술인: 중국불교회는 정부와 연결된 단체다. 따라서 불교계와 정부의 북돕기 활동은 함께 진행된다. 그러나 불교계가 독자적으로 적극성을 보여 금년에 기금과 식량을 모아 북한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이 운동에 불교계가 앞장설 것이다.

임연태 기자

"저는 일본 민족과 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실로 중국은 아버지의 나라이며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라고 믿어 왔습니다. 일본 불교의 각 종파는 어느것이나 양국으로부터 전해지고 자라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때 일본이 저지른 악몽을 참회함과 더불어 저희들은 영원히 평화를 희구하는 국민으로서 조박초 선생이 제안한 '황금의 유대'를 견고히 해 세계인류의 공존 공영, 즉 부처님이 설하신 화합과 공생이라는 이상의 건설에 이바지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어

'부모의 나라'

나까무라 고류(中村降隆)일중한불교교류회 회장은 제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개회식 인사에서 실로 중요한 말을 했다. 중국과 한국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라고 칭한 그의 인사말은 일본의 역사적 자존심을 뛰어 넘은 곳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일본의 한 취재 기자는 이 말에 대해 "종교적 차원의 높은 정신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다"고 평하며 "인류평화를 위해 불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까무라 회장과 같은 겸허와 미래지향적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불교가 인류의 정신을 이끄는 종교가 되어 온 것도 바로 그 가르침이 자비와 화합의 정신에 기반되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자비와 화합의 실천은 쉽지 않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높은 정신력, 다시말해 중생계의 얼키고 설킨 인과업보를 뛰어 넘지 않는 진정한 자비와 화합의 이상세계는 이루어 질 수 없다.

한중일 3국의 역사는 얼키고 설킨 인과업보로 점철되어 왔다. 침략과 지배 화합과 공생의 현실이 끝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각자의 문화와 정치를 견지해 온 것이다. 그런 역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바로 초월적인 정신세계에서 우러 나오는 자비와 화합의 의지에서 동북아의 미래는 밝게 다가 올 수 있다. 이제 3국불교계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자는데 대승적 합의를 보았다. 그런 기점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용기있게 던진 나까무라 회장의 인사말은 얼키고 설킨 현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수요 인터뷰

"불자교육·봉사 실천에 역점"

동산반야회 15년 이끈 김재일 회장



신행단체로서 모범적 신행활동을 펼쳐온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13일 창립, 15주년을 맞는다. 지난 82년 창립 재가불자들의 체계적인 불교 교리 공부와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해온 동산반야회. 초대회장으로 15년동안 동산반야회를 이끌며 재가불자운동의 또다른 장을 열어가고 있는 김재일회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20여년 이상 몸 담았던 공직을 포기하면서까지 활동해오신 그 원력이 궁금합니다.

▲서울시 행정 공무원으로 재직중 성북구청(80년), 서울시청(86년), 중구청(91년)불자회 등을 조직하며 직장법회 활성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중 체계적인 불교 교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전공부 모임을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지금의 동산반야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창립15주년을 맞이한 동산반야회가 이뤄낸 결실들이 많은 줄 압니다.

▲동산반야회의 설립 취지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불자교육과 사회봉사에 있습니다.

창립 취지에 부응해 92년 동산불교대학이 문을 연 이후 7기에 걸쳐 36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 대표적이며 88년 월곡동 어린이집 설립, 90년 석관동 독서실 개원, 93년 한국불교 기아도움기구 창설, 96년 네팔 외국인 초등학교 설립 추진, 97년 북한난민돕기 1만2천불 기탁과 동산불교대학 LA분교설치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동산반야회가 역점을 두고있는 계획이 있다면….

▲2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글 불교의식 보편화와 만일염불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염불운동에는 〈아미타불 삼부경〉 십만팔천번 사경, 3천배정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네팔 외국인 초등학교를 설립할 것이며 해외불서보내기 운동도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포교 활동도 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계획도 들려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LA분교 개원 때문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해외 교포들의 포교 현주소가 힘든 실정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LA분교 설치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 분교 설립을 검토해 교포불자들의 포교와 체계적인 불교교육에 앞장 서겠습니다.

김주일 기자

봉 金剛山 月海寺 개원 기념 百高座 대법회 축

귀의삼보하옵고,
금번 저희 대한생활불교회에서는 강원도 구복암 월해스님의 큰뜻을 받들어 구복암을 월해사로 개명하고 나라의 국운을 위한 호국, 호법 불교의 전통정신의 도량으로 계승 발전 시키고자 국제선원 개산 百高座 기도 대법회를 입제하고, 강원도 月海寺 개원 법요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저 하오니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행 사 내 용 기념 법요식

월해사 개원 및 국제수련원개원(준비)
일만불(석불) 조성봉안(점안)
국내외 백분의 고승대덕 스님 초청
백분의 대승법사 초청
백분의 각분야 지도자 초청
정규불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일만명의 사부대중 청정운동(동참)
일만등 점등기도
월해스님, 법주스님 행적비 제막식
국민대화합을 위한 불자연예인 공연

재가법사품계안내 三화상 七증사 큰스님을 모시고 생활불교금강계단

· 일시 : 1997년 12월 25일 10시
· 장소 : 대한생활불교회관 법당

봉행위원장 재원 김덕수(본회 이사장)

봉 행 위 원

지도위원 : 도왕큰스님(대왕사주지)외 11명
법인이사 : 이재성 외21명
법 인 법 사 단 : 이강주 외31명
분원사찰 및 지회 : 월해사 외20개 사찰
법인단체 : 불교병원, 바른한글역경원, 생불문화원, 생불유치원, 티벳불교문화원, 승군사연구소, 불교문인보리수회, 선문화대학동문회 선문화대학학생회, 생불학생회, 지장회, 관음회, 선문화대학강릉분교

■ 일시 : 불기2541년(1997년)11월19일(음10월20일)13시
■ 장소 : 월해사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대명콘도 뒤)
전 화 : 사단법인 042)531-9542,3
월해사 : 0392)635-6502,6522

■ 주관 : 사단법인 대한생활불교회
■ 주최 : 월해사 (구 구복암)신도회
■ 후원 :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불교TV, 군승(예)법사단,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 W.F.B.Y.한국본부, 종교사학회, 국제선무학회.

사단법인 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 재원 김덕수 합장

"다양한 계층에 양질서비스 제공"

군포 매화복지관 초대관장 수현스님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정진하겠습니다"

10월 29일 개관하여 본격적인 복지서비스를 시작한 군포매화복지관장 수현스님(안양 안흥사주지)은 "앞으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위한 지역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이 운영을 맡아 스님이 초대 관장으로 취임한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 14단지내 위치한 연건평 6백여평 규모로 노인무료병원 등 노인복지를 비롯 장애인, 청소년 등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전개한다. 이와함께 컴퓨터 피아노 수지침 미용교실 등 주부교양강좌와 준고령자를 대상으로한 취업교육훈련 및 알선사업 등 다양한 강좌와 훈련이 실시된다.

김원우 기자



통일대불 점안식장 대선후보 부인들

10월 25일 설악산 신흥사에서 봉행된 청동통일대불 점안식에 대선후보부인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교계행사장에 처음으로 나란히 앉은 한인옥 이회창후보부인, 김은숙 이인제후보부인, 김남희 조순후보부인(사진 왼쪽부터)은 서로 시종 별다른 대화없이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신흥사=김중근 기자〉

■ 새진행자 btn 김수경 · BBS 정연수 씨 ■

"생활과 밀접한 방송 할래요"



◇정연수씨



◇김수경씨

불교방송 가을개편과 더불어 새진행자로 청취자들을 찾아간 '정연수의 라디오 매거진'의 정연수씨(39)와 불교TV '날마다 좋은날'의 김수경씨(26).

정연수씨는 KBS 라디오와 TV 양쪽에서 '라디오 동서남북' '정연수의 현장출동' 등 사회고발성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진행해 왔던 베테랑. 서울 우이동 도선사와 의정부 신륵암에 주로 다닌다는 정씨는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청취자들이 알기쉽고 접근하기 쉽게 문턱이 없는 방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은희 아나운서 후임으로 10월27일부터 '날마다 좋은날'(매일 오전10시20분)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김수경씨는 피아노를 전공한 재원으로 〈반야심경〉 〈고승법어집〉을 틈틈히 읽으면 불교공부를 하고있다. 김씨는 "앞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방송만들기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연〉

교차로

종교회합 공로 감사패 받아



원학 조계종 문화부장 스님(제1회 종교예술제 운영위원장)은 제1회 대한민국예술제를 성공리에 마쳐 종교간 화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10월 11일 문화체육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지역 불자 발심법회



현수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스님은 14일 대전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전불자 발심대법회 및 마정수기법회를 봉행한다.

소년가장돕기 하루찻집



효종 청소년교화연합회 부산지부장 스님은 8일 소년소녀 가장돕기 하루찻집을 부산 중앙동 지하철역 입구 전통찻집 '다전'에서 마련한다.

원로스님 선서화전 열어



상륜 승가사 주지는 승가사 탑전에서 11월 말까지 일타 옥봉 수안스님 등 원로 중진스님들의 선서화전을 열고 있다.

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청해 총화종포교원장(마포경찰서 경승위원)은 10월 21일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황용하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포교기금마련 작품전



명제 부산세전포교원장 스님은 10월 28~31일 同포교원에서 '청소년 및 어린이 포교기금마련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시방에 피는 꽃' 출판회



보명 연화꽃꽂이연합회 이사장 스님은 18일 오후7시 리베라호텔 3층 백제홀에서 불교꽃꽂이 작품집 〈시방에 피는 꽃〉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경산대서 철학 名博 받아



김응현씨(원로 서법가)는 10월 24일 대구 경산대학으로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한국당 사무총장에



김태호 前 불교방송 사장(국회의원)은 10월 26일 신한국당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만해기념관 개관식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은 9일 오전 11시 강원도 백담사에서 만해기념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월주스님, 신흥사 회주 오현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르헨' 콩쿠르서 1등상

박찬갑 한국불교미술인협회장은 10월 11~19일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시립박물관에서 열린 제3회 국제조각가 콩쿠르에서 작품 '모자(母子)'로 1등상을 수상했다.

저축의 날 대통령 표창



김용림 불자 탤런트는 10월 28일 제34회 저축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순례지' 주제 사진전

홍순태씨(사진작가)는 '순례자' 주제로 사진전을 8일까지 삼성동 삼성포토갤러리에서 갖는다. (02)528-6613

불구전시장 '불사원' 개원



박용근씨(이화불교사 사장)는 10월 25일 종로구 견지동 54번지 1층에 70여평의 불교용품 종합전시장 불사원(佛事院)을 개원했다. (02)720-5678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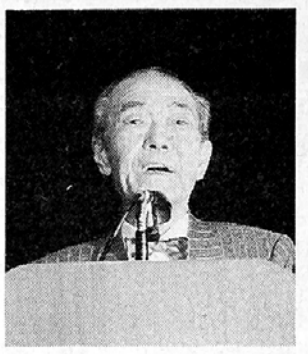
한송사지 석조 보살상 86년만에 귀향

고려조각의 백미로 손꼽히는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2구가 헤어진지 86년만에 고향에서 상봉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10월 26일, 머리없는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보물 제81호)을 보관중이던 강릉시립박물관이 역사문화관을 신축하면서 개관 기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있는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국보 제124호 · 사진)을 대여받아 함께 전시한 것.

역사문화관 불교문화실에 45일동안 머무르게 될 국보124호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은 1912년 발견,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66년 한일협정에 의해 반환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었다.

머리없는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은 한동안 강릉시청 캐비닛 속에 보관돼 오다가 92년 강릉시립박물관이 개관되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

〈사진=김종구씨 제공〉



◇대중강연에서 미당은 "욕심없는 마음으로 윤회를 벗어나자"고 말했다.

"내 문학의 결론은 해탈이죠"

미당 서정주 동국대서 올해 첫 강연

미국에 있는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8월말 귀국한 한국문학계의 거봉 미당 서정주(82) 시인이 10월25일 동국대90주년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문학과 인생'이란 주제로 모처럼만에 대중 앞에서 강연을 했다. 다음은 강연요지이다. 〈편집자 주〉

가슴으로 느끼는 것과 머리로 진실하다 생각하는 것을 아울러 표현하는 것이 문학입니다. 지혜만 챙기지 말고 자비심이 말라붙은 사고력을 축여줘야 윤택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요. 정과 지혜는 마음의 양면이라 서로 도와 원만한 마음 이뤄야 한다는 것을 중앙불교전문학교에 들어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감정을 승화시켜 인류애로 키우고 지혜 · 자비심이 병행하는 한 덩어리 마음으로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내 인생관과 문학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욕망에 좌우되면 윤회전생해요. 윤회가 싫어 석가모니 부처님도 해탈하려 구도행각에 나선 것입니다. 불생불멸 순수 영혼의 경계가 극락인데 아미타불 극락정토 가려면 우선 욕심이 없어야 해요.

"종교, 인간 타락막는 대안"

"자비심 갖춰야 시다운 시"

이미지의 구성 속에 말은 조금하고 많은 의미를 함축시켜 암시하는 것이 시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인들은 너무 많이 써서 내가 보기엔 시와 산문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시의 양산주의로 나가는 경향들이 보이는데 이는 조심해야 할 일이지. 그렇게 되면 시다운 시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불교와의 인연은 대원암 '조선불교중앙강원' 박한영스님 문하에서 수학하던 3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영스님은 '자기집 어른 위할 줄 알면 남의 집 어른도 존대하고 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종교는 인간의 타락을 막기 때문에 종교 간의 일치점을 찾아 인류를 가르쳐야 해요. 원고료도 원로시인이라 비싸게 줘요. 원고료 싸게 받으면 후배들이 야단나지. 내가 원고료 많이 받아 졸부되려는게 아니라 모두 후배들 위해서고 우리 문학을 위해서지요.

강지연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안동여고 300,000원 △도서출판 보리 240,000원 △정토포교원 승만회 175,000원 △남순정 600,000원 △성기서 500,000원 △지창근 500,000원 △최자백 200,000원 △김은숙 110,000원 △김점연 100,000원 △박연실 100,000원 △우 연 100,000원 △김광수 80,000원 △김안옥 72,000원 △권기범 70,000원 △김영주 60,000원 △이순근 60,000원 △이영배 60,000원 외 △한끼 굶기운동 2,737,000원 △밥 한공기 나누기운동 138,000원 △은행 예금이자 23,806원 〈10월29일 현재 총 849,839,998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쌍계사 승가대학인 모집

쌍계사 승가대학 1997학년도 편입생 및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 모집학과 : 사미과(치문과) …… 00명
사집과(편입생) …… 00명
사교과(편입생) …… 00명

■ 입학자격 : 사미계 수계자, 사미과, 사집과 수료자(편입생),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 1부
②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③ 승적사본 …… 1부
④ 주민등록등본 …… 1부
⑤ 사진(3cm X 4cm) …… 3매
⑥사미과 수료증(편입생) …… 1부

■ 준 비 물 : 대가사, 오조가사, 장삼, 발우

■ 전형방법 : 서류접수후 면접

■ 모집기간 : 1997년 10월 10일 ~ 11월 10일

■ 문 의 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쌍계사 승가대학 ☎ (0595)83-1906, 종무소 83-1901

불기 2541년 10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13 교구본사 **쌍계사승가대학**

학 장 선 곡

화엄학림 제4기 학인 모집공고

실상사 화엄학림은 화엄경을 중심 경전으로 강의, 연구, 토론 위주로 공부하는 종단 교육법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 교 수 진 : 연관스님, 법성스님, 도법스님
⊙ 교 과 목 : 화엄학 개론(일승십현문, 망진환원관, 의해백문,화엄약책 , 삼성원융관,법계관문 등)
⊙ 응시자격 : 비구로서
1.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및 예정자(강원,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1997년 12월 1일 ~ 1998년 2월 21일
(음력 11월 2일 ~ 1월 25일)
⊙ 전형일정 : 1998년 2월 23일 (음력 1월 27일) 오후 1시 실상사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입 방 일 : 1998년 3월 3일 (음력 2월 5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서(예정) 1부
사진 5매 (반명함판)
⊙ 문 의 : 전화 (0671)34-3860, 3861 (화엄학림)
(0671)34-3031 (사무실)
(0671)34-3757 (주지실)

※ 입학을 원하는 스님들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 관

590-850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빛고을 새싹불심 키우기 '선봉'

탐방 광주전남교사불자회

2년새 청소년 수계 5천여명 결실
'아침사' '무등불' 등 문서포교 활발

빛고을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불교 중흥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청소년불자들이 대규모로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2천명, 올해는 3천명의 중·고등학생 불자들이 수계를 받고 선재동자의 뒤를 따르고 있다. 다름아닌 광주전남불지교사모임(회장 김진택·전남여상고)이 지난해부터 지역불교계의 온 정성을 모아 거행하고 있는 '광주전남 청소년 불자 합동 수계대법회 및 축제 한마당' 때문.

"미래 부처님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십시오. 빛고을 불교의 희망을 보십시오."

10월 26일 무각사에서 봉행된 제2회 청소년불자 합동수계대법회에서도 이같은 교사들의 외침이 범종의 울림이 되어 호남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학교마다 가정마다 법등을 켜기 위해 나선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은 회원 40명의 발기로 지난 95년 12월 광주불교금융회관에서 결성됐다. 그 해 20여개의 중고등학교에 '불교학생회' 혹은 '문화답사반'이란 이름으로 배움터에 연꽃을 피우기 시작, 지난해 10월 2천여 청소년들의 싱싱한 팔뚝에 연비의 열매를 맺게 했다.

"미래부처 탄생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빛고을 불교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김진택회장은 당시의 감격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의 벅찬 환희가 있었기에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불법을 전하는데 고단함을 잊고 있다. 회원들도 이제는 1백여명에 이르렀고 불연을 맺은 학교도 60여곳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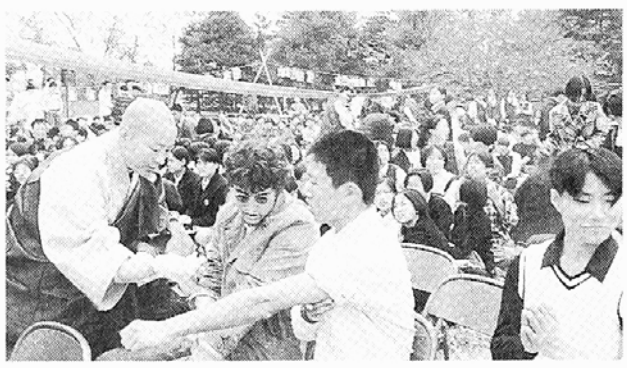
조인숙(송원여상)부회장은 "저희 불자교사들은 '이 뭣고'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을 시간조차 없어요. 아직도 법등을 켜지 못한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참선'은 학생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 불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은 문서포교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10대 들에게 띄우는 붓다의 편지' 월간 〈아침사〉, '교사들에게 띄우는 붓다의 향기' 월간 〈무등불〉을 각각 3천·1천부씩 제작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10대들을 위한 사찰안내서 〈절 그리고 절〉 1만5천권을 불교학생회 지도서로 법보시했고, 올해도 불교의 핵심사상을 담은 〈삼세인과 그리고 윤회〉를 김희장의 조계종 포교대상(원력상) 수상금과 안대지행보살의 원력으로 3천여권을 발간해 놓고 법보시할 예정이다.

물론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바른 법을 전하기에 앞서 매월 사찰순례 법회와 분기별 수련회, 문화답사 등으로 법사로서의 자질을 확립하는 한편, 매년 80여명에게 8백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불자 육성에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광주=김재경 기자



◇ 10월26일 무각사에서 봉행된 제2회 청소년불자 합동수계식에서 3천여 중·고 학생불자들이 계를 받았다.



성림당 월산스님 49재 엄수

성림당 월산대종사(前 불국사·법주사 조실)의 49재가 10월 24일 불국사 무설전에서 엄수됐다. 이날 49재에는 혜암(조계종 원로회의장), 서옹(고불총림 방장), 성찬(도성선원 조실), 숭산(화계사 조실), 진제(동화사 조실), 설정(조계종 종회의장),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암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을 비롯 이원식씨(경주시장)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했다.



백양사 고불미술관 개관전시

전남 장성 백양사(주지 지선)는 10월28일 우하루에서 고불미술관 개관 및 탁본전시회를 개최했다. '천년의 미소'란 주제로 출품된 고달사지 비천상, 갑사동종 지장보살상 등 40여점의 탁본은 12월31일까지 전시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지선 백양사주지, 도성 관음사주지 스님을 비롯 김흥식 장성군수, 김영조 장성경찰서장, 조복래 장성군의회의장, 성춘경 옥과미술관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수방사 충정사서 호국위령 대법회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가 주최하고 대한불교법화종 대호정사(주지 혜륜)가 주관한 호국영령위령대법회가 10월26일 수도방위사령부 충정사(주지 정홍찬 법사)에서 봉행됐다.

수방사에서 근무중 순직한 장·사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법화종 종정 구암스님, 대호 총무원장, 김인종 수도방위사령관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부산불교 영산재보존회의 전통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부산신도회 제2차 불서 전달식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10월27일 코모도호텔에서 정기이사회 및 제2차 불교도서 전달식을 갖고 자운사, 항만정사, 창녕 11군단, 해군 3함대 등 4개의 군법당과 부산시립의료원 동아대학병원에 모두 1천권의 불교책자와 책장을 전달했다. 신도회는 앞으로도 교도소, 군법당, 병원 등에 보낼 불교도서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051)464-2020



불일·조계사청년회 교류 잔치
길놀이·한량무 등 행사 다채

곡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김종주)는 10월24일 신명아트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 조계사 청년호와의 교류 및 원각의 밤'을 개최했다.

월인 광주사암연합회장스님을 비롯 역대 불일청년호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길놀이, 한량무, 민요 등의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한국통신 불자회 '개통'



회원 1백명…성지순례·봉사활동
전국 6만 직원에 법음전파 기대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한국통신 본사 직원 1백명으로 구성된 한국통신불자회(회장 김문수·사진·네트워크본부 기술기획국장·55)가 10월 22일 오후 조계사에서 보각스님(중앙승가대학교수)과 불자직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로써 한국통신 내에는 대구본부의 진여회(85년 창립), 서울번호안내국불자회(93년), 충남본부불자회(97년 9월)를 통합할 수 있게 됐으며, 10개 지역본부 4백여 전화국에 근무하는 6만5천여 직원에게 법음을 전할 수 있는 포교마당이 펼쳐지게 됐다.

한국통신불자회는 지난 9월 9일 회사 건전모임에 정식등록한 것을 계기로 당분간 타 동호회와 공동으로 법당을 이용(내년 청사 이전시 법당 확보 기대)하면서 매달 첫째 수요일에 스님 초청법회를 열어 불심을 키우고 셋째 수요일에는 자체적으로 기초교리강좌를 개설, 보살행의 기초를 닦을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기 성지순례와 봉사활동을 강화해 '행동하는 불심'이 될 것을 서원하고 있다.

김문수회장은 "본사 법회를 활성화 하면서 이미 결성된 지역불자회와의 연대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보여주기식 행사는 자제하되 사내 한가족운동의 일환으로 일반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모범적인 열린 종교모임으로 가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회로 새 삶 찾는다"
하불동 100명 3천~1만배 기도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는 11월 8, 9일 상도동 보문사 법당에서 3천~1만배 참회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진실된 참회의 원력으로 성불의 인연을 맺고자 하는 이 법회에는 전국 각처에서 장애불자를 비롯한 회원 1백여명이 이미 동참의사를 표했으며, 일반인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법회는 2백만원의 법회 지원금을 보시한 한 장애인 보살의 원력으로 시작돼 더욱 의미가 깊다. 한때 성철스님이 주석한 백련암에서 다리를 못쓰는 장애자와 눈먼 어머니가 강력한 원력으로 이틀만에 3천배를 마치자, 어머니는 시력을 회복하고 아들은 다리장애가 회복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그녀는 자신도 상당기간 참회를 한 결과 지금은 거의 장애가 극복되는 공덕을 입고 이같은 원력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02)920-3377

우리 모임에선

우리는선우 금산사 수련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10월25~26일 1박2일간 김제 금산사에서 가을 정기수련회를 가졌다.

이날 수련회에서 결사선우들은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을 증명법사로 "세세생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 것"을 간곡하게 발원했다. 이어 열린 전체토론에서는 불살생, 기도하는 생활, 기복 등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하는데 알아야 할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지심 우리는선우 이사장,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교수 등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02)278-8672



부경대 교수회 창립 1돌

부경대불자교수회(회장 하만경)는 11월 3일 오후 부경대 대학극장에서 창립 1주년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부경대학교 통합 1주년기념 종교인 초청 대강연회'를 겸한 이날 법회에서는 네원암 회주 능가스님이 '21세기와 불교사상'이란 주제로 법문했다.

불교사회연 불적순례

경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스님)은 10월18일 남산 용장사지 일대서 '제1회 달빛과 함께 불적순례'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30여명은 삼륜대좌 미륵부처님 앞에서 차공양, 탑돌이 등을 실시했다.



BBS통신원 연료비 전달

불교방송교통통신원불자회 2조(대표 이한조)는 10월28일 김포공항과 서울시내 터미널, 영등포·서울역 등에서 모금행사를 실시했다. 양로원, 고아원 등에 보낼 난방용 연료 기금마련을 위한 이번 행사에는 4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 1백 50만원을 모금했다.

영·호남 불자 합동산행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이재삼)와 부산불교산악회(회장 이순득)는 11월 9일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합동참배 및 산행을 갖는다. 영·호남 불교산악인들의 화합을 통해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이번 산행의 동참비는 1만5천원. (062)676-4334

공군불자회 동화사 수련

공군불자회(회장 김주식소장)는 10월 25, 26일 1박2일간 팔공산 동화사에서 공군 군승단원과 공군신도 등 공군불자가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 공군기지에서 참석한 회원들은 입제식을 가진 후 동화사 통일대불전과 선본사 갓바위 등을 참배했으며, 참선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파계사 성전암을 방문, 철웅스님의 법문을 듣고 회향했다.

문수회 중학생에 장학금

서울 신림동 연화정사(주지 정명스님) 주부 신행모임인 문수회(회장 조남연)는 10월 24일 동대부중 교장실에서 재학생 3명에게 각 15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문수회는 지난 94년 2월 창립, 매달 문경 호암사(주지 현정스님) 어린이 15명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등 불우학생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02)873-1486



법회안내

호압사 (02)803-4779
초하루기도 매월1~3일 (음) 오전10시30분
약사재일기도 매월8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인등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금강승선관무 수련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주지 원욱스님

호국 원광사 (02)796-0230
일요법회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
일요자녀VTR 법회 매주 일요일 저녁7시
화요오찬법회 매주 화 오전11시30분
수요교리논강 매주 수 오후7시
초하루 인등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청정도량가꾸기 매월1일(음)오전10시
보름인등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주지 이혜우법사

서구교육원 (053)557-3599
육조단경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2시
기초교리강좌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수능입시기도 매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광주 금광사 (62)375-3191
정기법회 매월18일(음) 오전11시
삼일기도 매월18~20일(음)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모두를 부처로 섬기라
국청회 '보현행원품' 강의

"하늘과 땅은 나와 그 뿌리가 같고 온갖 만물은 나와 한 몸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섬기고 공양하라."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보현보살의 행원을 나타낸 〈보현행원품〉.

국청회(회장 김일성)는 6일부터 2개월간 회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현행원품〉을 체계있게 교육한다.

무진장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의 명쾌한 해설로 불교 기초교리와 〈육조단경〉 강의도 마련된다. (02)730-1250

전법은 가장 큰 보시
극락정사 팔리경전 정대불사

김해 극락정사(주지 혜암)는 조계종 원로의원 지종스님(불갑사 조실)을 초청, 12일부터 5일간 미얀마 수도 양곤 최초 한국사원 건립 및 팔만대장경 역경연구소 기금조성을 위한 '팔만대장경 원전(팔리어) 정대불사 대법회'를 갖는다. 보살계 수계법회 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과 함께 봉행되는 이번 법회는 팔만대장경 원전 탁본 1매를 머리에 이고 법계도(法界圖)를 따라 도는 정대불사로 봉행된다. 동참금 5만원. (0525)45-8123

속세물든 먼지털고…
천리안소모임 산사순례

〈삼국유사〉의 자취가 서려있는 유적을 찾아 떠나자.

천리안 문화유산답사동호회 삼국유사소모임(대표 김봉식)이 11월 9일 늦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지리산 자락을 찾는다.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와 스님이 됐던 신충과 이순 등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단속사지와 늦가을 산사의 고즈넉한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내원사에서 도시생활에 찌든 먼지를 말끔히 털어낼 수 있다. 또 돌 하나하나 다듬는데도 온 정성을 기울였던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단속사지 쌍탑과 당간지주, 내원사 석조여래좌상 등에서 만날 수 있다.(천리안 문화유산답사동호회 삼국유사소모임 게시판 No.966 삼국유사 24편 안내)

민족의숨결 만나보자
삼국유사 원문 해설

신화, 전설, 실화 등의 재미난 이야기속에 묻어나는 불교적인 의미들을 단순한 내용해설에 거치지 않고 원문을 살펴 한문공부도 아우르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의가 있다.


◇천리안 문화유산답사동호회 삼국유사 소모임은 9일 단속사지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단속사지. 속세와 인연을 끊은듯 동서쌍탑과 당간지주만이 외롭게 서있다.

신행수첩

일연스님의 저서 〈삼국유사〉 원문을 통해 불교적인 의미를 살피는 강좌가 바로 그것.

현재 불교부산방송의 '이야기 삼국유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조선생의 해설로 서면 화엄회관에서 11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삼국유사를 한문공부와 함께 재미있게 익힐 것으로 기대. (051)818-8659

무명벗고 참나찾아서
관음사 1字1拜 사경법회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학장 우학)는 11월11일부터 동안거 3개월간 대승경전 특강과 1자1배 사경법회를 연다.

무비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장)의 지장경, 자광스님(김용사 주지)의 원각경, 근일스님(부석사 주지)의 법성게, 삼중스님(자비정사 주지)이 금강경을 각각 강의한다.

오전반은 매주 화·수·목·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반은 매주 화·금요일 오후7시30분부터 시작. 이 기간동안 법당에서는 경전구절을 한자 쓰고 한번 절하는 일자일배(一字一拜) 사경(寫經)법회도 아울러 진행된다. (053)474-8228

"21세기는 불교와 함께"
팔달사 불교학교 개강

수원불교청년회(회장 김혜경)와 팔달사청년회(회장 강필상)가 함께 주최하는 '제3기 불교학교'가 6일부터 16일까지 팔달사 대웅전에서 개최된다.

'21세기는 불교와 함께'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배움터는 △6일 '우리생활 문화와 불교의 접속' 권두현(안동대 민속학과 강사) △12일 '화합과 통일의 시대' 손혁재(성심여대교수) △13일 '인간성 상실의 시대와 불교' 정락스님(용주사 주지) △16일 서산 개심사, 삼존마애불상, 수덕사 탐방 등의 일정으로 꾸며진다. (0331)44-5088

나의 수행일기


왕정균 〈서양화가〉

"이젠 이웃에 기쁨 줄 터"
관음정근 속에 미움·절망의 세월 반성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미움과 좌절 속에 너무도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을 가둔채 살아왔다.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부터라도 허물어진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다듬어 자비로운 삶을 살도록 참회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마음 고생하시던 부모님과 사랑하는 두 딸, 나를 아는 모든 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선물할 수 있도록 힘찬 발걸음을 옮겨 본다. 마음은 벌써 비개인 부천 석왕사 일주문에 들어서고 있다.

독실한 불교집안에 몸을 받아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절을 찾았던 기억이 새롭다. 추억속의 할머니는 늘 새벽 일찍 일어나 정갈한 모습으로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곤 했다. 아마도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보다는 가족과 친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기도였으리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곳은 기독교재단에서 설립한 중·고등학교였다. 언제나 자신들의 믿음만을 강요하는 터이어서 산사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절을 찾던 습이 몸에 배어 도심에 있는 조계사를 찾았다. 사춘기 시절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자주 절에 들리다 보니 불교학생회에 인연이 닿아 운문스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운문스님은 특히 학생회 지도에 열심이셨다. 어려운 불교교리도 실생활에 맞게 지도해 주셨고 불교적인 삶의 모습도 몸소 보여주셨다. 운문스님의 지도로 어느정도 신행이 몸에 배었을 때 부족한 가운데서도 계를 받았다. 부처님의 한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엄숙한 의식을 통해 청정한 삶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생활과 수행을 가다듬어 나가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으며, 이때부터 관음정근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성장하여 사회인(군인)이 되면서부터는 점점 부처를 이룬다는 생각보다는 평상의 삶에 안주하기 시작했다. 6년전 대위로 전역하기까지 15년, 그간 한시도 불교를 잊은 적은 없지만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생활에 평정심을 지키지 못한 때가 많았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웃음보다는 눈물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했다는 후회와 자책의 시간으로 자신을 나무라고 있다. 생각해 보면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삶의 조각들이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으로 보듬고 사랑하게 되었다.

20여년 전, 폐결핵으로 인해 모든 인내의 한계를 느껴 몸과 마음이 허물어 질 때는 그림을 통해 상상의 나래를 폈다. 그 상상의 세계에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채 이루지 못한 멋진 사랑을 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립고 보고픈 산 들 강 바다에 마음껏 갈 수 있기에 좋았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마음껏 그릴 수 있기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슴의 통증을 이겨내고 삶의 희망을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고통이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동반자라면 고통으로 찡그리기 보다는 내 일부로 덤덤히 받아들이는 여유도 갖게 되었다.

그간의 삶을 돌아보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너무도 깊고 삐에 사무침을 느낀다. 짧은 글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은혜였다. 당신은 언제나 힘들 때마다 가까이 다가와 부축해 주는 다정한 할머니였다. 또 기쁠 때면 누구보다 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마음을 나눈 벗이었다. 일상에서는 나의 모습과 속내를 찬찬히 살피며 인도해 주는 그런 선지식이었다.

잔잔한 삶의 동반자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참으로 큰 행복이었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힘의 원천이었다. 관세음보살님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든든한 후원자이자 성불의 길을 인도하는 귀의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게시판

♣ 모집

△광운불교대 신입생=광운불교대학(학장 청운스님)은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신입생과 경전반으로 나뉘어지며 교육기간은 1년. 수시로 접수 가능. (02)389-8966

△대구경실련 회원=대구경실련 불교시민회(회장 강인성)는 11월 20일까지 회원을 모집. (053)353-1597

△쌍계사 승가대 학인=쌍계사 승가대학(학장 선곡)은 사미과(치문과), 사집과(편입생)의 승가대학인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0일까지. (0595)83-1906

△청소년 지도사·총무과 직원=불국토(이사장 정관)는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일 할 청소년지도사와 총무과 직원을 모집한다. 해당분야 자격소지자로 11월 5일까지 서류 마감. (051)808-4569

♣ 강좌

△불교기초교리·생활역학=불교청주방송 문화기획단은 불교기초교리 수지침 생활역학 등 5개 교양강좌를 8층법당에서 개설하고 있다. 이번 교양강좌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생활역학(한겨레문화센터 김동완강사)은 월요일 오전 10시, 수지침(김용달강사)은 화요일 오후 7시, 서예(송종관 예술의전당 강사)는 수요일 오전 10시, 사군자(진효숙 화선서예원장)는 수요일 오후 2시에 강의한다. (0431)294-5114

△만화그리기=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광스님)은 7일부터 12월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만화 인물화 그리기 특강을 마련한다. 선착순 20명 접수. (02)806-1375

△치매 간병인 간호법=성라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11, 18일 이틀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치매의 치료와 예방책에 대해 강의한다. (02)985-0161

△참선수련=한국참선명상협회(회장 송동곤)는 22일부터 3개월간 매주 토요일에 참선지도를 실시한다. 신청 마감은 20일. (02)575-0130

♣ 알림

△하루찻집=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효종)는 8일 중앙동 다전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하루찻집을 연다. (051)633-6412

♣ 순례

△백양사·대둔사=불교방송(사장 서돈각)사업국은 11월8~9일 양일간 백양사, 대둔사(구 대흥사), 미황사, 무위사로 순례를 떠난다. (02)705-5302

△칠갑산 장곡사=능인선원(원장 지광)은 6일 장곡사로 답사를 간다. 동참비는 1만5천원. (0343)92-2576

△실상사·만복사=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8일 실상사, 만복사, 정령치 마애불 등지로 유적답사를 실시한다. 전남대박물관 황호균 학예연구사가 안내. (062)228-9098

♣ 전시

△철기유물=국립청주박물관(관장 서오선)은 30일까지 별관 전시실에서 진천 석장리 철생산 출토유물 등 2백여점을 전시한다. (0431)55-1632

♣ 부음

△도필선기자 부친상=현대불교신문 도필선기자(편집국 취재1부)의 부친 도태환씨(63세)가 10월28일 새벽4시15분 타계했다. (051)626-1561

△선상신차장 빙모상=불교방송 보도국 선상신 차장의 장모 신숙희씨(69세)가 28일 오전 별세했다. (02)705-5288

◆ 모시는 말씀 ◆

雪岳의 단풍이 만인을 손짓하는 풍요로운 결실의 季節입니다.
老人들의 樂園, 東海岸 유료노인복지타운 보리수마을 竣工式및 病院開院式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왕림하셔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997년 11월 12일 (음 10.13) 수요일 오후 1시
● 장소 : 강원도 양양 **보리수마을** 현지
● 전화 : 서울(02)511-6431, (0396)671-6808~9
※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예약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마을**

증 명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노천 월하
총무원장 송월주
보리수마을 이사장 김명신 합장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성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경산·경주등 '문화유적지도' 제작 잇달아

문화재 훼손 '바람막이'

보존-개발 마찰 예방 기능
매년 30개 시·군 지도제작

문화재 훼손의 바람막이로 문화유적지도 제작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산시문화유적분포지도' 발간에 이어 '경주문화유적지도'와 '서울문화재지도' 등도 개발로 인한 문화재 파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제작을 서두르고 있다.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최근 펴낸 '경산시문화유적분포지도'는 5만분의 1 지형도 전체와 5천분의 1 상세도를 넣어 지금까지 조사된 문화유적의 위치와 분포범위를 표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추가 확인될 유적도 기입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했다. 김창억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은 "이 지도는 경산시 유적 현황을 비롯 지역별 유적성격 및 지정문화재현황, 훼손 소실된 유적까지도 표기하고 있어 앞으로 발간될 문화유적지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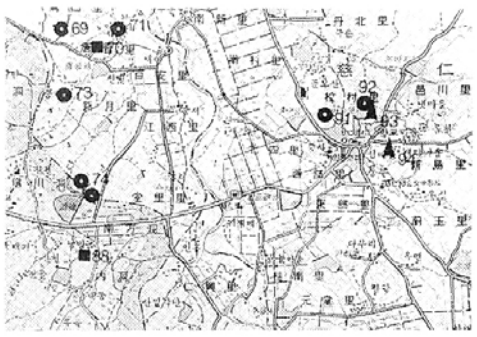
문화재관리국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문화재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문화유적지도를 제작, 문화유적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차로 지난해부터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김해 등 13개 시군에 대한 지도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 1년에 30개 시군의 지도를 제작, 2002년까지 전국 1백50여 시군의 문화유적지도를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달 안에 나올 '경주문화유적지도'는 신라중학교 교사인 송재중씨가 지난 10년동안 경주 소재 국보 29점, 보물 75점 등 지정문화재 2백83건을 비롯 비지정문화재 1백6건, 절터 2백77개소 등 1천7백62건의 문화유적을 직접 답사해 펴내는 것이다.

이밖에 경주시와 충주시도 자체적으로 국립경주박물관과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에 문화유적지도 제작을 각각 의뢰, 문헌자료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5천분의 1지도를 포함한 유적현황 등을 내년초 발간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2003년까지 고지도 등 옛 문서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서울의 문화유적은 물론 지금은 폐허가 돼 버린 옛 사찰이나 탑 등 사라진 유적의 위치까지 표기한 '서울문화재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각 시당국은 이를 문화재 관련기관이나 개발기관 등에 배포, 누구나 참고할 수 있게 해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석 기자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펴낸 '경산시문화유적분포지도'의 부분.

불심시심 〈105〉

백사장의 가을 달

白沙如雪眼前平 (백사여설안전평) 눈 같이 흰 모래 시계앞 펼쳐지고
更好晴秋夜月明 (갱호청추야월명) 더욱 좋아라, 가을 밤 달의 밝음
瀁氣橫侵天外色 (호기횡침천외색) 환한 기색 가로 지른 하늘 밖의 빛
餘輝直透水中明 (여휘직투수중명) 은은한 빛 수직으로 물 속까지 밝구나
仙畫幻出銀霜界 (선동환출은상계) 선동이 빚어낸 은빛의 세계이고
化叟粧成白玉京 (화수장성백옥경) 조화옹이 다듬은 백옥 구슬의 궁전
影射波濤鷗夢冷 (영사파도구몽냉) 파도에 투사되는 그림자에 갈매기 꿈은 싸늘해
驚飛始覺有哀聲 (경비시각유애성) 이제야 알겠다, 저 놀라 나는 애절한 울음

용암대사의 '백사장의 가을 달(明似秋月)'이라 제한 시이다. 달 밝은 가을 백사장의 서경을 잘 드러낸 시이다. 수평으로 펼쳐진 백사장을 눈 내린 광원으로 착각하리만큼 밝게 표현하였고, 물 속에 드리우는 달빛의 수직선을 종횡으로 교차시켰다. 공간에 어우러지는 하늘 빛은 엷으로 끼어들고 달빛은 수직으로 투영되는 종횡의 교차이다. 이 종횡의 선으로 구도화시키는 수법이 한시로서의 대구 구성의 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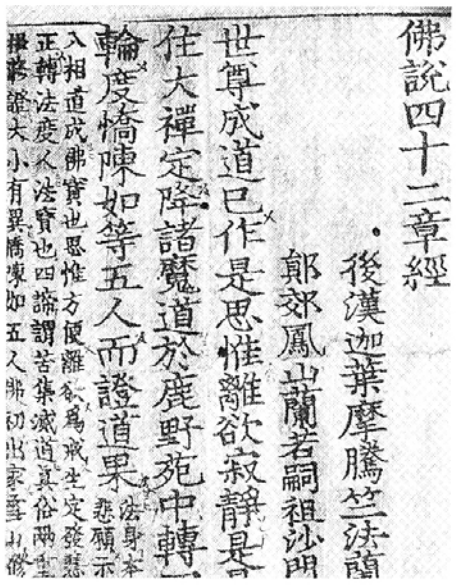
하늘 밖의 빛(天外色)이나, 물 속의 밝음(水中明)도 따지고 보면 상도를 벗어나는 반상의 어법이다. 하늘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는 빛이 없고, 달의 밝음도 물과 지면 위를 비추는 것이지 땅 속이나 물 속을 비추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밤의 빛이니 하늘 밖의 빛이요, 물에 비친 달이니 물 속의 빛이다. 그러기에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밝음을 느끼면서 시어로서의 묘미를 더한다.

이렇듯 실제로 존재하기 힘든 상황의 포착이기에 신선 경계로 이해되어 백옥경으로 이름 붙여 신선의 궁전이라 한다. 그러니 지금 이 달은 저 신선 동자가 은빛으로 빚어내었고, 조화옹이 도장해 낸 백옥의 궁전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다. 달이 훤히 뜨면서 싸늘한 밝음에 놀라 깨어나는 백로의 울음 소리가 바로 강가의 밤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너무도 조용한 밤의 적막을 깨는 소리이기에 애절한 울음으로 들리는 것이다. 이렇듯 신비스러우리만큼 한밤의 경치를 처음 느끼게 한 것이다.

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는 현실에서 몽환의 이상계로 들었다가 다시 현실의 세계로 되돌아오는 구도라 할 수도 있으니, 작자가 스님임을 주목하여, 속(俗)에서 성(聖)으로 다시 속계로 되돌아오는 대승적 암시라 하면 망발일까.

이종찬 〈동국대 교수〉



◇국내 현존 불설사십이장경 최고본으로 추정되는 진본이 공개됐다.

국보급 1361년 이두표기 발행본

불설사십이장경 '공개'

보물 제694·695호로 지정돼 있는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의 또다른 진본이 나타나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천에 사는 박무규씨가 22일 공개한 이 불경은 고려 공민왕10년(1361)에 발행된 것으로 글자의 구결표기가 이두문자로 돼 있다.

고서수집을 취미로 하고 있는 박씨는 이 불경을 3개월 전 대구의 서지학자에게서 구입, 강원대 최상익(한문학과) 박민일(국문학과)교수 등 전문가의 고증을 받았다.

최교수 등에 따르면 불설사십이장경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한 최초의 경을 후한의 학자들이 번역, 불교의 요지를 42장으로 나눠 간략하게 정리한 것.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승들의 지침서로 활용됐으며,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불설사십이장경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보물694호(故 조명기박사 소장)로 지정돼 있는 원본(元本)계통으로 이 또한 1361년에 간행됐다.

"사지복원 정보 한 눈에 본다"

조계종, 폐사지 1차조사 '불교사원지(상)' 펴내

934개소 확인…충청·전라등 2차조사

조계종이 전국에 산재한 불교사원지(佛敎寺院址)를 조사한 결과 기존에 문화재관리국이 파악한 사지 숫자보다 약 2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원학스님)가 3일 발간한 〈불교사원지(상)〉에 나타난 사지 숫자(괄호안은 1977년 문화재관리국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경인지역 1백61개소(1백38), 강원지역 2백개소(61), 대구·경북지역 3백36개소(1백62), 부산·울산·경남지역 2백37개소(1백67)로 총 9백34개소(5백28)이다.

〈불교사원지(상)〉은 조계종이 성보문화재 관련조사와 연구를 직접 총괄진행한 최초의 연구학술조사 보고서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 1차 폐사지조사에 대한 결과를 담고 있다. 원학스님은 "이처럼 불교사원지를 체계적으로 조사, 집대성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향후 장기적인 사지발굴 및 복원계획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각 사지의 연혁 및 현황, 소재 성보문화재, 해당 관련문헌과 참고자료를 실어 사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기존 조사발굴된 사지는 물론 문헌상에만 전하는 사지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단순한 현황조사가 아니라 각 사지에 관련된 자료를 새롭게 정리, 다수 사찰의 폐사연대를 추정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조계종은 사지 2차조사를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불교사원지(하)〉를 펴낼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다양한 통계를 산출한 〈성보문화재 지정현황 보고서(유형문화재편)〉도 아울러 발간됐다. 〈석〉

불교서예인협회 10일 창립

1백여 회원 결속…초대회장 진우스님
12월15~24일 통일서예대전 열어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서법예술을 펼쳐갈 불자서예인들의 모임인 불교서예인협회가 결성된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각각 서예협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가운데 서예인 중 불자가 유난히 많은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이번 교계 최초의 불교서예인협회 결성은 매우 뜻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월 12일 발기인대회에 이어 오는 10일 오전 1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출범하는 불교서예인협회(이하 불서협)는 초대회장에 진우스님(김해 천태사 주지) 부회장에 성수스님, 이희열 서동석 송종관 조성자씨, 사무국장에 이시구씨를 각각 선임하고 고문에 혜암(조계종원로회의 의장) 석주(칠보사 조실) 원담(수덕사 방장) 일타(은해사 조실) 스님 등과 초정 권창륜 구당 여연구, 창석 김창동 씨등 12명의 원로를 고문에, 수완 성파 종림 스님 등과 마하 손주선, 목우 윤기성, 심은 전정우씨 등 13명의 중진서예인을 지도위원에 위촉해 놓았다.

초대회장 진우스님은 "불교 서예인들이 수행정진은 물론 서법예술 실현과 생활문화로써의 書禪一如의 경지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자서예인 1백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한 불서협은 향후 △서법강좌 △사경대회 △정기회원전 △금석문 및 고서 불경의 보존을 위한 연구 등 서예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사업을 벌여나가며 한국미술인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서예가협회 등의 추천작가 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서협은 불교인과 서예인들의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제1회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을 오는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통일대전에서는 서예활동을 하는 불자로서 공로가 많은 사람에 대해 추천을 받아 '97불교서예인상(국회의장상)을 시상한다.

이경숙 기자

문화 소식

가릉빈가합창단 연주회

불교방송 가릉빈가 합창단이 11일 저녁 7시부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장일남교수(한양대 음대)가 지휘하고 서울아카데미 심포니오 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이번 연주회에서 가릉빈가합창단은 1부에서 '경복궁타령' '보리타작' '나는 개구장이' 등 6곡을, 2부에서는 장일남교수가 작곡한 '염불' '탑돌이' 등 신작찬불가를 부른다. (02)705-5301

대전 심인합창단 창단

진각종 대전교구청 각 심인당 신교도 연합으로 구성된 심인합창단(단장 각행훈)이 10월 24일 대전 신덕심인당에서 창단됐다.

55명으로 구성된 심인합창단은 서은영씨가 지휘를 맡아 앞으로 지역불교문화발전에 선도역할을 담당한다. 심인합창단은 12월중 개최예정인 진각종단 음악제인 교성곡 '회당' 발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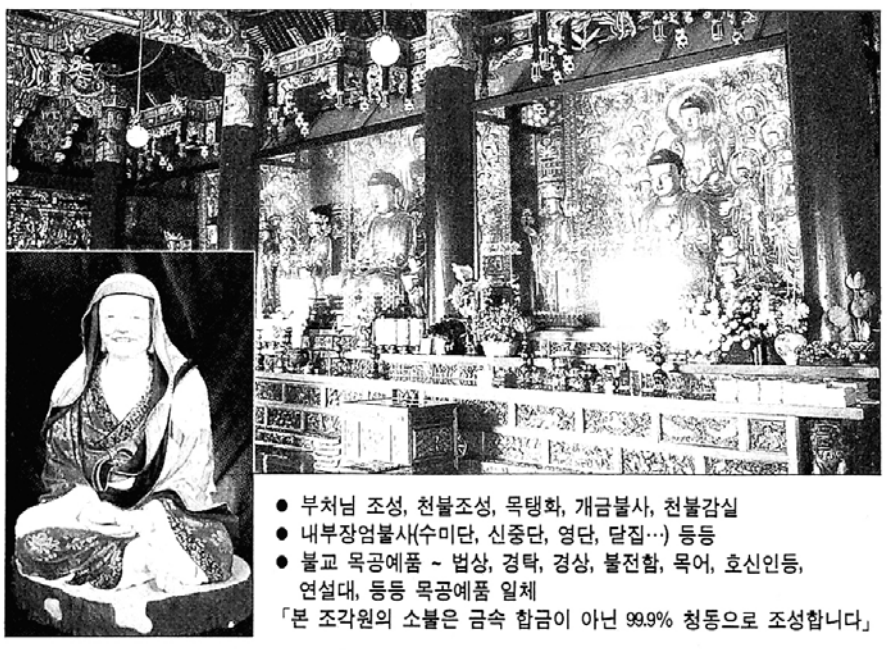
원만사합창단 찬불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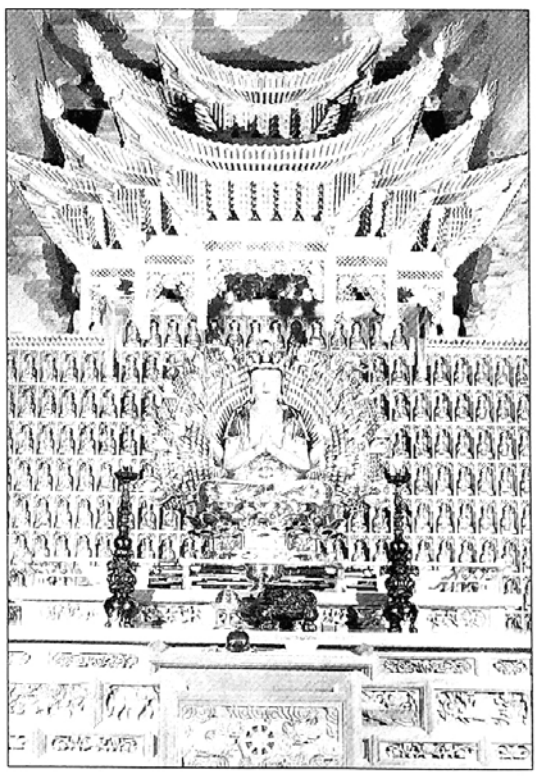
대구 원만사 합창단은 12일 오후 6시 30분 대구시민회관에서 제2회 합창단 정기공연으로 '예불' 등 찬불가발표회를 갖는다.

'예불'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내용으로 정부기 교수(중앙대)가 지난 1993년 발표한 국악교성곡이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

불서재고 낙엽쌓이듯 '창고가득'

군부대기증등 대부분 법보시 처리
출판사-서점 '접속' 판로 마련해야
책방 여시아문, 11월 '재고도서 특판'

좋은 책을 만들어내도 그것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에까지 전달되기는 참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요즘과 같은 출판물의 홍수속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간때문에 밀려나 창고에 쌓여가는 불서들도 많다. 이러한 구(舊)불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계출판사가 연합한 정기적인 재고도서 판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서들은 일반책들과는 달라 시기성을 타지 않지만 출간된지 오래됐거나 잘 팔리지 않아 반품된 책들은 그대로 창고에 쌓아두기 일쑤로 재고도서에 대한 딱부러진 처리방안이 없다.

한 출판사의 경우는 재고도서 대부분을 군부대에 기증한다. 교계출판사들은 재고도서 처리문제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재고도서 할인판매에는 별관심을 갖지 않거나 부정적인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교계출판사 대부분이 소규모인데다 불서가운데 상당수가 스님이나 사찰의 개별적인 요구로 만들어 지고, 이로인해 팔다 남거나 반품되어 온 책은 법보시용으로 소비되고 있기때문. 여기에 정가제 질서교란과 신간도서의 판매부진에 대한 우려도 큰 몫을 차지한다.

일반 출판물 재고도서의 경우 이미 대형서점의 기획행사나 상설코너, 대학축제기간, 알뜰장터 등의 행사를 통해 재고도서 판매시장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비교적 활발하게 재고도서가 유통되는 곳은 대형서점. 교보문고는 도로공원을 활용해 봄 가을로 '구간우량도서 염가판매전'을 연다. 처음에는 가을에만 시작했다가 독자들의 호응이 좋아 봄에도 연다. 각 출판사에 공문을 띄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100여개 출판사가 참여하고 있어 비교적 큰 행사에 속한다.

영풍문고도 4월부터 인문서가 옆에 상설로 '구간할인도서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30개 출판사가 참여해 관매정가의 60~70%선에서 재고도서를 판매하고 있다.

불서전문 책방 여시아문도 11월 한달간 재고도서 특판전을 실시한다. 책방 여시아문은 불교출판사들의 동참을 통해 재고도서를 관매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교계출판사들이 재고도서를 사찰 등에 법보시로 기증해 재고도서전 참여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재고도서의 법보시도 뜻깊은 일이지만 불교출판 발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재고도서 판매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재고도서 관매로 출판사들은 겨우 제작원가를 건지는 정도이긴 하지만 애써 만든 책이 보다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데 의의를 두고, 또 한편으로는 불서읽기 독서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서출판과 관매의 원활한 상호교류 등으로 창고에 무작정 쌓여있는 불서들이 불자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고도서 판매를 주도할 수 있는 불교출판사와 서점 등의 단일연합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자 기자



◇인문서가 옆에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영풍문고의 '구간할인 도서 코너'

삼중스님 택시에서 나눈 인생담 '스님 굴비맛…' 펴내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해 온 박삼중스님(자비사 주지)이 택시 안에서 바라본 37가지 인생이야기 〈스님 굴비맛 보셨습니까〉(산미디어 刊)를 펴냈다.

연이은 강의로 하루에도 수차례 택시를 이용하는 스님이 택시 기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묶은 것으로 삶속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단편단면들이 잘 묘사돼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준다.

스님은 "인간다운 대접도 못받고 불신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 중의 하나가 택시 기사들입니다. 그러나 소외 받으면서도 자신의 처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마다 꼭 한 번 그들의 삶을 담은 책을 펴내고 싶었습니다"라며 출간동기를 말한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동료들을 위해 20년 무사고이면서도 개인택시 면허증을 양보한 어느 택시기사, 몰지각한 손님에게 멸시당하면서도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감옥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며 스님을 친히 모신 전과 7범의 택시기사 등과의 만남을 통해 스님은 또다른 자신의 모습과 삶을 발견했다고 이야기 한다.

〈은〉

'문화유산에 담긴…' '상상속의 얼굴…' 얼굴소재 책 두권 출간
한국인다운 미소는?





얼굴을 소재로 한 〈문화유산에 담긴 한국의 미소〉와 〈상상 속의 얼굴 얼굴 속의 문화〉가 발간돼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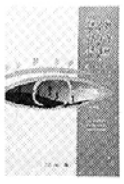
김대성씨(한국일보 논설위원)가 쓴 〈문화유산에 담긴 한국의 미소〉(대한교과서 刊)는 회화, 조각, 공예 등 72가지의 문화유산에 담긴 미소를 통해 예술로 승화된 웃음의 문화를 화보와 함께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문화유산 중에서도 불교문화에 깃들어 있는 미소는 한국의 미소를 대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나리자의 미소와는 근본적으로 격을 달리하는 신라의 반가사유상, 가는 웃음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피가 도는 꿈의 미소 불국사 석굴암 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가 발전해 온 원동력이 웃음을 예술로 승화시킨 힘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얼굴은 문화전반에 대한 하나의 척도라는 점에서 〈상상 속의 얼굴 얼굴 속의 문화〉(을유문화사 刊)는 또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 책은 얼굴을 소재로 한 동서양의 건축물과 예술작품,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유래와 문화풍속을 아우르고 있다. 저자 박영수씨는 특히 불교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상의 얼굴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눈 만큼은 내리감긴 상태라는 공통점을 찾아내기도 하고, 우리나라 금강역사상의 특징이 중국 및 일본의 것과 달리 무섭다기보다는 악의 없는 순진성을 지니고 있다고 고찰한다.

이 책에는 이밖에도 십이지신상과 스핑크스, 사천왕과 신선 등에 나타난 문화차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흥미로운 유래도 소개하고 있다. 〈은〉

새로나온 책







▲행복한 감성의 세계로=이 책은 영원을 넘어서까지 변함없는 지고의 가치세계에 대해 이야기 한다. 자아적인 지성에 의지하던 시대는 곳곳에서 그 종말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성을 감성속에 녹여서 빛나는 새로운 가치로 발산시키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서 고목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한 감성의 세계로 가는 길을 제시해준다. 〈삼양 7천원〉

▲그린에 심은 사랑=황무지였던 장호원 골프장에 헬기가 뜨기까지 골프장을 일구었던 (주)장호원 골프클럽 대표이사 이정행보살의 에세이집. 이 책은 짧은 교사생활, 결혼 후 세 아이를 키우며 회사경영자로서 바쁜 나날속에 어머니로서 못다한 모생애, 직원들에 대한 애정등이 진솔하게 표현돼 있다. 또한 사회성 스포츠로 인식되는 골프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저자의 인생관, 경영철학 등을 엿볼 수 있다. 〈우리출판사 7천원〉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과학과 기술은 나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아진 것 없이 거꾸로 돌아간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수원대 환경공학과 이상훈교수는 에세이집 〈거꾸로 가는 세상에서〉 자신의 일상을 통해 현재 우리삶을 바라본다. 또한 이 교수는 이 책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환경문제를 전문가적 식견에서 담아내고 있다.〈빛샘 6천5백원〉

정심계관법 지운 번역

수행자에게 보낸 도선율사의 가르침



〈정심계관법(淨心誡觀法)〉은 수행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좋은 거울이다. '마음을 청정하게 함에 계로서 관하는 법'을 설하고 있는 이 책은 당나라 남산율종의 종주인 도선율사가 지은 것으로 수행하는 제자에게 보내는 가르침의 글들이 알기쉽게 쓰여져 있다.

처음 불문에 입문한 초발심자에게 수행의 출발과 수행해 가는 과정을 정심(淨心)으로 귀결하고 있다. 정심이 바로 신심과 발심의 근원이고 출가자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출가수행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 재물과 색으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깨달음과 자리이타의 칩경임을 강조하는 이 책은 송광사 강원 강주 지운스님이 번역했다. 〈토방 7천원〉

화제의 책

여래장 조수동 지음

여래장사상 본질·발달과정 심층분석



여래장사상은 중생심안에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해탈의 심성으로서 여래장이 있다는 사상이다. 해탈의 내적 주체로서의 마음에 대한 고찰에서 중생과 여래와의 등질성(等質性)을 강조하고, 거기서 성불의 근거를 추구한다.

경산대 조수동교수(동양철학)는 이러한 여래장사상의 발달과정, 본질과 구조 등을 〈여래장〉에서 심층적으로 다뤘다.

여래장 사상의 모태가 된 인도의 사상체계를 고찰하고, 기본 경전인 여래장 삼부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래장의 본질과 구조를 살피고 있다. 특히 여래장사상의 발전과정으로 여래장과 불성과의 관계, 일천제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승기신론소 별기〉 〈금강삼매경론〉을 통해 원효스님의 여래장설을 고찰했다. 〈이문출판사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수행으로 가는 길	이제열	대원정사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 타	효 림
4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우리출판사
5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림	행 원
6	선(작은책 2)	지 현	민족사
7	명상길라잡이	박 석	도 솔
8	무소유	법 정	범우사
9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신 반야심경 강의	혜 담	불교시대사

구입문의:(02)737-0695

기(氣)와 영기(靈氣)가 강력한 만다라 스티커

우주에너지의 결집체인 만(卍), 이 만으로 만법계진(卍法界陣)이 쳐져 있는 만다라(卍多羅) 스티커는 무량한 수의 불·보살님의 법신이 들어 있어 여러분의 재앙을 막아 주며 행운을 줄 것입니다.

이 만다라는 보는 것만으로도 힘과 지혜가 생기며 순간적 불의와 재난 〔수재·화재·강도·질병·교통사고〕 등이 예방됩니다.

사고를 예방하지만, 만약에 사고시 차는 꾸겨져도 사람은 살아 나오는 위대한 기력(氣力)·영력(靈力)·신력(神力)등이 있으며, 특히 영가 〔귀신〕 병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만다라 스티커를 부착하면,
① 잡귀(雜鬼)·악신(惡神)등을 물리치는 힘.
② 병약·허약자 영가병자를 위한 힘.
③ 업장소멸과 기도성취를 위한 힘.
④ 지혜증장 학업성취 시험운을 위한 힘.
⑤ 사업운 금전운을 돕는 힘.
⑥ 대인관계의 원만한 화합의 힘. 이외에 피로가 덜해지고, 물은 감로수로 변하고, 술·담배·커피등이 순해집니다.

기(氣)와 영기(靈氣)가 가득한 만다라의 세련된 제품으로는 시계·넥타이·옷·방석등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용(用)을 모른다면, 과연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 1셋트 6장 18,000원 ●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원심선원**

02)606-2153·5691

제34회 감로사 천화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본 계단은 6·25 피난시절인 1951년도에 큰스님네가 감로사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교훈받아 사부대중들에게 보살계를 받아 실천함만이 국난퇴치와 자성성불의 지름길'이란 보살계를 설하셨습니다. 이후 청정율사이신 자운대종사께서 보살계를 설하시어 수계받은 수많은 사부대중이 한국불교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운대율사의 수제자인 가산 지관 큰 스님께서 그 계맥을 이어받아 제34회 보살계의 큰법문을 3일간 (오전10시, 오후2시 두번) 설하오니 많이 수계 동참하시어 국태민안과 가내안녕을 이루어 마침내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수계법사: ① 전계대화상 : 가산 지관
② 갈마아사리 : 오륜 법희
③ 교수아사리 : 황산 혜총
■ 수계일시: 입재일 - 음력 10월 4일(양력 11월 3일) 오전 10시
회향일 - 음력 10월 6일(양력 11월 5일) 오전 9시
■ 수계장소: 감로사 천화계단
■ 동 참 금: 3만원
■ 지 참 물: 꽃, 공양미, 과일 약간씩
※보살계 수계산림후 회향방생 갑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번지

☎ (051)809-0926

"화엄경 53선지식중 21명 여성"


◇해주스님


◇황인규씨

해주스님, 불교학회 추계세미나 발표 '주목'

"무학대사, 나옹스님 법맥 이었다" 황인규씨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올 불교학 연구 결실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제28회 추계 전국 불교학술연구 발표대회'를 6일 동국대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여성·현상학·선·유식학·근대불교사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이 발표돼 한국불교학계의 왕성한 연구의욕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화엄경〉에 나타난 여성선지식들의 모습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남녀의 차별적인 모습이 없음을 조명한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입법계품(入法界品)의 여성선지식에 대한 고찰'이 주목받고 있다.

해주스님은 "〈화엄경〉에 나타난 선재동자를 포함 54명 선지식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1명이 여성 선지식"이라고 지적하고 "〈화엄경〉에 나타난 42계중 화엄보살도를 총괄하며 화엄의 일승보살도를 대표하는 십지(十地) 계위는 모두 여성 선지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여성선지식의 특징은 △자비가 원만하고 총만함 △세상에 물들지 않은 청정함 △자비가 원만하고 지혜가 두루하여 부처를 탄생시킴 △인욕하고 공경하는 무진공덕장이라는 것.

해주스님은 "여성선지식들은 모두 여성이라는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 화엄의 일승보살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십지보살의 지위가 모두 여성선지식에 배당된 것은 십지행이 중생계에 들어가 대자대비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행임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화엄세계에서는 해탈경계로나 남녀의 차별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여성에게 자비·청정·수순중생의 덕이 있어 부처를 탄생시키는 특징적인 장점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불교의 마지막 왕사(王師) 무학자초(無學自超·1327~1405)의 종교·정치·사회적 활동을 조명한 황인규(동국대 역사교육과 강사)씨는 '무학자초의 생애 및 활동의 재고찰'에서 "원효암(元曉庵)·송광사에서 나옹스님의 불자(拂子)·의발(衣鉢)를 신표로 받았던 무학대사는 지공·나옹의 법통 계승했던 선승(禪僧)"이며 "무학대사가 한양천도를 주도한 이면에는 사승(師僧)의 유훈을 받들어 회암사를 중심으로 당시 불교계를 혁신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씨에 따르면 고려의 법통을 이은 무학대사는 신왕조가 치국이념으로서 유교를 선택한 이후에도 △한양을 지키는 4대 사찰 지정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之圖)〉 간행 등 흥불(興佛)에 주력했다. 또 당시 함흥에 머물고 있는 이성계를 환궁(還宮)케 하는 등 왕실과의 화합을 유도해 비보사찰을 보존하는 등 불교계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이에 대해 황인규씨는 "무학대사의 활동은 조선초 변혁세력에 대한 단순한 도움 차원을 넘어서 당시 소진해진 불교계의 중흥과 개편을 위한 능동적 입장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후설 현상학과 불교 유식론의 심식이론'(배의용) '일연의 중편조동위 연구'(한종만) '승조의 일반무명론 성립에 대한 제문제'(김주경) '식에 의거한 경험세계의 허구성과 허구성 속의 법칙성'(김사업) 등이 발표된다.

오증욱 기자

교계학술회의 '11월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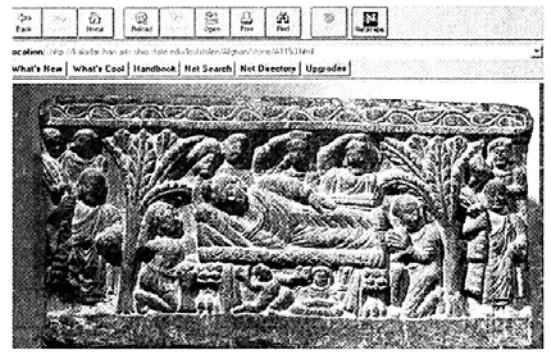
종교학회·원효학硏 등 연구발표 잇달아

한국종교학회가 8일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필두로 원효학연구원,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 등이 잇달아 학술회의를 갖는다.

한국종교학회(회장 이은봉)가 8일 이화여대에서 '해방후 종교 50년'을 주제로 개최하는 학술회의의 불교·인도철학 분과토의에서 '지공화상의 선사상'(신규탁) '인도종교의 신과 초월의식'(김현준) 등이 발표된다.

원효학연구원(원장 김영태)은 1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원효스님이 가르친 신심(信心)의 근본을 조명하고자 '원효성사의 신관(信觀)' 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마련한다. 이번 회의에는 보광스님(동국대 불교학)이 '원효의 정토교학에 보이는 신관', 인환스님(동국대 선학)이 '〈보살계본기〉에 나타난 원효의 신관', 은정희교수(서울교대 윤리학)가 '원효의 〈기신론소기〉에 나타난 신관', 김영태 교수(동국대 불교학)가 '〈본업경소〉와 〈중변논소〉를 통해 본 원효의 신관' 등을 발표한다.

또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회장 이종찬)도 14일 동국대에서 '한국문학과 미륵신앙'을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연다. 동국대 홍기삼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미륵신앙과 동학'(오출세), '미륵신앙과 증산교'(구사회), '미륵사상과 현대문학'(장영우) 등이 소개된다.



바미얀 계곡 불상등 50여점 「감상」

두다파이 사이버 기행

헌팅톤 불교예술 갤러리

세계 최대 석불인 바미얀 대불을 비롯해 아프카니스탄 바미얀 계곡에 숨어 있는 불교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사이트는 미국 오하이오대 존 헌팅톤 교수(아시아예술사학)가 개설한 '헌팅톤 불교예술'.

아프카니스탄의 불교 예술품 50여점을 그래픽 파일로 제공하는 이 사이트는 그동안 아프카니스탄 등의 불교예술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불자들이 이곳을 방문하면 이국(異國)의 불향을 만끽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바미얀 계곡은 2Km에 걸쳐 마치 벌집처럼 굴을 파서 만든 승방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을 방문했던 현장법사도 〈대당서역기〉에서 "이 대불들은 도금으로 빛난다"고 묘사했다.

불상과 벽화에 묘사된 보살·대중의 모습은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이 사이트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존 헌팅톤 교수가 25년간 아시아에서 수집한 30만장의 사진자료도 연람할 수 있다. http://kaladarshan.arts.ohio-state.edu/loststolen/lsafgh.html

"종교와 사회문화 유기적 관계"

윤승용씨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이해' 펴내



종교인구가 국민의 절반을 넘고, 상당한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사회. 종교에 대한 이해없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서로 다른 종교들이 한데 어울려 있는 우리나라의 종교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책이 바로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이해〉(한울아카데미 刊)이다.

이 책은 한국종교연구회 연구위원인 윤승용씨가 우리나라의 종교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개별 종교가 차지하는 종교문화적 위상을 시대적 흐름과 연결해 전개한 것. 이 책은 제1부 '사회구성과 종교현상' 제2부 '현대 한국종교의 전개' 제3부 '한국종교현상의 이해'의 세부분으로 나눠 60년대 이후 세계체제 속의 급속한 산업화과정속에서 한국의 각 종교가 취한 반응이 가지는 사회사적 의미를 개괄하고, 한국사회구성의 특성과 종교현상과의 역학관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 경우 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민족문화의 전통가치를 인식하고 재평가 하는 분위기속에 그 잠재력이 재가신도단체들의 등장등 점차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고찰했다.

학술단신

8일 이기영박사 추모법회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은 8일 오후3시 불연 이기영 박사 1주기 추모법회를 갖는다.

이번 이기영박사 추모법회에는 후학들이 펴낸 이기영박사 추모문집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열린다. (02)4311-6167

김용옥박사 '벽암록' 강의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박학다식한 언변으로 널리 알려진 김용옥박사가 15일부터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3시 동숭동 도올서원에서 〈벽암록〉을 강의한다.

〈벽암록(碧巖錄)〉은 설두중현이 고승들의 문답백칙(問答百則)을 엄선하고 원오스님이 해설을 붙인 선서(禪書). (02)744-7992


◇제4오관대왕도(第4五官大王圖)

"지옥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

박영철씨 '나라카에서 지옥으로' 논문발표

"심판과 결과만 중시 불교 사상과 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地獄)은 범어인 '나라카'의 중국적인 번역일 뿐 부처님이 설하신 나라카 본 뜻이라고 볼 수 없다"

박영철씨(서울대 역사교육학 강사)가 최근 〈역사교육(제63호)〉에 소개한 '나라카(Naraka)에서 지옥으로-불교의 번역과 중국문명'에서 따르면 나라카란 죄업(罪業)에 의해서 느끼는 극고(極苦)의 처소를 지칭한다는 것.

나라카가 번역될 당시, 유교(儒敎)가 주요 사상이었던 중국에서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을 철저히 부정했다. 이에 따라 나라카는 지옥(地獄), 협처(狹處), 태산(太山) 등으로만 한정 번역됐다.

박영철씨는 "지옥에서 옥(獄)의 의미는 심판의 과정과 결과만을 한정시킨 뇌옥(牢獄)의 성격이 짙다"며 "이것은 중국의 격의불교(格義佛敎)가 낳은 산물이므로 나라카의 본 뜻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소식

'티벳에서의…' 등 홍콩 상영 포기

홍콩은 최근 중국과 티벳을 주제로 美 헐리우드가 제작한 영화 '티벳에서의 7년' '레드 코너' 등의 수입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에 대해 세계 영화인들은 "홍콩이 지난 7월 중국에 편입된 이후 강화된 검열제도 때문"이라고 추측해 주목된다.

홍콩의 주요 일간지 The South China Morning Post도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MGM 영화사의 최근 신작 '레드 코너(Red Corner)'에 대해 중국은 극장 뿐만 아니라 비디오 상영도 금지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월트 디즈니사(社)의 '쿤둔(Kundun)과 브래드 피트가 열연한 '티벳에서의 7년'(Seven Years in Tibet)이 홍콩에서 상영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그동안 헐리우드 영화에 우호적이던 홍콩의 태도 변화는 중국이 최근 달라이 라마의 일생을 조명한 헐리우드 영화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티벳에서의 7년' '쿤둔' 등은 달라이 라마의 인생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폭력적인 제국주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

스리랑카 민족분쟁 스님들 중재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스님 5천여명이 17일 타밀등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성직자를 차별하는 악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지지하는 대규모 평화 행진을 전개했다.

평화행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성직자협의회 바타폴라 난다히미 회장은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이 나라에 평화가 깃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며 "법개정을 통해 스리랑카가 직면하고 있는 종교윤리적 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8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타밀족 분리주의자의 테러에 의해 5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종교·민족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백화사설초

약(藥)이 되는 신비한 약용식물 『백화사설초』

암을 퇴치 예방, 각종 질병에 효과 입증

기적의 한국산 약초


★ 특허출원 제 26218호

신비한 약초로 생약업계에서 구전되어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가 지난 93년부터 우리땅에서 재배가 이루어져 최대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함암과 소염」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생약재 백화사설초를 직접 재배하고 앞장서고 있는 사람은 김나진자 사장과 공급에는 불심원 원장 법현법사이다.

김나진자 사장은 30년간 청과물 도매업으로 그 분야에서는 성공을 했으나, 오랫동안 객지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정상적인 生活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부부는 양의는 물론이고 한방병원에까지 다녔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고통과 실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중 우연히 친척 동생으로부터 「백화사설초」의 효능을 듣고 복용한 결과 혈액순환장애,위장병, 각종 염증성 질환, 피부병, 마비증상등의 합병증을 말끔히 치료할 수 있었다.

김사장 부부는 백화사설초의 덕택으로 모든 병들이 완전히 치료되어 새 생명을 얻고 이 사설초의 효능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치유불가능 선고를 받은 다른 환자에게도 권유 다른 약을 일절 쓰지않고 백화사설초만으로 꾸준히 병을 다스리며 치유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회생하게 된 소식을 듣고 약초를 구입하게 된 사람들도 대단한 효과를 보고 공감하게 되었으며 불심원 원장 법현법사는 스님들과 2천만 불자들의 건강에 앞장서고 있다.

특징 및 효능

이 풀의 특징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항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힘의 탁월함에 있다.

백화사설초는 청열해독약(淸熱解毒藥)으로도 쓰인다. 「청열」이란 한량(寒凉), 약성(藥性)으로 체내의 이열(裏熱)을 내린다는 것이며, 「해독」이란 일반적으로 감염증의 발열이나 수반되는 병리변화 및 각종 독소로 인한 반응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백화사설초는 약성이 한량하다. 이 열을 내리고, 체내의 응어리를 풀어주며 독소를 해소한다 는 것이다. 이것을 한방용어로 청열·기어·소옹·해독이라고 한다.

※ 싱가포르대학 학장 이광선 박사는 "간암으로 홍콩의 권위있는 어느 병원에서 조차 치료약이 없다고하여, 백화사설초를 매일 150g씩 전탕해서 복용하니까 3개월만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녹차와 약차」 동화문화사 刊, 신재용 생활필서 中에서)

■지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백화사설초를 복용하시어 완쾌되시길 기원합니다.

각종문헌에 나타난 효능

◎ 항암본초(상민의 편저, 김수철 역주)
위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암, 기타암증

◎ 묘약기방(조규형 저, 범진문화사 刊))
간염,장염,요초감염,맹장염,편도선염,인후염,각종 종기,타박상,위암,직장암,간암,자궁경암,방광암

◎ 녹차와 약차(동화문화사 刊, 신재용 생활필서)
간염,장염,요도염,인후염,급성 충수염

◎ 백화사설초(진존인 저, 동도문화사 刊, 한방의학대사전중)
급성 충수염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의약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생약보호협회장 이학박사 한영채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 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장 약학박사 성환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신농산 (051) 465-5100, 467-5200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27

운문의 똥막대기 ㊥

운문의 선은 천자(天子)의 품격이 있다고 한다. 그는 선의 깊이뿐만 아니라 언어를 다루는 솜씨도 저만큼 뛰어났다. (한 문호를 열려면 최소한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默照를 주로 하는 曹洞은 좀 다르겠지만) 운문은 역설적으로 그 재주를 부끄러워했고 그래서 지극히 아꼈다. 운문 선의 특징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유명한 일자관(一字關)이다. 누가 묻거나 입을 때면 구구한 설명 없이 단 한 글자로 응수한다. 짧게 끊어치는 그 한마디는 즉각 산하대지를 삼켜버린다. 가령 이런 것이다. "무엇이 올바른 진리의 눈(正法眼)입니까?" "보(普)!" 〈올바른 진리의 눈〉이란 교학에 대한 선의 진리를 가리킨다. 요컨대 선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운문은 삼라만상이 부처요,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선의 진수라고 응답했다. 어디에나 널려 있다는 것(普)은 결국 아무데도 없다는 말과 같다. 그렇더라도 운문 당신은 도량(道場)을 짓고 이리 사람을 모았으니 어쨌든 그 길을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곳은 대체 어디인가라고 묻자 운문은 또 "친(親)!"이라고 내질렀다. 몸소 찾고 홀로 가 보라는 매정한 권고였다. 운문의 일자관은 그의 기질과 품격을 단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지금 살펴 볼 공안도 품격은 비슷하다.

"무엇이 부처입니까"라는 물음에 운문은 "뒷간의 똥막대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 말은 경건한 불교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대중들조차 놀라게 할 것이 틀림없다. 선이 파격적이라고 해도 이토록 지독할 수가 있는가. 일찍이 우리는 운문의 과격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어느 설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가 태어날 때 여덟 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뇌까렸다는데,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한 몽둥이로 때려잡아 굶주린 개에게 던져 주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쯤 천하가 태평할 것인데…"

이런 패륜과 우상파괴도 지금의 공안에 비하면 오히려 온건한 편이다. 똥막대기가 무엇인가. 뒷간에 두고 똥을 퍼내거나 저을 때 쓰는 막대기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에누리없이 똥을 누고 난 다음 밑을 훔치는 씻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화장지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지를 꼬깃꼬깃 구긴 다음 뒷처리를 하는 것이 낯설지 않았다. 신문기름에 엉덩이가 시커멓게 절어 있던 아이들과 놀던 기억이 새롭다. 신문지는 그래도 양반이었다. 새끼줄을 걸어두고 온식구가 공용으로 쓰거나 심지어 옥수수 깍지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림 · 이준석

운문은 지금 부처란 것이 바로 그 더럽고 지저분한 물건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공안이 너무 지독하다고 여겨선지 좀 순화해서 읽으려고 한다. 이를테면 부처님께서 앞의 일자관에서 말한 대로 삼라만상 두두물물에 편만해 계시니 당연히 똥처럼 천하고 지저분한 물건에도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범신론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도와주는 전거로 장자(莊子)를 들기도 한다. 동곽자(東廓子)가 장자에게 도(道)가 어디 있느냐고 물자, 장자는 "없는 데가 없다"고 대답했다. 좀 구체적으로 한정해 달라고 하자, 개미나 벌레에 있다고 했다. 신성한 도가 어찌 그런 하찮은 물건에 있느냐고 의아해하자 장자는 등겨나 벽을 조각에도 있다고 했다. 어찌 점점 더 비천한 물건으로 내려가느냐고 인상을 찌푸리자 장자는 마침내 "똥오줌에도 있다!"고 말해 질문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미리 짚어두지만 장자가 말한 똥오줌은 지금 운문의 똥오줌과는 의미와 맥락이 다르다. 장자는 자연의 유기적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은 동등한 자격과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유기농법을 연상하면 좋겠다. 인분은 채소와 과일을 키우는 거름이 된다. 그런데 어째서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

"道는 똥 오줌에 있다"…자연 흐름에 순응해야

인간의 분뇨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일까.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도 아름다운 덕(德)이다. 재화가 한정되어 있고 복작대는 사회에 내 의자 하나라도 거둬가면 숨쉬기가 훨씬 낫지 않겠는가. 또 육신이 썩어 개미밥이 되거나 까마귀들에게 공양된다면 그 또한 보람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장자는 말한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方生方死, 方死方生)." 요컨대 죽음은 탄생과 더불어 있고 생사(生死)는 동일한 과정의 양면이다. 비극은 이런 자연을 전체적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중심에서 바라보는데서 생겼다. 인간의 자만과 교지(狡智)로 하여 본래 평등하던 자연이 선(善)과 악(惡), 미(美)와 추(醜), 시(是)와 비(非)로 찢겨 나갔다. 인간세의 권모와 술수, 전쟁과 혼란은 바로 그 인간의 무지와 편집증이 몰고온 폭력의 결과이다.

진정한 평화는 이같은 인간의 반자연적 태도(有爲)를 접고 자연의 흐름인 도(道)에 순응할 때 얻어질 수 있다. 장자의 궁극적 이념은 영원의 수동성, 즉 무위(無爲)이다. 그에 이르는 첫걸음은 자연을 동등한 가치로 바라보는 훈련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말한다. "도(道)는 똥오줌 속에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지혜롭기가 으뜸이었던 사리불존자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 왔다. 건장하고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었는데 자신도 수도를 하여 법을 깨닫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리불존자는 젊은이를 보고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용모가 훌륭한 것으로 보아 자기 몸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집착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구상관(九想觀)을 닦게 하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상관은 몸을 자기라고 여겨 애착하고 탐하는 어리석음을 없애주기 위하여 몸을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구상관(九想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행법을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다시피하지만 미얀마나 태국 같은 남방불교권에서는 지금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는 것 외에 들판에 버리거나 물에 던지기도 했다. 사리불존자는 우선 젊은이를 들판에 데리고 나가 방금 죽은 시체를 찾아 그 앞에 앉도록 시켰다. 그런다음 이제부터 시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집중적으로 관찰한 후 자리를 옮겨 아홉 단계로 나누어 계속해서 상상해 보라고 하였다. 젊은이는 사리불존자가 시키는대로 실천하였다. 눈으로 본 더럽고 가엾고 두렵고 허무한 시체의 변화된 모습을 조용한 곳에 가서 차례로 떠올려 보았다. 시체가 곡식의 자루처럼 퉁퉁 부운 모양 떠올리는 창상(脹想), 가죽과 살이 문드러지는 모양을 떠올리는 괴상(壞想), 피와 썩은 물이 흐르는 모양을 떠올리는 혈도상(血塗想), 벌레가 생기고 살점이 흩어지는 모양을 떠올리는 농란상(膿爛想), 푸르팅팅하게 피고름이 섞이고 엉긴 모양을 떠올리는 청어상(靑瘀想), 썩은 시체를 새나 짐승이 파먹는 모양을 떠올리는 담상(噉想), 몸이 분해되어 흩어지는 모양을 떠올리는 산상(散想), 흰뼈만 딩구는 모양을 떠올리는 골상(骨想), 불에 타고 흙에 묻히고 바람에 날려간 모양을 떠올리는 소상(燒想)이다.



◇청원스님 作 '달마가 전한 뜻은…'

몸의 9가지 더러운 모양 살펴 육신 허망함 일깨우는 수행법

그러나 이상한 일은 젊은이가 사리불존자의 지시대로 구상관을 닦은 결과에 대한 문제였다. 젊은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관법을 닦았지만 몸에 대한 집착을 여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오히려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해지기만 하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아침에 사리불존자를 찾아가 자신이 그 수행을 하는 동안 마음이 평화롭기 보다는 더욱 어지러워진다고 말하였다. 사리불존자는 사랑하고 애착하던 몸을 시체처럼 부정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젊은이를 부처님께 인도하였다. 사리불존자의 말을 들은 부처님은 젊은이를 보고 이 사람은 구상관과 같은 부정관(不淨觀)을 닦아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까닭은 젊은이가 전생에 금을 가지고 조각을 하던 직업의 소유자여서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을 타고 났기 때문에 수행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젊은이를 이끌고 연꽃이 활짝 핀 연못가로 가셨다. 젊은이에게 이 연못가에 앉아서 아름다운 연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집중해 보라고 하셨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연꽃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음에서 큰 기쁨이 일면서 금세 집중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연꽃에 온 마음이 팔려 환희심에 빠져있을 때였다. 갑자기 연못의 싱싱하던 연꽃들이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젊은이의 마음에 순간 큰 깨달음이 찾아왔다. 자신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필경 추해지는 것으로 집착할게 없다는 것이다. 똑같은 무상을 깨닫게 하는 데에도 사리불과 부처님의 방법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방법만을 가지고는 각양각색의 중생을 다 인도할 수 없다는 점과 인도자는 수행하려는 자의 근기를 잘 파악한 다음 수행방법을 내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30

자기화

김 용 운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5

"물가의 말에게 억지로 물먹일 수 없다" 문제의식 가져야 암기지식 자기화 가능

〈임제록〉의 마지막장 행록(行錄)에는 임제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 그가 대오의 경지에 도달하는 데는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임제화상(和尙)은 처음 황벽의 제자였고 열심히 수행했다. 그것을 알아차린 수좌(首座)가 "너는 여기에 와서 3년이 되었다. 아직 황벽화상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불법의 근본의(根本義)에 대해 직접 황벽의 가르침을 받아 보라"고 했다. 젊은 임제는 그 길로 황벽화상을 찾아 그것을 물었다. 그러나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벽은 몽둥이로 임제를 쳤다.

기가 죽어 돌아온 임제를 보고 수좌가 물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는가?"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몽둥이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수좌는 다시 한 번 가서 가르침을 청해 보라고 했다. 임제는 다시 황벽을 찾아 뵙고 길을 물었더니 다시 몽둥이로 맞았다. 이런 식으로 세 번 가서 세 번 맞은 것이다. 드디어 임제는 수좌에게 "세 번이나 가서 세 번을 맞았는데 아직도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인연이 닫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딴 곳으로 가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좌는 "그래, 할 수 없지. 그러나 이곳을 떠나기 전에 황벽화상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라"고 말했다.

임제는 황벽화상을 찾아가 떠나는 인사말을 했다. 그것을 들은 황벽화상은 "다른 곳을 찾지 말고 대우(大愚) 선사를 찾아가라"고 일렀다. 임제는 황벽의 말대로 대우를 찾아 나섰다. 대우는 찾아온 임제에 대해 물었다.

"어디서 온 것이냐?"

"황벽화상으로부터 왔습니다"

"황벽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던가?"

"나는 그에게 세 번 불교의 근본의를 묻고 세 번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대우는 "황벽은 그토록 노파와 같은 마음으로 너를 가르치려 했는데(老婆心切) 굳이 나에게까지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 순간 임제는 대오를 얻고 "황벽의 가르침은 명백하였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대우는 임제의 멱살을 잡고 "무어라고, 이 못난 애송이가 방금 무엇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우는 소리를 한 놈이 이제는 황벽의 가르침이 명백하다고? 무엇이 명백한지 말해 봐!"라고 소리쳤다. 임제는 대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세 번 치며 대우를 밀쳤다. "당신의 스승이 황벽이 아닌가! 내가 알 바는 아니다"

임제는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고 자신도 확고한 문제의식이 없었다. 그가 황벽을 찾아갈 때만 해도 구한 것은 일반적인 답이었다. 그 자신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확고한 자신의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알아차린 황벽은 그에게 몽둥이질을 한 것이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물을 마시는 일만큼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유클리드는 그 이전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기하학적인 지식을 집대성하여 완벽한 논리체계로 엮었던 희랍 최고의 학자였다. 일반적으로 그가 엮은 논증기하학을 도형의 학문으로 여겼으나 기하학은 오히려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특히 왕에게는 필수의 교양이며 제왕학(帝王學)의 첫째 과목으로 여기고 있었다.

유클리드는 왕자의 가정교사 즉 사부(師父)였다. 가정교사치고는 당대 최고의 수준의 사람이다. 그러나 왕자는 그것이 어려워 잘 이해하지 못했다. 왕자는 견디다 못해 유클리드에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유클리드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왕자에게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상대가 왕자가 아니라면 틀림없이 황벽화상이 임제에게 한 것처럼 몽둥이 세례를 주었을 것이다.

남이 제시해 놓은 수학의 내용은 누구나 건전한 이성과 기초 지식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낱 암기에 불과하며 자신의 경지를 얻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기존의 수학 지식을 얻어도 그것을 자기화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논리를 초월하는 불교와 논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수학은 최고의 인식 수준에 도달하는 길은 다르더라도 자기화 과정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만은 공통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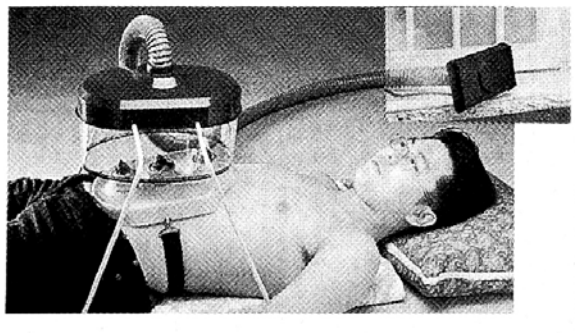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 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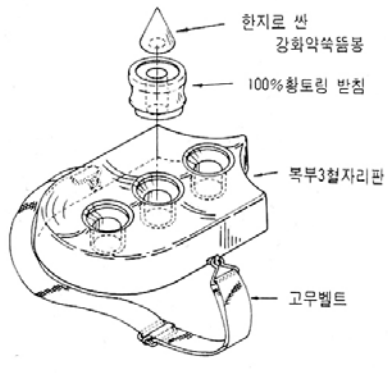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60,000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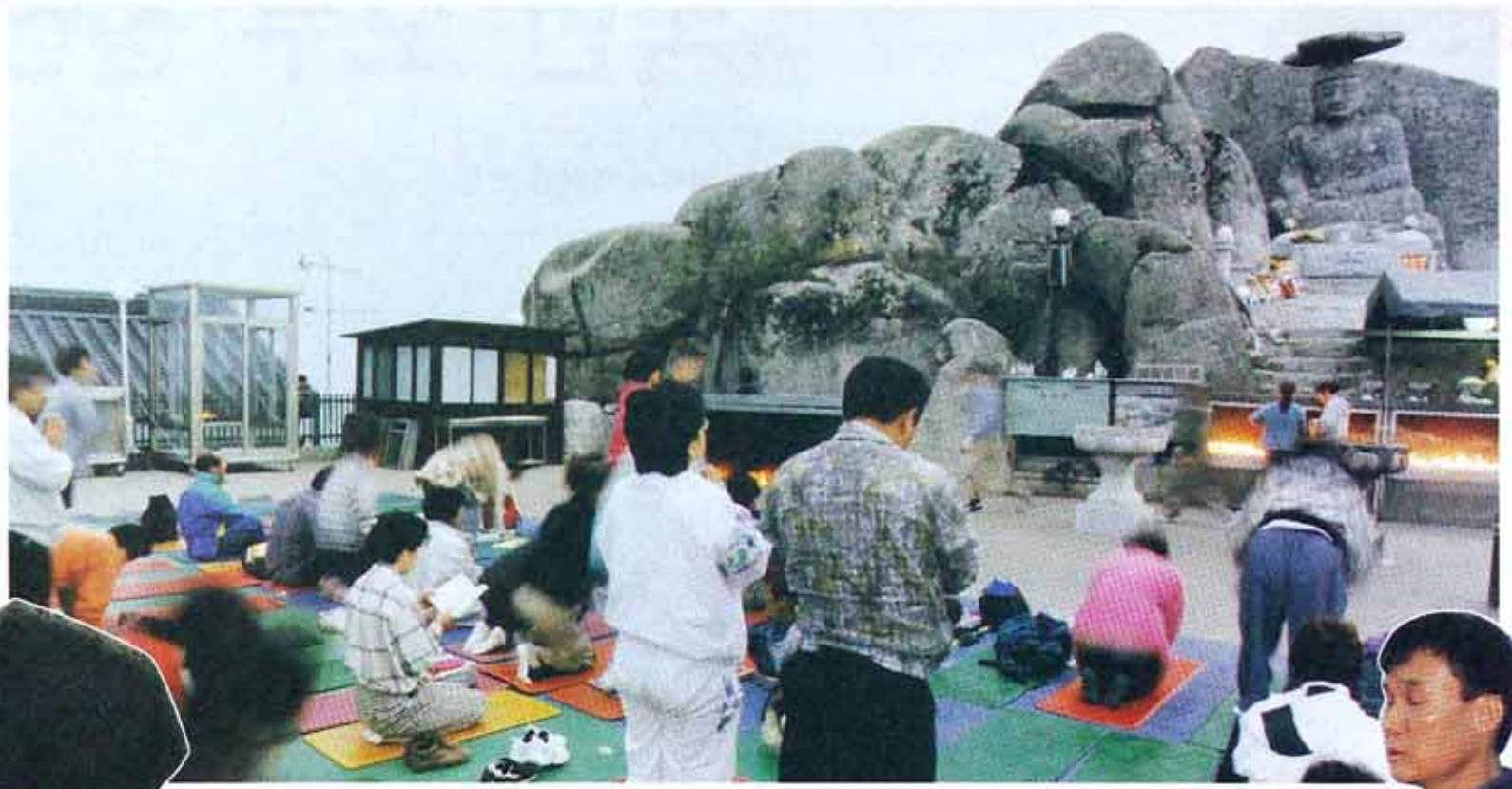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 · 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국내 최대 기도성지 갓바위는 하루 24시간 불자들의 기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갓바위 부처님은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꿈와 소망을 수행을 통해 이루도록 일깨워주고 있다.





팔공산 갓바위부처님

'일체유심조' 처방문 내려 무명중생 길 열어 주시네

백일기도후 암완치
서울대 수석합격등
각양각색 영험담
'세상속으로'
그러나
苦는 마음에서 비롯
갓바위부처님 가피
결국 '일체유심조'

우리나라 최대 기도성지의 하나인 팔공산 갓바위(선본사) 새벽3시. 약사여래정근이 골짜기를 깨우고 있다. 일년내내 촛불이 켜져 무명을 밝히는 곳. 특히 매월 음력 그믐부터 초삼일 까지, 또 요즘처럼 대학입시철이면 하루 24시간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뒤에 오는 사람에게 떠 밀려서 오르게 된다는 이곳.

갓바위부처님은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숱한 사연을 간직한채 팔공산 관봉 정상(850m)에 늠름히 정좌해 있다.

부산에서 큰딸과 함께 왔다는 한 노보살은 "아들 둘과 딸 둘을 다 치성시키고 내 갈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 엄마손을 잡고 오기 시작했다는 이승호거사(대구시 동구. 38세)는 '참회기도겸 운동삼아' 온다고 했다. 특별한 영험을 바라고 오지는 않는다는게 이거사의 부언.

무엇이 전국 불자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있을까?

갓바위 부처님(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보물431호)의 학술상 명칭은 '관봉(冠峯)석조여래좌상'이다. 머리위에 관석(板石)이 올려져 있어 갓바위부처로 더 잘 알려져있다. 갓바위는 관봉과 의미가 같다.

지름 1m80㎝, 두께 15㎝밖에 안되는 특이한 갓으로 인해 관봉여래는 다른 불상과 차별화를 이루며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갓은 배위 병풍석과 함께 풍우를 막기 위한것으로 보살의 보관(寶冠)과는 무관하다.

갓바위는638년(선덕여왕 7년)에 원광법사의 수제자인 의현스님이 속가 모친의 명복을 빌기위해 조성했다고 한다.전체높이가 4m에 달하는 이 불상의 왼손은 결가부좌한 왼쪽발 부근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해 올려져 있는데 약합을 올려놓은 흔적이 있어 약사여래로 불리워져 왔다.

갓바위의 분위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몸빼바지와 운동화는 등산복과 등산화 차림으로 바뀌었고 젊은 불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한 남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부가 함께 오는등 커플도 많아졌다.

이곳을 20년 넘게 다녔다는 서진수거사(61세) 부부는 "갓바위 부처님은 시주금의 많고 적음을 따지시지 않을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고 감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부처님이시다"며 "둘이 함께 다니고부터 가정이 화목하고 자식이 바로 자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수 있었다"고 말했다.

갓바위에 얽힌 영험담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 수만큼이나 숱하게 많다. 지난96년 막노동일을 하며 3전4기 끝에 서울대 법대를 지원, 인문계 전체 수석을 일궈낸 장승수씨도 갓바위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대표적인 예. 장씨의 수석뒤에는 어머니 이계생보살(54세)의 지극한 불심이 있었다. 파출부, 식당일을 했던 이보살은 집이 있는 반야월에서 갓바위까지 3~4시간 걸어서 새벽예불에 참석하고 나서야 돌아와 아침식사를 준비했고, 그 정성을 먹은 아들은 수석합격으로 보답했다. 아들이 입사에 거듭 실패하고 막노동판에 나가야 했을때도 거르지 않고 관봉을 올랐다.

대장암 합병증으로 3개월 사형선고를 받은 한 40대 보살은 1백일 기도후 병이 완치되었다며, 여전히 갓바위부처님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약사여래는 치병이 전문이겠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의 소원은 각양각색이다. 건강에서부터 대입합격 승진 득남 결혼 사업번창에 이르기 까지…모든 고(苦)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 '일체유심조'라는 처방문으로 만병을 치유하는지도 모를일이다.

소원성취 중심의 기도에 대해 정업스님(선본사 교무국장)은 "기복이 신행의 출발점은 될수 있으나 이것이 전부여서는 안되며 수행중심의 기도로 바뀌어 가야할 것"이라면서 "바른 기도문화가 정립될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있다"고 말했다.

갓바위는 연중 정월과 입시철에, 날짜별로는 그믐부터 초이레까지가 가장 많이 붐빈다. 평일에는 4분정근을 하며 매주 토요일은 철야기도를 마련해 놓고 있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이곳을 참배하는 사람들은 아래 요사채에서 공양을 할수 있다.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주말은 오후9시까지, 그믐부터 7일간은 새벽1시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소비되는 쌀은 월 평균 1백가마 정도. 시주들어오는 공양미는 월 평균 5백가마 수준. 남은 공양미는 무료급식소 사회복지관 등에 전달된다.

팔공산을 끼고 사는 대구 영천 경산 등 지역사람들에게 갓바위는 곧 마음속 부처님 형상으로 깊게 자리잡고 있다.

글=이윤호 사진=고영배 기자

◇전국 기도도량

도량	사찰	소재지	전화
적멸보궁	통도사	경남 양산	(0523)82-7182
	상원사	강원 평창	(0374)32-6666
	봉정암	강원 인제	(0365)462-6969
	법흥사	강원 영월	(0373)73-8177
	정암사	강원 정선	(0398)591-2469
	용연사	대구광역시	(053)616-8846
	도리사	경북 선산	(0546)54-3398
	건봉사	강원 철원	(0392)682-4946
관음기도	보문사	경기 강화	(0349)32-3070
	보리암	경남 남해	(0594)62-6115
	홍련암	강원 양양	(0396)672-2478
	오세암	강원 인제	(0365)462-2576
	함일암	전남 여천	(0662)63-4742
	무위사	전남 강진	(0638)32-4974
	관음사	전남 곡성	(0688)62-4433
	도선사	서울우이동	(02)993-3161
지장기도	심원사	강원 철원	(0353)55-3468
	도솔암	전북 고창	(0677)64-2861
	영원암	경기 이천	(0336)635-3457
	송광사	전북 완주	(0652)251-8681
	개심사	충남 서산	(0455)688-2256
	김상암	경남 합천	(0599)32-7268
나한기도	거조암	경북 영천	(0563)35-1369
	사리암	경북 청도	(0542)72-8811
	진불암	경북 영천	(0563)37-0730
	연주암	경기 과천	(02)502-3234
	희랑대	경남 합천	(0599)32-7301
	대승사	경북 문경	(0581)52-7110
	삼성암	서울수유동	(02)988-1996
약사문수미륵	갓바위	경북 경산	(053)954-0456
	장곡사	충남 청양	(0454)42-6769
	호압사	경기 시흥	(02)803-4779
	관룡사	경남 창녕	(0559)36-1740
	문수사	서울구기동	(02)352-2062
	세계사	충북 충주	(0441)846-3987

기도의 의미

자성불 향한 깨달음 방편…기복 앞서면 업식 확대

불자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신행행위의 하나가 기도이다. 불교입문의 필수코스 이다 시피한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기복일까? 수행일까? 기복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 업식을 확대시키는데 비해 수행기도는 업식을 바꾸어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기복기도는 조건부 수행에 불과하여 언젠가는 번할 개연성이 내재해있다. 즉 원하는 바가 성취되면 더 큰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영원히 만족이란 없는 것.

진정한 기도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염불 간경 참선 모두가 기도라 할수있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그 방편을 달리할 뿐인 것이다. 기도에는 흔히 절이 수반된다. 자신을 낮추고 불보살을 우러러 가피를 입고자 하기 때문이다.

절은 대상을 향할 때 웃어른에게는 1배, 즉은 영가에게는 2배, 스승 혹은 삼보(三寶)에 대해서는 3배, 국왕에게는 북향4배를 했다. 옛날 중국의 천자에게는 9배를 했으므로 대상을 향한 절은 9배가 그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상의 절은 대상이 아닌 자신을 향하게 된다.

참회53불에 대한 53배, 108번뇌를 녹이기 위한 108배, 5백나한에 대한 5백배, 현겁의 1천 부처님에 대한 1천배, 과거 현재 미래의 3대겁에 출현하는 3천부처님께 대한 3천배등 다양한 기도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나 내재한 자성불(自性佛)을 향하고 있다. 기도의 궁극은 깨달음을 향해 있다는 것이다.

오른손 네손가락 열두마디를 연비하는 신고(辛苦)의 기도를 했고 기도에 관해 가장 많은 저서를 펴낸 일타스님(해인사 지족암 조실)은 "기도를 제대로 하면 참된 마음 자리에서 묘한 힘이 솟아나와 기도를 이루게 하는것일뿐 다른 특별한 존재가 있어 감응하는 것이 아니다"고 단언한다.

기도를 일심으로 하게되면 참된 마음 자리로 부터의 3종가피가 나타난다. 현실에서 바로 가피를 입어 소원을 성취하는 현증가피(顯證加被), 꿈을 통해 소원이 이뤄질 것을 예시하는 몽중가피(夢中加被), 언제나 은근하게 보호를 받는 명훈가피(冥熏加被)가 바로 그것.

기도는 또 잠들기 직전이나 임종 직전에 해야 효과가 크다고 한다. 임종의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죽느냐에 따라 내생이 결정되고 잠들기전의 마음은 잠재의식에 쉽사리 도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부모 형제 자식 이웃을 대한다면 생활자체가 곧 기도가 될 수 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노모품(老耗品) ②

既不守戒 기불수계
又不積財 우불적재
老屬氣竭 노리기갈
思故何逮 사고하체

이미 계율도 바로 지키지 않고
재물조차 쌓지 못하면
늙어 파리해져 기운 다하니
옛일 생각한들 어이 미치랴

老如秋葉 노여추엽
何礙證錄 하예감록
命疾脫至 명질탈지
亦用後悔 역용후회

늙음은 마치 가을 낙엽 같은것
어찌 더럽기가 누더기 같은가
목숨은 내 달려 죽음에 이르니
후회해 본들 또한 무엇하랴

命欲日夜盡 명욕일야진
及時可勉力 급시가근력
世間諦非常 세간체비상

바른 법 배우기에 게으르지 말라

爲身第一 위신제일
常自勉學 상자면학
利乃誨人 이내회인
不倦則智 불권즉지

무엇보다 제 몸이 제일이니
항상 스스로 배우기에 힘쓰고
이로움으로 남을 가르쳐
게으르지 않으면 지혜 얻는다

學先自正 학선자정
然後正人 연후정인
調身入慧 조신입혜
必灑爲上 필천위상

먼저 스스로 바른법 배우고
그런 후에 남을 바르게 하라
제 몸 조섭해 지혜에 들면
반드시 높은 경지에 이른다

身不能利 신불능리
安能利人 안능리인
心調體正 심조체정

"이 세상은 분명 덧없는 것이다 미혹하여 어둠속에 떨어지지 말라"

蔓惑墮冥中 막혹타명중

목숨은 밤 낮으로 닳아져 가니
때 늦지 않게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분명 덧없는 것이라
미혹하여 어둠속에 떨어지지 말라

當學然燈燈 당학연의등
自鍊求智慧 자연구지혜
雜垢勿染汚 이구물염오
執燭觀道地 집촉관도지

마음 밝히는 등불 심지 돋우어
스스로 단련하며 지혜를 구하라
때를 벗겨내어 물들지 않고
촛불을 잡아 마음자리를 관하라

何願不至 하원불지

제몸 이롭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이롭게 하랴
마음 다잡고 몸을 바루면
어떤 원인들 못 이루겠는가

本我所造 본아소조
後我自受 후아자수
爲惡自更 위악자경
如剛鑽珠 여강찬주

본래 자기가 지은 것
뒤에 자기가 스스로 받나니
악을 행하면 자기를 부수는게
마치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는 것 같다

애신품(愛身品) ①

自愛身者 자애신자
愼護所守 신호소수
希望欲解 희망욕해
學正不寐 학정불매

제 몸을 정말로 아끼거든
부디 삼가서 지킬 것을 지켜라
깨달음을 얻고자 바라거든

人不持戒인불지계
滋蔓如藤자만여등
逞情極欲령정극욕
惡行日增악행일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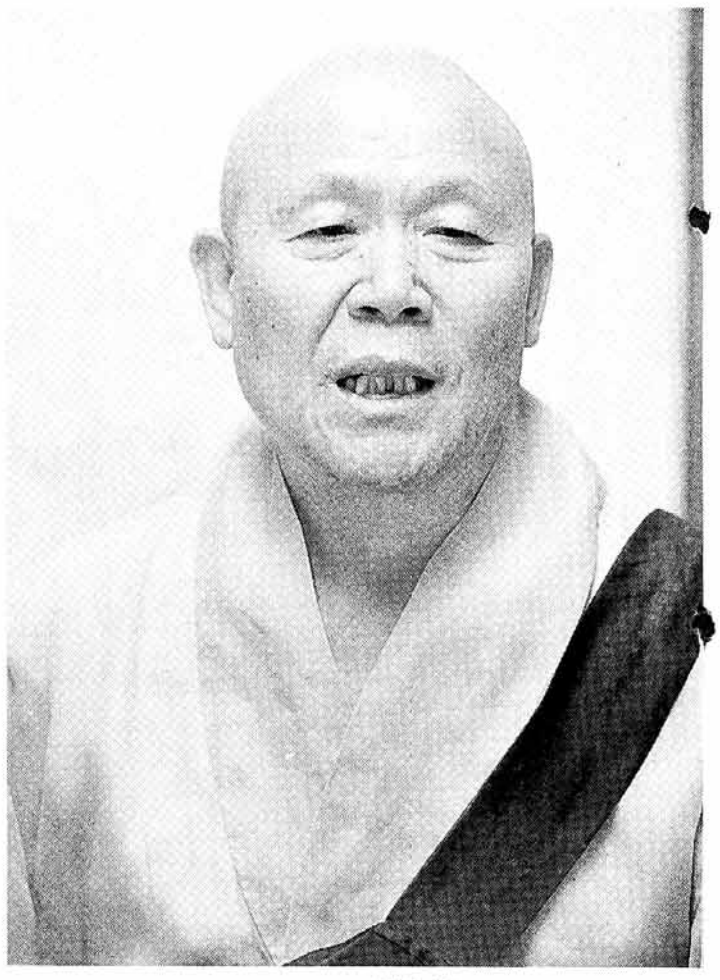
사람이 계율을 수지하지 않으면
저 등 넝쿨이 무성히 뻗어가듯
욕심은 성할대로 성해져서
악한 짓 날로 늘어나게 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국민 모두 참선하면

도원스님 〈파계사 대비암 조실〉



약력
- 27년 경북 영천生
- 41년 파계사에서 고송스님을 은사로 득도
- 51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60년 월정사주지
- 72년 파계사주지
- 81년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 90년~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거울은 뭐든지 그대로 비춥니다 대상이 물러가면 텅 빌뿐 자기주장이나 흔적이 없습니다 수행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지세는 아홉계곡이 오롯이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형국인데 기운이 새는 것을 막기위해 절이름을 파계사(把溪寺)로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계곡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절이름으로 계곡의 흐름을 붙들어두고 있는셈이지요.

우리 인체에도 그와 비슷한 수의 큰 구멍들이 있어서 기운이 들어왔다가는 나가곤 합니다. 예를들면 입으로는 구업을 짓고 귀로는 삿된 것을 들어 분심을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헛되이 새는 것이 많으면 무루(無漏)의 법을 증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바로 우리 중생심 안에 파계사라는 마음의 절을 세워 갈무리를 잘해야 수행에 진척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파계사는 계(戒)정(定)혜(慧) 삼학을 잘닦음으로써 세워집니다.

어릴적 수도사로 소풍을 갔다가 관음전 보살상을 보았는데 웬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짐작할길없는 그리움의 실체를 만난 그런 느낌이었지요. 그후로도 절에 가는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때 중병이 나서 거의 죽을뻔 한적이 있습니다. 숨도 안쉬고 맥박도 잡히지 않자 죽은줄 알고 이불로 둘둘 말아서는 방구석에 놓아두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멀쩡히 의식을 회복하고서는 하는말이 "꿈에 수도사 부처님이 찾아 왔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은사이신 고송스님과는 우연하게도 동향입니다. 상좌가 없었던 스님은 고향에 들러 속가동생한테 초등학교 졸업생중에 출가할만한 아이가 있으면 수소문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내 속가 형님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를 보내게 된겁니다. 그렇게 해서 15살때 음력 3월삼짓날 파계사로 왔습니다. 저녁공양을 올리고 은사스님이 계시는 성전암으로 올라갔는데 어찌나 중채가 좋으시던지 마치 부처님처럼 눈이 부셨습니다. 스님의 명으로 공양간에서 목욕물을 데우는데 괜시리 눈물이 뚝뚝 흘렀지요. 한참 기다려도 방으로 오지않자 스님께서 직접 나오셔서는 같이 목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암에서 스님을 4년간 시봉하면서 청소년시절을 보냈는데 스님되는 텃밭을 거기서 닦은셈이지요.

4년째되던 어느날 스님은 "이제부터는 네 나름대로 공부하러 갈때가 됐다"시면서 "참선을 배울래? 경학을 배울래?"하고 물으셨습니다. 나이도 젊고 배우지 못한게 한이었던 나는 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요. 스님은 "참선을 하려면 만공스님 회상으로 가고 경학을 배우려면 한암스님 회상으로 가는게 옳다"고 하시면서 한암스님이 계시던 오대산 상원사로 갈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당시 상원사에는 강원3본사인 월정사 유점사 건봉사에서 추천한 스님들을 모아 공부시키는 승려수련소가 있었고 한암스님은 선교를 겸비하신 분으로 명망을 떨치고 계셨습니다. 또한 상원사 주지이던 탄허스님도 한암스님의 제자로 경학에 밝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상원사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구경할수 없는 목탄기차를 타고 가는데 군데군데 내려서 승객이 밀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기차였지요. 월정사에 당도하니 마침 상원사에서 불일이 있어 내려온 스님이 있어 길안내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원사에 가니 식량이 부족해 받아들일수가 없다고 해요. 성전암을 떠나올 때 은사스님께서 "상원사에서 공부를 못다하고 도중하차하면 사제의 연을 끊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더니 결국 공양주 소임을 맡는 조건으로 입방이 허락되었지요. 은사스님이 한암스님의 제자라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말이 공양주지 일꾼을 포함해서 1백여명이 넘는 대중들의 밥을 해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8남매중 막내였던 나는 출가하기전까지만 해도 부엌일이라고는 조금도 몰랐으니까요. 당시에는 쌀에 돌이 많이 섞여 있어 끼니때마다 한움큼씩 골라 내는데도 커다란 이남박으로 쌀을 이는것에 숙달이 되지 않다보니 밥에 돌이 섞일 수 밖에요.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돌이 씹힌다는 불평의 소리가 뒷전에서 들려왔으니 고역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큰솥 두 개에다 죽을 끓여 먹는데 이솥 저솥을 부리나케 오가며 주걱으로 저어야했습니다. 파김치가 된 몸으로 저녁무렵에나 경을 익힐수 있었습니다.

한암스님은 친견하는 자체만으로도 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스님의 청백기풍은 철저했지요. 전쟁와중을 틈타 천도재를 지내러 오는 신도들이 있어 살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참선해서 깨우치지 못하면 다 빚이다"고 하시면서 "시주물건에 대해서는 아주 어렵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특히 발심(發心)을 주장하시며 발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철저해야한다고 누누히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발심이 되지 않는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가르침이셨습니다.

또한 스님은 참선과 함께 경학과 염불기도도 중시하는등 통불교적 면모도 보이셨습니다. 70세가 넘는 노장이 매일 새벽 예불이 끝나면 꼿꼿이 서서 대중들과 함께 관음기도를 두시간씩 했습니다. "말세 중생은 근기가 약해서 참선만으로 제도할수 없다"고 늘 강조하셨던 스님은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큰스님 수행한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계는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행
나와 부처가 하나임을 아는 길
그 길엔 승속·노소·남녀 따로 없어요



◇ 1962년 법왕사에서 법회를 마치고 탄허스님(앞줄 오른쪽서 두번째)과 함께한 도원스님(뒷줄 왼쪽서 네번째).

"각 방편들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니 다양한 방편을 익히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선방수좌들중에 불평하는 자들도 없지 않았지만 "선과 교가 둘이 아니다"며 타이르셨습니다. 아침공양과 차공양이 끝나면 경전강의가 이어졌는데 〈금강경〉〈육조단경〉〈화엄경〉 조사어록 등을 한두시간 가르치셨습니다.

강의는 주로 탄허스님이 맡아 하셨고 틈틈히 큰스님께서 주석을 달아 주시거나 질문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한국불교는 시중의 혜택없이는 어려우므로 시중을 위해 천도의식등 예법도 익힐수 있도록 했어요.

마치 지금의 총림처럼 종합적으로 가르치다보니 상원사에서 두서너철났다하면 불교의식에 대해서는 어디가도 빠지지 않게 됐지요. 한암스님은 승려는 모름지기 참선이나 염불, 경학이나 대중봉사 혹은 포교등 5가지에 늘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배운 여러 경전중에서 〈원각경〉과 〈능엄경〉을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원각경〉은 직설적이어서 좋고 〈능엄경〉은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있지요. 팔만대장경의 서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대승기신론〉도 가끔 읽는편입니다.

정혜쌍수(定慧雙修), 선교겸수(禪敎兼修)라 해서 경전에 대한 적절한 공부는 선정을 닦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선정을 닦으면 혜가 밝아집니다. 계정혜 삼학은 결국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하나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인 교리를 모른데서야 어찌 스님이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배움은 깊어갔으나 절 살림살이는 말이아니었습니다. 양식이 부족해 배부르게 먹은적은 거의 없고 반찬이래야 김치와 된장국이 전부였고 두부는 한철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떡은 결제와 해제철에 주는데 손바닥만했습니다.

음력3월27일이 한암스님 생신인데 신도들이 약밥이다 찰떡이다해서 만들어오니 그때가 연중 최고로 잘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대신 일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돌아서면 일이고 또 돌아서면 일이어서 행자아닌 행자노릇을 톡톡히 했지요. 그럭저럭 상원사서 7년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가장 실답게 공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6.25가 발발하기 1년여전에 탄허스님과 보경스님을 모시고 통도사 백련암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밥을 한꺼번에 하루분량을 다 해놓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공양짓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생각이었지요. 밥을 지어서 아랫목에 묻어놓고는 된장국만 끓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백련암에 잠시 머물다 고양 도림사를 거쳐 흥국사로 갔습니다. 그때 서울일원이 함락되어 북한군에 의해 매일 회의다 학습이다 해서 불려 다녔지요. 후일 파계사로 돌아와 주지소임만 23년간 맡았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 즉, 각(覺)이란 바로 안다는 의미인데 우선 나를 바로 알아야합니다. 사대(四大)로 된 몸뚱아리와 생사분별심을 나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나라면 구태여 공부할 필요가 없지요. 진아(眞我)를 바로 아는것이 깨닫는것이며 나를 바로 안 다음에는 만법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금광석을 캐내 불순물을 제거하면 금만 남게 되는데 이 금은 본래 금이지 다른 것이 변해서 된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도 본래 부처이나 불순물에 섞여서 본래의 자성이 가려져있을 뿐입니다. 중생을 떠나 따로 부처가 있는게 아니라 중생 그대로 부처인것입니다.

금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수행이며 계정혜 삼학이 그 도구입니다. 삼학은 3발 달린 솥과 같아서 어느 하나만 모자라도 제대로 서질 못하는 솥과 같이 되지요. 삼학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계(戒)입니다. 계로 인해 선정이 생기고 선정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발현합니다.

그만큼 지계가 중요합니다. 깨닫고 나면 청정보리심의 발현으로 계가 저절로 지켜지므로 따로 지계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나 가끔 방편으로 혹은 보림하는 과정에서 막행막식하는 경우가있으나 한때 거치는 과정으로 봐야합니다.

중국의 한 조사스님이 마을에 내려가 삶은 개고기를 가져와서는 대중들에게 한사발씩 돌렸습니다. 스님의 뜻을 이해 못했던 대부분의 납자들이 절을 떠나고 10여명만 남아 한차원 높은 정진에 임하게됩니다. 스님은 근기가 낮은 자들을 솎아내기 위해 방편을 사용한것이지요.

계를 지키는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선은 부처님의 경계에 도달하자는 것이고 부처님의 마음에 합하자는것에 다름 아닙니다. 나와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님을 알자는 것이니 출가참선과 속가참선이 따로 있을수 없지요. 참선에는 승속 노소 귀천 남녀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지 않고 밥먹는 법은 없습니다. 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선하면 그런게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 반은 시작한 셈입니다. 화두일념으로 마음을 비워나가니 그리될 수 밖에 없지요. 화두일념이 지속된다면 계정혜 삼학이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속가에서도 반드시 참선을 해야 정견과 바른 지혜가 생겨납니다. 종교에 구애없이 국민 모두가 참선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불법의 이치는 간단합니다. 부처님의 45년 법문은 '하지마라'의 금계와 '하라'의 권계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가르침등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문에 승속이 따로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가자도 반드시 계행은 지켜야합니다.

거울은 늘 텅비어 있으면서 뭐든지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대상이 물러가면 또 텅비어 있으며 자기주장이나 흔적이 없습니다. 오욕락도 열반락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거울같은 마음으로 상응(相應)한다면 머무르는 바 없이 그마음을 내는 것이 되겠지요.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가 되고보니 불교대학의 여건이 열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색이 종립학교의 불교대학이니 만큼 건학이념을 계승하는 일을 늦추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가 세계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사회의 변화추세에 부응해야합니다. 근본은 변치 않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사회와 호흡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회에 기여할수 없는 종교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받는 불교'에서 '베푸는 불교'로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금광석의 불순물 제거하면 금만 남듯
중생도 계·정·혜 닦으면 자성 드러나요"

나와 경전 〈28〉

안반수의경



고 준 환
경기대 교수·법학과

지금으로부터 36년전, 서울 법대 1학년 재학시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법불회가 초청한 청담큰 스님의 법문을 접했던 것이 사바세계에서의 나의 첫 불연(佛緣)이었다.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졌지만 게으르고 모자란 탓으로 큰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많은 방황을 하였다.

도(道)를 이루기 위해 신선도 초월명상, 아바타 코스 등의 수련과정도 거쳤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마음이 기본이지만 현실생활에서의 원만한 수련은 마음공부(調心), 호흡공부(調息), 몸공부(調身)의 심기신 삼공(三功)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최근에 해탈의 길을 밝히는 〈굼벵이의 꿈, 매미의 노래〉라는 책을 내고 거기에 반야심경과 함께 단전호흡법과 수식선방법을 대표적인 수련법으로 실었다. 또 심기신 세가지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종로구 낙원동에 신선도 삼공선원을 열어 종합적인 수련도장도 열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즈음 특별히 〈안반수의경〉에 관심이 크다.

숨쉼으로 '空' 깨닫게하는 가르침
"취하고 버림과 욕망과 환희 자재"

숨쉼을 통하여 공(空)을 깨닫게 하는 경전이 바로 〈불설대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이다.

〈안반수의경〉은 산스크리트어인 아나파나사티(anapanasati)를 안반수의(安般守意)로 한역한 것인데 아나(ana)는 들숨(入息)이고, 아파나(apana)는 날숨(出息)이며 사티(sati)는 의식집중 즉 마음의 집중이다. 〈안반수의경〉은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시게 된 인연, 방법과 공덕을 자세히 설하고 있다.

흔히 수식법으로 알려진 안반수의법은 과학적인 6단계로 되어있다.

그것은 수식(數息), 상수(相隨), 지(止), 관(觀), 환(還), 정(淨)이다. 여기에 고집멸도의 4제를 넣어 10단계로 보기도 한다.

붓다가 창안한 이 호흡법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정신이 집중된 호흡으로 이 호흡법이 몸에 익으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고 깊게 이루어지고, 고요한 정(定=三昧)에 들어 모든 사물의 그 실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은 안반념법을 90일동안 행하시어 생로병사를 뛰어넘는 자재력을 얻으셨고, 자비심이 발현되어 일체중생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다.

6단계를 차례로 살펴보면 수식은 의식을 단전에 두고 호흡을 세는 것이며, 상수는 마음과 호흡이 서로 뒤의식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요, 지는 마음과 호흡이 하나가 되어 한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관은 마음이 호흡과 일치되면서 자재롭게 관조하는 것이며, 환은 마음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와서 밖으로 달려나가거나 흩어지는 일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정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청정본심이요, 순수의식이다. 이 청정본심은 육체에 깃든 마음인 육단심(肉團心)과 업력에 따라 쌓인 적취심이 아닌 진실심이라 하겠다.

취하고 버림에 자재하고, 욕망이 자재하고, 환희가 자재하면,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번뇌장(煩惱障)이 없어져서 적정의 사선정(四禪定)을 얻는다. 그리하여 드디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자재로이 깨달음속에서 자비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안반수의경〉에서는 '안(安)은 도(道)를 한결같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반은 맺힌 것을 푸는 것이고, 수의(守意)는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안은 죄를 피하게 하는 것이고 반은 죄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수의는 도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는 수행법을 이 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인연과보의 원리인 바 들숨은 받는 인연이요, 날숨은 가는 인연이며, 수의는 인연을 떠나지 않음이니, 호흡이나 기로 얻어지는 기쁨을 맛보면서 그것에 탐착하지 않고, 머물지도 않는 경지가 무여열반이자 여기에 자유자재인의 본래면목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도 이 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매일 심기신을 수련을 통해 나날이 기쁜날이 되고, 또한 깨달음의 자리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수행자를 위한 여시아문의 책

여시아문 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팩스 : (02)737-0696

마음 맑히는 책들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 / 큰스님 / 법어 / 모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마음 맑히는 책들 ②



삶은 苦가 아니다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 값 6,000원

삶은 苦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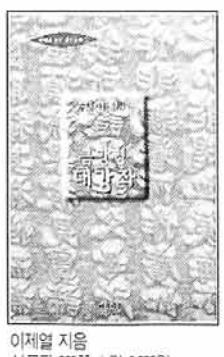
대행 / 스님 / 법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수행자를 위한 경전 공부①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금강경 대강좌

적연 이제열 법사가 풀이한
금강경 대강좌

선(禪)적인 해석이나 뜻풀이에 그쳐
모든 불자들이
온전히 계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금강경.
그 금강경이 이제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금강 반야의 세계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선다.

독특한 해석으로
명쾌한 수행방법론을 제시!

고은 불교대하소설

색계

도솔천 내원의 상수 상을은 오랜 불니처럼 여기 와서도 남매였다. 그들은 무욕도를 떠난 이래 다른 중생계에서 부부이기도 했고 멀리 헤어져 있는 애인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곳 도솔천에 오기 직전 전생에서는 서로 누가 잘 수행하는가를 겨루기라도 하는 것처럼 기도생활에 열중하였던 것이다.

그 선업으로 도솔천 내원의 미륵보살 도량에 태어나서 다시 남매로 살게 되었다.

미륵보살이 그들을 몹시 사랑하였다.

"옛날 내가 섬기는 도반이었던 도솔천자가 생각나는군. 석가보살이 그 천자였지… 그가 나보다 더 중생을 생각한 나머지 그의 간절한 빛이 뻗쳐 시방세계를 두루 비치니 이때 지옥 중생 가운데에 전생 다생의 선근(善根)을 지닌 중생이 그 빛을 받아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지. 나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지"라는 말도 스스럼없이 해주는 것이었다.

미륵보살은 누구인가.

아주 옛날 인도 바라내국 바라문 출신의 귀족이었다. 그는 천재였다. 석가모니불의 초기교단에 귀의했으나 곧 세상을 떠났다. 스승의 슬픔이 컸다.

그런 그가 도솔천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곳은 그가 석가보살과 함께 살았던 곳이기도 하였다.



148

그는 지상에서의 수행과 교화 대신 천인(天人)의 교화를 맡았다. 그러다가 석가 입멸 뒤의 56억7천여년이 지나서 다시 사바세계에 태어나 석가가 다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는 용화수 아래의 낙원을 이루게 되어 있었다.

그런 미륵보살로 하여금 그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상생(上生)신앙과 그 미륵보살이 내려와 용화세계를 이룰 때 거기에 동참하는 하생(下生)신앙이 나눠지기도 한다.

하지만 상생이든 하생이든 그것은 미륵과의 한없는 일치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상수 상을은 도솔천 내원궁 미륵보살이 어디까지나 지상의 사바세계와 사바세계를 주재하는 석가모니불의 보처(補處)로서 존재하는 그 지극한 겸손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리인 평등 그것이라고 여기게 되어 그들 자신도 어느 때보다 하심(下心)의 나날을 보내는 행복 가운데 있었다.

다른 시자들이 그들 자매에게 넌지시 말하였다. "그대들로 하여금 이 높은 도솔천이 사바세계만큼이나 낮고 지옥만큼이나 낮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나 그들 자매는 도솔천 밖의 천상을 이따금 떠올렸다. 그것은 도솔천 아래를 내려다 봄으로써 마음을 낮추고 도솔천 위를 올려다 봄으로써 한층 더 그들의 몸을 낮추는 일이기도 하였다.

화락천 혹은 낙화천은 도솔천 위 32만 유순, 수미산 정상 33천에서는 64만유순의 거리에 떠 있는 천상이다. 스스로 변하여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곳이고 스스로 욕락의 오묘함을 누리는 곳이었다.

이곳 천인들은 스스로 빛을 뿜어냄으로써 항성(恒星)과 같다. 서로 마주보며 웃음만 머금어도 임신하는 것인데 아이는 자궁에서가 아니라 무릎 위에 문득 화생(化生)한다.

대상이 주체와 구별되지 않아서 너와 나라는 뜻을 통 모르는 곳인데 이곳에서 너와 나는 어쩌면 나와 너인지도 모르고 나와 나인지도 모르게 된다.

상수는 도솔천에서 꿈 속의 며칠을 살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꿈 속에서 그곳보다 더 높은 우주 속의 타화자재천에서 아득히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놀랍게도 인담의 목소리였다. 그렇다면 인담이 언제 33천에서 타화자재천의 천인이 되었다는 말인가. 인담과 함께 남은 우녀는 어디에 살고 있단 말인가.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인가.

타화자재천!

4왕천 33천의 수미산 아래와 기슭, 그리고 그 정상에 이어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그리고 타화자재천이다. 바로 이 여섯 천상계를 주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상의 사바세계나 지하의 지옥과 아수라 세계에 이르기까지 두루 일관되는 힘을 가진 천상의 법칙을 갖추고 있다. 그것을 욕계의 마왕이라고 의인화하기도 한다.

남이 내가 되어 즐거움을 이루는 세상이다. 서로 눈길만 나누어도 그것이 성행위가 되는 세상이기도 하다.

인담과 우녀는 이곳에서 벌써 아기를 몇번이나 낳을 수 있었다.

간난아기가 열두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아들과 딸이 다섯이나 되어 함께 천상을 날아다니며 노는 것이었다.

그들 일곱 가족은 다른 천인들과 어울린 나머지 오래만에 타화자재천 가장자리 허공으로 갈 수 있었다. 누가 그곳으로 가자 한 것도 아니었다. 이곳의 1주야가 인간세상 1천6백년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의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가.

인담 우녀와 그 가족들은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즐거운 놀이에서 문득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막내 아이가 제의한 생각이기도 하였다.



우녀는 허공 그 자체가 되어 윤회의 끝마무리에…

"엄마 이곳이 천상의 가장 높은 곳이라 해도 욕망의 중생이 사는 곳인데다 이 욕계 말고 다른 세계로 가고 싶어."

응석받이 말에 우녀도 이제까지의 즐거움에서 깨어났고 그의 언니들도 그랬다.

아빠 인담도 마찬가지였다.

"색계말이구나… 색계에 가고 싶다는 말이구나"라고 인담이 천상의 날개짓을 멈추고 하늘 한복판을 우러러 보는 것이었다.

색계란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지만 그 물질 전체가 청정하고 오묘한 것이었다.

어디에 일정한 지형(地形)의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별들이 있고 많은 선정(禪定)을 닦은 정령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4선천(四禪天)이 있는데 그 네 천상은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이다. 초선천에는 범중천 법보천 대법천이 있다.

그런데 이 색계의 천상은 천상에서 사는 신들보다 그 신들의 내용이자 상징이기도 한 이욕(離欲)이나 정행(淨行)을 가리키게 마련이다. 바로 이같은 사실이 다른 지역의 신화와 다른 것이다. 신 자체보다 그 신의 지혜가 더 의미있기 때문이다.

인담이 저만치 날라갔다 왔다. 날라갔다 온다 해도 그 초선천의 존재는 매우 정신적인 집중으로 된 고요함 그 자체인 것이다.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부처의 마음과 닮아 있는가. 욕계에서 색계로 오고 색계에서 무색계로 온 뒤 그런 세계들이 부처의 세계를 펼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인담은 우녀에게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는 천상의 아내 우녀가 아내이기보다 어머니나 그윽한 스승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해서 인간세계의 그것과 다른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정령과 같기 때문에 허공 속의 그 진공상태를 움직이는 기운의 촉감인 것이다.

그들은 이제 욕계의 이성으로써 음욕이 없어진 상태이다. 그뿐 아니라 다른 즐거움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4선천은 즐거움도 끊고 괴로움도 다 끊은 상태에서 무척이나 고요할 따름이었다.

"이제 흩어져 봅시다"라고 인담이 말하였다. 색계의 네 세상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선정(禪定)의 깊은 경지에서는 그 가족들은 하나같이 지혜로웠다.

우녀는 막내동이 천인과 정행으로 엉겨서 가장 높은 색계의 천상에서 무색계로 떠났다.

그는 남편인 인담과 남은 가족에게 아무런 말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한 가닥 바람처럼 떠난 것이다. 욕계의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꿈꾸는 그 자유의 비상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사바세계 무욕도니 33천이니 하는 지난 날의 전생도 다 벗어나서 우주 가운데서 어디 하나 걸리는 곳이 없었다.

고향이나 조국이나 그런 것도 조상이나 자손이나 그런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내 이 욕계 색계와 앞으로 들어갈 무색계의 구분 따위도 더이상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끝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중생으로서의 생명체이다. 아직도 윤회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중생의 윤회가 가장 희박해진 허공법계에서 그토록 몇억만겁 동안을 중생의 얼굴을 되풀이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이어온 오랜 역사가 그 끝마무리에 가까워진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무색계는 허공 그 자체로서의 비물질 세계이다. 모든 것이 투명하다. 절대의 세계이고 우주와 내가 합일된 세계이다. 상대가 소멸된 세계이다. 어떤 물질로부터도 해방된 정신의 완전한 자유 그것이 무색계이다. 그래서 남녀의 구별도 없어진 세계, 1성(一性)의 세계이다.

여기서는 우녀와 막내동이의 형상이 없으므로 그들은 허공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이곳은 공간도 의식도 소유도 생각아닌 것도 생각 아님도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없어진 철저한 비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치 이 세계에 그런 세계가 있을 까닭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이다.

누가 우녀이고 누가 막내동이인가.

아니, 색계에 살고 있는 나머지 가족인 인담이나 아이들도 여기에 뒤따라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말하자면 인간의 척도로는 아무것도 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무색계인 것이다.

이런 무색계 비상비비상처야말로 어떤 생각도 영구히 일으킬 수 없는 곳이다.

우녀도 모르게 인담이 왔으나 그들은 서로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 아니 그 자신에 대한 의식도 없으므로 오직 허공의 정신으로만 있는 것이다.

말도 소리도 없어졌다. 그래서 한없는 그 우주 속에서 그렇게 넓은 곳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 수미산 밑 지상에서는 말과 소리 때문에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공부가 얼마나 고되었던가. 그 공부 끝에 무색계의 가장 높은 비상비비상처에 이르렀다면 이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그 무색계의 형상과 물질이 끊어진 세계인데도 유정(有情)의 생명은 형상과 물질없이 실재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 무리 기운들이 모여 어디론가 떠났다. 그것은 그 누구의 뜻도 아니었다.

그 기운이 다른 기운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며 어느 때는 작아지다가 어느 때는 커지다가 하였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아주 옛날 일도 가비라성을 몰래 빠져나간 싯다르타가 히말라야 기슭에서 처음으로 만난 스승 아랄라가 가르쳐준 사선천(四禪天)의 끝인 비상비비상처가 어떤 중생에게도 그의 오랜 집착을 찾을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도 뿌리깊은 애욕과 물욕 그리고 상(相)들이 이제야 허깨비이고 거품이고 티끌이고 아니 티끌도 아닌 사실을 알게 되자 그것을 아는 일도 다 사라져버렸다.

할 일이 없었다.

이제까지의 오랜 윤회도 여기서 나아갈 곳이 없었다. 이제까지의 정진도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 무색계의 가득함과 비어 있음으로써 다시 색계 욕계의 세계가 긴 밤이 지난 뒤의 새벽 여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기운의 성숙이 나타난 것이다.

어떤 말이 나왔다. 그래서 그 말이 들렸다.

"자 여기야말로 내 몸이고 집이고 나라인 것."

"자 네 나라인 것."

"자 네 몸인 것. 내 집인 것."

그 말을 알아들 수 있는 것은 한참 뒤였다. 처음에는 그 말도 그저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차츰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한쪽에서 이런 말 대신 아무런 뜻도 없는 소리가 나왔다. 그 소리는 모든 말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강요하는 것처럼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다.

다시는 말이 없는 세계에서 살자는 어떤 결의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부처님이 마지막에 지난 몇10년동안 단 한 마디도 말한 적 없다고 한 사실과도 한통속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8만4천의 말들로 이루어진 경전이나 그 이후로 만들어진 역대 제자들의 논장(論藏)들조차도 다 날려버린 빈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연꽃 한 송이가 그런 말 옆에서 말의 이웃으로 태어났다. 그 꽃과 함께 말이 어여쁘게 놀기 시작하였다.

그림·조향숙

큰기술 PCS 016 세상-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이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나라."

품질 통화품질이 다르다
전파는 방해없이 바로바로 전달되어야 깨끗합니다. 국내최초로 PCS 업체중 시스템기술센터의 품질검증을 거치고, CDMA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이루한 PCS 016-33%가 한국통신의 교환기로 직접 연결되기에 통화품질이 타 이동전화사보다 월등 안정적입니다. 때문에 데이터 등의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통화중 끊김현상, 혼선잡음 등이 거의 없습니다.

2배 채널용량이 다르다
한국통신프리텔은 천재에 급급하여 마구잡이로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습니다.온 국민 누구라도 넉넉하게 이동전화를 쓸 수 있도록 기지국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한 기지국 하나하나 마다 수용 채널수가 타 이동전화회사의 2배이기에, 통화량이 폭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넉넉하게 PCS016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전국통화가 보인다
이땅의 곳곳을 누비며 측적된 등고선 자료, 전국의 도로지도, 인구통계, 건물자료 등 한국지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PCS 016 -전국 어디서나 깨끗한 감도로 통합니다.

97년 10월 통화가능지역(전국 인구대비 92%)

수도권	서울 전지역 인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송탄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평택 하남 화성 가평 강화 김포 양평 여주 연천 이천 포천 천안 청원 청주 충주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증평 아산 당진 예산 서산 태안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홍성 보령
강원권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정선 춘천 태백 간성 고성 양구 양양 원통 인제 철원 화천 횡성
충청권	대전 제천 충주 공주 단양 부안 영동 옥천 진천 괴산 증평 아산 당진 예산 서산 태안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홍성 보령
호남권	광주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전주 정읍 고창 곡성 구례 담양 무안 신안 영광 장성 함평 해남 화순 강진 고흥 나주 목포 보성 완도 장흥 진도 영암
영남권	부산 대구 경산 경주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포항 울릉 의성 청송 영덕 김포 건천 김해 구룡포 장자습포 울산 언양 양산 언양 월평 월성 여천 울산 울주 온양 울산 장생포 울산 청량 울산 태화 울산 하남 울산 호계 울산 화정 울산 효문 울산
제주도	서귀포 제주 구좌 남원 대정 성산 안덕 애월 조천 한림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광주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97년 11월 통화가능지역(전국 인구대비 96%)

수도권	서울
강원권	삼척 속초 양양
충청권	금산 부여 서천
영남권	산청군 진주 남강 일원 하동 일원 남해 일원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양산 울산
영남권	울산 나머지 지역 통합 통합도

97년 11월 통화가능지역(전국 인구대비 97%)

수도권	화성의 서해안 지역도
강원권	강릉 고성의
충청권	그외 제주 포함
호남권	장흥 장수 전라 광양 나머지 남해 일부 서산 일부 부산도 통합
영남권	구미 통합 이외 울릉도 대전 산청 의성 일부

소리가 보인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

■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전국 가입처 ■

서울본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양지국 0344-912-2323

"부정적 · 소극적 대화 삼가하자"

자기충족예언과 일체유심조 ②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5〉



그림 · 이준석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욕 · 거짓말 안하고
성내지 않는 사람"
어린이에게
오계 믿도록
자기충족예언 심자

'자기충족예언'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 커
"부처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세계를 보도록…"

"인간이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를 받아들이고 이 테두리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할 수 있는 것"을 자기충족예언이라고 한다. 교육학자 김영식은 자기충족예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급교사가 어떤 학생을 우수한 학생으로 대접해 준다면 거기에는 우수한 학생에의 기대가 따라 간다는 말이 된다. 만약에 학생을 둔한 학생으로 대한다고 하면 학생에의 기대는 둔한 학생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니, 사람은 인정과 기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말이 된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대접과 인정, 거기에 따르는 기대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학생에게 전달이 되면 학생들은 그 기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음을 많은 실험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다.

담임교사가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인정과 그에 따른 기대는 일종의 그 학생에 대한 예언적인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봐서 그러한 인정과 기대를 받는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그 예언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담임교사가 "너는 머리가 벌 수 없다"라는 인정과 그에 따른 기대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간에 학생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 학생은 일반적으로 그 예언에 맞추려고 하고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되는 학생으로서 행세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봐서 교원들의 말이나 태도가 학생들의 자아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지적인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이 달라진다. 교사가 학생을 탐구적이고 활동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으면 학생들은 탐구적이고 활동적으로 되는 반면에 교사가 학생들을 미숙하고 수동적으로 보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곧 교사에 의한 학생 평가와 관련이 깊다. 평가는 일종의 판단이며 이 판단이 곧 자기충족예언을 형성한다. 교사에 의하여 특정 학생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 학생을 그런 인간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정교육에서도 나타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와 판단은 자녀의 장래의 행동을 결정지을 확률을 높인다. 자녀를 게으른 자,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자, 사회성이 부족한 자라고 일관성 있게 판단하면 자녀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또한 반대의 행동을 취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리고 자기충족예언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대와 관련 있는 대화를 삼가야 할 것이다.

에릭슨(Erickson)은 인간의 발달단계이론을 주장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분법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인간 발달의 제1단계인 유아 시절에 따뜻하고 일관성 있는 보살핌을 주면 신뢰감이 형성되고 부적절하고 일관성 없는 부정적인 보살핌은 불신감을 형성한다. 제2단계는 자율성 또는 자율성을 의심하는 의혹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제3단계에는 주도성 또는 주도성을 상실한데서 오는 죄악감이 형성되고 제4단계에는 근면성이나 그와 반대되는 나태성이 형성되고 제5단계인 청년기에는 자기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의식을 가지느냐 또는 자기자신의 향방을 정하지 못하는 혼미감을 지니게 되느냐를 형성하는 시기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이 긍정적 인성으로 성장하느냐 또는 부정적 인성으로 성장하느냐 하는 것은 발달의 각 단계에서 그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환경 중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기충족예언이다.

자기충족예언은 어린이의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하기도 한다. 어린이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낙관적 긍정적인 인생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이 점은 조선조의 태조와 무학대사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태조가 말하되 "내가 본 대사의 모습은 굶주린 개가 뒷간을 바라보는 모습이며 산돼지가(눈을 흘기며) 산모퉁이를 도는 모습 같소." 대사가 이에 답하여 아뢰되 "제가 본 임금님의 모습은 완연히 부처님 같습니다." 태조가 말하되 "왜 다투려하지 않고 못난체를 하시오." 대사가 아뢰되 "부처님 눈으로 보면 사람 모두 부처님 같고 용의 눈으로 보면 사람 모두 용같이 보입니다." (太祖曰 吾觀大師之像 飢狗望屎之像 山猪負隅之形, 大師答曰 我觀上王之像 宛是佛像 太祖曰 何不關劣, 太祖曰 以佛眼觀之則 人皆如佛 以龍眼觀之則 人皆如龍)

어릴 때 어떤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기충족예언에 따라 어릴 때 형성된 인생관, 세계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특히 불자들은 자녀들이 불교적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세계를 보는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불교적 관점이란 무학대사의 말대로 부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세계를 보아야 함을 말한다. 부처님의 눈으로 인생과 세계를 보는 것은 성인군자들이나 가능하지 어떻게 어린이에게 가능할 것인지를 문제 삼을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알맞은 불법을 설하였기 때문이다.

어린이에게 "나는 벌레나 짐승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욕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탐내고 성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위에서 기대하는 자기충족예언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금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벌레나 짐승을 죽이면 안돼"라고 하는 지시, 명령,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벌레나 짐승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주위에서 일관성있게 기대하고 말하면 이 기대가 자녀에게 묵시적으로 전달되어 '불살생'의 자기충족예언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형성된 인생관, 세계관이 곧 부처님의 눈으로 본 인생관, 세계관이다. 나는 늘 부처님의 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누구도 손쉽게 지닐 수 있는 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여럿이 모여서 다투고, 시비하는 그런 모습을 야단법석(惹端法席)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흔히 "야단법석을 떤다" "야단법석이 났다" "야단법석을 핀다" "야단법석을 친다" 등의 말을 자주한다.

그러나 불교의 야단법석(野壇法席)은 사람들을 위해 야외(野外)에 법단(法壇)을 차려놓고 하는 설법장(說法場)을 말한다. 법당(法堂)으로써 수용할 수 없는 숫자의 대중이면 자연 야단법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가 최초로 법석을 편 것은 녹야원(鹿野苑)에서이다. 간지스강과 바라나스강이 갈라지는 삼각지에 그림처럼 펼쳐있는 녹야원, 이곳에서 부처님은 법석을 펼쳤다. 불단(佛壇)은 나무등걸이 아니면 작은 바위였을 것이다.

야단법석

법당밖에 법단을 차린 설법장
시끄럽고 다투는 모습으로 변질

그야말로 야외 자연 그대로의 법석이다. 이 야단법석(野壇法席)에 참여한 사람은 5명이었다. 교진여(憍陳如) 가섭(迦葉) 아슘비지트(阿濕波謇) 바드리카(跋陀羅) 룰리카(倶利)의 다섯 비구다. 이 야단법석에서 부처님은 사성제(四聖諦), 오온법(五蘊法), 중도관(中道觀)을 설하였다.

야단법석 가운데서 가장 대규모의 것은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인 것으로 기록된다. 장소는 마갈타국 왕사성 기사굴산(耆闍山), 즉 영취산 산정(山頂)에서다.

근세에 들어 국내에서 편 야단법석은 불교최대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의도광장과 동대문운동장에서 펼친 봉축대법요식이나 한강 · 낙동강 · 금강 등을 불보살님의 자비연등으로 수놓은 연등축제가 대표적이다. 그밖에 전 종단 등이 연합해 벌인 수륙대재나 독립기념관에서의 영산대재 등 다양하다.

어쨌든 세월이 흐르면서 야단법석이라는 감동적인 불교용어는 세속의 야단법석에 가려져 버리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불교의 야단법석을 펴자. 규모나 내용에서 법열이 흐르는 야단법석(野壇法席)을 기대한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 · 로 · 심 · 장 · 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 · 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 · 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C · L · E · A · N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교·정·보 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화 (02)732-1522(直)
FAX (02)737-0697

건강관

◆한 방 암 정 보◆
02)700-6366

◆그린파워녹즙기◆
길동 024?0-3102

살찌고 싶습니까?
마르고 허약하십니까?
자보령 포르테(보건복지부 제14호)
자보령포르테는 자라를 주원료로 하여 녹용, 다시마, 로얄제리, 키토산, 비타민E, 식용달팽이 엑기스등을 복합하여 식욕을 증진시키고 항생이나 수험생, 노약자 경년기, 신경쇠질 등이 안되는 체질은 물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체질로 개선시켜주므로 망설이고 싶은분에게 꼭 자보령포르테를 권장하고 싶다.
080-061-1700/ 080-061-0707

◆대 보 생 식◆
잠실 183-10 02427-9162~3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 원 합장
0415)63-0749 / 011)453-8611

전문시술원 張 三 洙
목·허리디스크 중풍 좌골신경통 오십견·비만
퇴행성·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간경화·완치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8118
H.P. : 011-559-8128 보은암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강좌관

철학의 길잡이
● 90분 녹음(166회) ●
교재 4권 1117쪽 녹음
기초부터 격국·용신까지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
012)753-2746 · 011)535-2746
※ 많은이 트입니다.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 룡 지 사
0391)43-5599

PIANO 전문 LESSON
⊙ 찬불가
(찬불가곡·찬불가요·찬불동요)
⊙ Jass Piano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자 3개월 완성(가요·팝송·가곡)
강남피아노 교습소
02)554-1512
(강남교육구청 신고 제9657호)
강남역 8호출구 앞 3층건물의 2층

신 생 아 작 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월 4회 실시-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태극권·대안기공·참선◆
- 심신수련, 질병퇴치, 체질개선, 학생성적향상, 호신술, 집중력
◆氣 치료(팔괘상수요법)◆
- 모든 병 고침 (스님 환영)
◆ 생 활 역 학 개 인 지 도 ◆
- 초보자 쉽게 지도(3개월)
- 철학원 하실 분 꼭 상담바람
※감정비법 있음
02)242-6188
금 륜 정 사
덕 치 합장

박삼중스님의
금강경 강의
11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강의가 있으니
뜻깊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대구 수성구 매호동
자비정사
053)793-0268

사주명리학특강
사주, 궁합, 택일 등 기초부터
감명에 이르기까지 책임 지도합니다.
◆ 개강일 : 10월 31일
3개월, 주2회(1회 3시간씩)
◆ 수강료 : 교재대 포함(월 10만원)
◆ 장 소 : 마포구 대흥동
(신석초등학교 앞)
◆ 전 화 : (02)713-4852~3
해동명리연구원

구인·구직관

장상봉 스님을 찾습니다
안성 절집 관계로
속히 연락 바랍니다.
장계리 이장

사찰(포교원)에서 불교대학 다니며 수행할 젊은이 구함
※학자금 및 생활비 지급
032)503-4883/4886
017)321-4883
부름정사 주지스님

사찰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0443-45-7604

사찰(포교원)에서 불교대학 다니며 수행할 젊은이 구함
※학자금 및 생활비 지급
032)503-4883/4886
017)321-4883
부름정사 주지스님

공양주 구합니다
경남 사천시 곤명면
초량리 산 3번지
보 림 사
0593)854-0262~3

◆ 기도객 받습니다 ◆
심신이 피곤하신 분들· 조용한 산사에서 수양하실 분들 연락바랍니다.
다솔사 부근 0593)854-0262~3

◆수양·공부·기도 모집◆
청 학 사
0595)83-2933

반려자 구함
■본인소개
· 나이: 탐띠(41세) · 학력: 대졸
· 신장: 173cm, 80kg · 직업: 조경업
· 4살 남아 있음
■여성의 조건
· 나이: 30~38세 · 학력: 무관
·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도를 행할 수 있는 불자여성 원함.
Tel : 062)227-6959(저녁전화要)
호출 : 012)650-6959

불교용품관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금강경 10폭 병풍 법보시◆
천일기도 원력으로 이룬 금강경 병풍(강명 108직품) 꼭 소장하고 싶으신 인연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02)845-0760

◆보련각서점◆
견지동 02)733-9537

◆예 진 솔◆
견지동 02)736-5160

◆견지불교사◆
불교서적·어린이용품 전문점
견지동 02)739-3032

◆大 福 田◆
佛 敎 用 品
견지동 02)737-0969

◆여 래 사◆
견지동 02)730-6939

◆太成佛敎社◆
불교·단청·개금
견지동 02)732-7375

◆아전전통칠기공방◆
목발우·제기·다기잔
·소반·주방생활용품
옻칠공예 지정문화재 수리 기능인 작품
▶전화 : 494-0520
※ 야 간 전화주문 가능

불교미술관

佛心 여래미술원
·탱화·개금
정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011-324-5133

大圓佛敎美術院
金魚 李 鍾 春
·불화 조성 전문
13.15.16회 불미전 입상
0346)571-6581 (화실)
011-737-6581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물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후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단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단 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9-4609
공 장 0346-571-9638 호 출 012-210-1401
趙 貴 玉 합장

사찰안내관

포교당 안내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 평 수 : 3층 건물 2층-20평
◇ 가 격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02)447-8487
0342)757-8991

포교당 안내
◇ 위 치 : 김음진철역 부근 버스정류장옆
◇ 평 수 : 법당및 요사 50평, 방 2칸 (5층건물 2층)
◇ 가 격 : 보증금 5,000만원, 월 80만원 (전세도 가능하며 시설비 일체무상)
◆ 최고시설(시설비만 5천만원 투자)
02)941-3195
017)215-319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수리산 밑
◇ 평 수 : 대 지 45평
◇ 법 당 : 2층 20평(전세 3천 8백)
◇ 가 격 : 1억 2천만원
◇ 특 징 : 요사채는 신식시설, 방 2개(거실 15평)
◆ 사정상 급매
02)914-5447
02)911-1319(直)
011)271-0669
※ 스님 직접 상담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대구시 효목동
◇ 평 수 : 법당 60평
◇ 가 격 :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053)944-0778
0599)32-8216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여주
◇ 평 수 : 1,500평 (등기평수 1,330평)
◇ 건 물 : 법당 18평(목조), 요사채 56평, 법회당 40평(목조한옥),
◇ 일주문·요한각·석등 2개, 산신각 4평
◇ 가 격 : 상담후 절충
◆ 서울에서 1시간거리, 여주에서 10분
0337)82-7339

포교당 안내
◇ 위 치 : 구의동 대로변 (동부경찰서 버스정류장)
◇ 평 수 : 약 20평 (3층건물 2층)
◇ 가 격 : 보증금 1,000만원 · 월45만원
◆ 시설비 : 보신 후 절충
전 화 02)447-8487
휴대폰 017)273-5115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 평 수 : 50평(건물에 옥상 있음)
◇ 가 격 : - 보증금(시설비 포함) 절충가액 2,500만원 (월세 35만원)
053)614-9974
012)1171-7935

포교당 안내
◇ 위 치 : 종로구 견지동 3번지
◇ 평 수 : 약 30평(법당 약 15평, 방 두칸, 주방 한칸)
◇ 가 격 : 보증금(시설비 포함) 3,000만원, 월 70만원
02)438-2973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영천 고경부근
◇ 평 수 : 일야 1만평중
- 대지 400평, 법당 20평,
- 산신각 3평, 용왕각 4평
- 석불 입상불 (5m) 요사채 40평
◇ 가 격 : 절충가능
◆ 황수탕 약수 유명
011)819-0803
012)483-1798

포교당 안 내
◇ 위 치 : 정택 대로변
- 서울에서 1시간이내
- 시장·터미널·주요관공서와 10분이내
◇ 평 수 : 3층 57평
◇ 가 격 : 전세 5,000만원
0333)665-6686
0522)87-2276

포교당 안내
◇ 위 치 : 진주시 상봉동
◇ 평 수 : 40평(법당 20평)
◇ 방 2, 거실, 식당겸 주방
◇ 가 격 : 전세 4천 (월세도 가능)
0591)745-0429

◆위 치 : 경북 예천
◆부 지 : 696평 등기평수
◆법 당 : 18평
◆요 사 : 32평
◆시 설 : 시설일체 무상 기증
◆가 격 : 9,600만원
◆ 특 징 : 불교 중흥을 위하여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투자비용 원금만 받고 양도합니다.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와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 국 불 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5)124-6334
(24시간 호출要)
서 울 본 사 :02)3705-4447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사찰·사회복지 민간시설 ·어린이집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평 수 : 75평
◇보증금(권리금포함) : 8,000만원 (월 150만원)
02)956-7191
※ 현재 운영중

전국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승복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여행사관

◆ 불교성지순례 ◆
(주)성문관광
종로구 청진동
02)722-2233(代)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장의관

- 불교장례대행 -
◆ 대한불교연화회 ◆
불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02)732-9618~9

발종공고관

대한불교 태고종 귀하
사찰명 : 향천사
■주 소 :
강원도 정성군 북면
부평 1리 2반
■주 지 : 변 갑 출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7. 11. .

대한불교 조동종 귀하
사찰명 : 천불사
■주 소 :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261-2
■주 지 : 혜원 천 태 용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7. 11. 1.

필방관

◆ 大興堂筆房 ◆
대표 권 대 일
견지동 02)732-7326

◆ 大新堂筆房 ◆
견지동 02)732-2830

◆ 安國筆房/書籍 ◆
견지동 02)732-4846

◆ 丹 陽 筆 房 ◆
대표 신 태 식
서예도구 일체
공평동
02)720-9991

표구관

◆성 신 표 구◆
인사동 02)734-2344

◆ 낙 원 표 구◆
인사동 02)734-2972

◆명 륜 표 구◆
인사동 02)736-1712

◆ 박 당 표 구◆
인사동 02)735-5696

◆ 고미당 표 구◆
인사동 02)735-2037

◆신신표구사◆
인사동 02)735-2710

◆서 광 표 구◆
인사동 02)720-7442

◆ 은실화랑표구 ◆
광명시 02)682-7536

화랑관

◆ 용정 콜렉션 ◆
중국미술품
02)735-2700

◆동 성 방 화 랑◆
고서화.한국화
02)723-6577

◆ 금 성 화 랑◆
인사동 02)733-2462

◆ 가 람 화 랑◆
인사동 02)732-6170

◆경인미술관◆
인사동 02)733-4448

◆ 대호고미술전시관 ◆
답십리 02)212-8777

◆ 예 림 화 랑◆
인사동 02)732-3318

◆ 대 림 화 랑◆
고서화. 한국화
인사동 02)733-3738

◆ 갤러리 대아 ◆
서 양 화
02)517-2558

◆ 동 원 화 랑◆
인사동 02)736-3852

학원관

◆ 시사일본어사 ◆
● 1집 초, 중급편
● 2집 고급편
● 3집 LIVE편
NHK 일본어
국내독점 라이센스 시사일본어사
02)720-3690

기타관

◆ 불사 어려우신 스님들 ◆
※ 상 담 바 람
02)924-8047

◆ 바로잡습니다 ◆
본지 148호(10/29) 2면하단에 게재된 『온양 보문사』 광고에서 주지 김오월을 주지 김오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 서 영 현
●나이 : 32살(1966년생)
●본적 : 전남 해남군
·1994년 초 집을 나간 뒤 출가하겠다는 연락이 왔으나 승적에도 올라있지 않아 부모님이 애타게 찾고 있음.
수행자의 길을 걷는다면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살아있다는 연락만이라도 주기 바람.
◆ 위 사람을 아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0343)41-8672(서관순)
0634)32-5264(해남집)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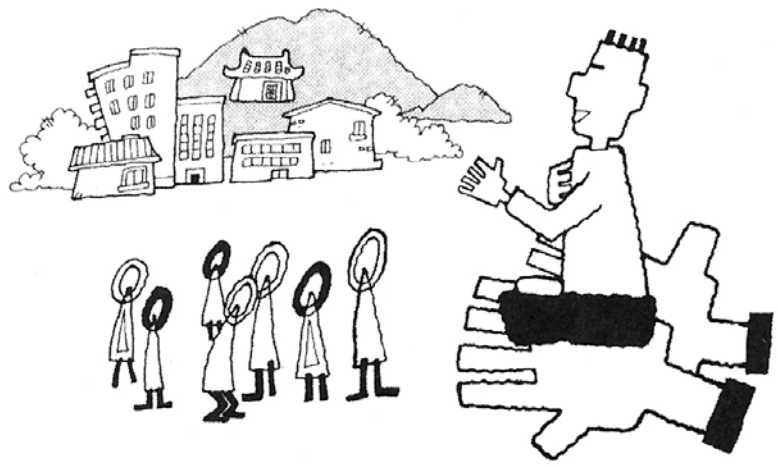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차원 따지지 않는 평등한 마음 으뜸"

"닥치는 경계는 모두 내탓 재앙·병고를 공부재료로 삼으세요"


그림 · 최주현

"복빌러 다니면서 불자 다 된줄 알면 안돼" "갖는 도리 버리고 주는 도리를 배우세요"

부처님법 바르게 믿는 길

문 너무 기초적인 것이라서 질문하기가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현대불교 독자중에는 저 같은 초심자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쭙니다. 부처님 법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길은 무엇인지요?
가능하시다면 소상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표영순〉

답 부처님 법을 배우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법당에 가서 쌀이나 떡을 올려놓고 비는 게 바른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불제자라면 마땅히 자성삼보에 귀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체험하고 증득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부처님 불씨를 키우는 일이요, 보리를 꽃피우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법, 부처님 법 하지만 우리들 생활에서 여러분들 빼놓고, 가정 빼놓고, 사회 빼놓고, 국가·세계 빼놓고서야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 태어난 게 그대로 화두이며 태초라고 항상 말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러니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작다고 할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간이나 부부지간이나, 위 아래로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평등한 행을 하고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얼굴로 대한다면 그게 자비심이 되는 겁니다.
조금 괴롭다 해서 짜증을 내기보다 항상 내 부처님에게 맡겨놓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때 정말로 자식될 자격, 부모될 자격이 있고 부처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 종지만한 차원이 있는가 하면 바다같이 넓은 사람도 있어서 다 제 차원대로 삽니다. 그런데 제 차원에서 옳다고 그러는 건 내 차원에서 그르다고 할 수도 없으니 평등한 마음에서 뜻으로 행하고 뜻으로 알아먹게끔 한다면 전달되는 사이없이 전달이 되어서 서로가 밝고 편해지질 않겠습니까?
이게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행으로 되어야 불제자이지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전세계를 볼 때에 그래도 한국의 선맥이 제일 우수한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도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만 함께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도반으로서 그 가르침을 토론하고 가르치고 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길잡이가 부족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절에 다니는 분들이 복이나 빌고 왔다 갔다 절에 다니는 것으로만 불자가 다 된 줄 아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이렇게 반 쪽으로 나뉘어 사는 것도 원통하고, 과거에 불행했던 일도 그 계기를 보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혜를 넓히지 못했던 까닭인데 그걸 돌아다 보면서라도 자기 부처를 믿고 제 분수를 지키고 참뜻을 증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통일도 될게 아닙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마음으로 통해서 조절이 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과 한마음이니 뭐든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나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걸로 불자입네 하겠습니까.
어느 사찰에서는 그걸로 족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떡 쪄놓고 비는 게 산 사람들이 먹는 거지 귀신이 먹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산 사람의 마음에 신이 있기에 그 신으로 인해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상 조성해 놓고 그림 붙여놓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믿는 그 의식이 부처님한테 모아져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방엘 가도 도량이요 마당엘 나가도 도량이요 변소엘 가도 거기가 도량인 것입니다. 거기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딱 고정되게 뭔가를 생각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과거 삶, 현재 삶, 미래 삶 그 삼세가 한마음으로, 한 불심의 기둥으로 바퀴처럼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으니 그대로 색과 공이 둘이 아니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혹 깨우쳤다 해도 다시 미(迷)해질게 분명하고, 설사 깨우치진 못했다 해도 사람도리 다하며 살기도 어렵고 개인이나 나라나 적지않은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치하에서 뼈저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그냥 내 것만 알고 나만 편안하기를 바라고 불법의 진리를 밀쳐 놓았기에 그리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사는 모습을 보면 바탑 잘 날이 없어요, 자기를 되돌아 보지도 못하고 자기 분수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앞길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바람 잘 날 없이 삽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자기의 정신력을 상실하고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바람부는 대로 쏠려 다니다가 그만 제 집, 조그마한 집 한채를 그냥 태워버리고 맙니다.
어른이나 애나 마찬가지이니 이 일을 어쩝니까?
만물의 영장답게 중용을 할 수 있고 찰나찰나에 자재력을 갖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이란 절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계발하고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면서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되는 그런 도량입니다.

마구니가 붙어다니는 것 같아요

문 스님! 한 세상 살아나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희이 든 나머지 어느 때는 저에게 마구니가 붙어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어떻게든 면해 볼 방법이 없을까요? 〈인천 김형목〉

답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우선 피하고 보려 합니다. 그러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단호히 없애려고 해야 합니다. 귀신이 열, 스물, 백이 덤벼든다고 해도 그것은 나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선이든 악이든 귀신이든 마구니든, 혹은 부처이든지 그것은 다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려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100%를 다 준다고 생각하세요.
100% 다 주겠다는 데 싫다고 할 사람 없듯이 갖는 도리를 버리고 철저히 주는 도리를 배우세요. 내가 다 버려야만 다 얻을 수 있고 항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 아닌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곳이 없게 됩니다. 그쯤 되어야지 내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고 내 가족, 내 이웃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특별히 내게 뭣이 찾아온다고 생각지 말고 오면 오는대로 다 놓고 다 주어 보세요.
다 버리면 다 있습니다.

싸우고 헐뜯는 세상인데…

문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된 세상이기에 맨날 싸우고 헐뜯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 김문구〉

답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이놈의 세상 어떻게 됐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 살기가 싫다고 하시는데 너무 언잖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등한 마음으로 마음도리를 배우신다면 이 세상이 자재천국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이 마치 지옥고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니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계발해서 나도 구하고 이웃도 구하는 도리를 터득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양이라든지 병고든지 뭐든 닥쳐오면 그것을 공부재료로 삼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알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용어를 쓰는 이유

문 스님께서는 '주인공'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냥 '자기'라고 하지 않고 왜 따로 용어를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까? 〈서울 지대윤〉

답 자신이라고 하면 똑 참하겠는데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건 왜냐? 자기 몸뚱이가 공했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지요? 먹는 것도 그렇지요? 말하는 것도 방금 내가 한 말이 그냥 과거로 흘러 갔지요?
가는 것, 오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만나고 헤어지는 것, 도무지 세상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니 어느 때를 꼭 집어서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연방 돌아가는데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44)

이왕 사랑을 할 바엔 죽고 못사는 사랑을.

"놓는 데는 이유가 없다. 조건이 없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맡겨라. 놓고 가야 한다. 아는 것 모르는 것, 행도 불행도, 가난도 병고도 다 맡겨라. 놓아라. 맡기고 놓아도 잘 안 풀린다는 그것마저도 놓아라. '주인공 밖에는 길을 인도할 수 없지' 하고 놓아라. 그것만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요 억겁 전부터 짊어지고 온 짐을 내려 놓는 작업이며 마음의 때를 씻는 작업이요 내가 죽는 작업인 것이다.

주인공에게 일체를 맡긴다, 놓는다 해서 '맡기는 나'와 '받아들이는 나'가 따로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함께'인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맡긴다, 놓는다 하는 것은 지극한 헌신을 의미한다. 자신을 완전히 잊고 대상에 철저히 귀의하는 것 또는 '나'는 쑥 빠지고 오로지 대상과 하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거기엔 두가지 전혀 다른 길이 있다. 하나는 헌신의 대상을 바깥의 그 무엇으로 삼는 것, 예를 들면 절대자 하나님이나 무슨무슨 신, 혹은 미륵부처를 섬기는 경우이다. 또다른 길은 헌신의 대상을 자기 자신의 본성자리로 돌리는 경우이다.
앞의 것은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완성자·절대자를 향해 진심으로 귀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질 않고 완성자인 부처가 될 가능성의 존재로 보아 각자 자신의 불성에 귀의하라는 것이다. 고로 불교의 헌신은 현재의식의 자기가 본성의 자기에게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놓음·맡김은 바로 내면을 향한 귀로(歸路)인 것이다.

헌신은 곧 사랑이다. 완벽한 헌신은 완벽한 사랑이다. 대상에 귀의하여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곧 완벽한 사랑의 경지이다. 따라서 놓음·맡김은 현재의식의 자기가 본성의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본성의 자기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대상과의 동화(同化)는 불가능하다. 부모가 자식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놓아지, 맡겨야지 혹은 놓았다 맡겼다 하는 것은 아직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또하나의 상념(想念)에 불과하다. 놓았다는 생각, 맡겼다는 생각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아마도 자기최면의 일종이기 쉽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몸 전체로 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맡김·놓음은 생각이 아니라 상태이다. 아무런 상념의 찌꺼기가 남지 않는 완벽한 헌신이다. 몸과 마음이 다 쏟아 부어진 상태,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이 붙질 않는 진정한 사랑의 경지인 것이다.
고로 주인공에 맡긴다, 주인공에 놓는다가 아니라 주인공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에 맡기고 놓는 게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그냥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다.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자식의 이름으로, 자식의 뜻으로 살듯이 그렇게 주인공의 이름으로, 자기 본성의 뜻으로 살아야 한다. 맡기는 나도 사라지고 놓는 나도 사라져야 한다. 오직 주인공만이 있음으로 살아야 한다.



완벽한 맡김이 아니라면 그것은 맡김이 아니라 맡김의 연습일 뿐이다. 뭉땅, 무조건 놓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놓음이 아니라 놓기 연습을 하는 데 불과하다.
물론 그런 연습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연습만으로도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는 있다.
웬만한 경계쯤은 시달리지 않고 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편안함은 자신을 둔하게 만들고 매사에 소극적이 되게 한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완벽한 맡김에서 찾아오는 자유가 아니다. 거기에선 기쁨도 즐거움도 아주 미약하다.
하지만 완벽한 맡김엔 비할 데 없는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본성의 자리에서 샘솟는 환희가 있고 대자유가 있다.
그 맛을 모르고 연습만 할 것인가, 이왕 맡기고 놓을 양이면 '나'가 사라지고 없는 그런 헌신을 하라. 주인공, 그대가 아니면 죽고 못산다는 그런 사랑을 하라. 환희심이 그대를 반겨줄 것이다.

협 찬 : 이 명 숙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부처와 본래 한자리" 믿고 들어가라

☞ 17면에서 계속

말입니다. 그래서 '빌 공'(空)자 주인공이다 이거지요.

물론 사람마다 이름이 있어서 '아무개야' 하고 구별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건 다 똑같이 부르면 안되겠기에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자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기 이전이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름이 있기 이전이 바로 자기의 참불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부처님은 볼수 없습니까

문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법계에 꽉 차고 두루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처님 몸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달나라에도, 저 별자리 속에도 계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양 윤유훈〉

답 부처님께서 앉은 자리는 그냥 한 도량이지요. 부처님 발은 평발이구요.

어떤 원리에서 그러냐고 하겠지만 첫째로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면 전체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체만물이, 일체도 이름이지만 아무튼 두두물물이 다 공체요 공심이요 둘이 아니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자리요 한도량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거론할 수 있는 모든 것, 닥치는 모든 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달나라든 별나라든 말입니다.

그렇다고 끌어다가 보는 것도 아니고 끌어다가 한자리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서 보고 가서 듣는 것도 아니지요.

공처로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 여기든 거기든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그냥 한자리 한도량인 것이지요. 그러니 꽉 찼다는 것도 말이지만 꽉 찼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양이 있어서 본다, 만진다, 듣는다 하는게 아니라 둘이 아니게 내 속에서는 내가 되고 저 속에서는 저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있는 모습도 될 수 있고 없는 모습도 될 수 있고요.

그걸 사람들이 자꾸 둘로 보려고 하니까 두루 찼다고 하는데 도대체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원리가 있다면 이 부처라는 이름 자체도 없는 원리가 있다고 할까요. 그 원리 안에는 아무 것도 붙질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문 경전에서는 일체가 지·수·화·풍 사대에서 생겼다고 했습니다.

〈능엄경〉에 보면 참마음(眞性) 속에 본래부터 지·수·화·풍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당초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경북 문경 양휘중〉

답 본래부터 허공에 두루 차 있는 한 마음으로부터 지·수·화·풍 사대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진성이라고 하든 법성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지간에 사대가 생기기 이전 그 자리에서 사대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걸 말로 할 수 없지요. 아무튼 눈에 보이기 이전에 지·수·화·풍 사대가 있었고 사대가 뭉치다 보니까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애당초에 사대가 뭉쳐 사람이 된게 아닙니다. 사대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그냥 합치다 보니까 생명이 생겼지만 모습은 아무렇게나, 그거 생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모습을 끌고 다니면서 부딪치다 보니까 점차로 새로운 모습을 개발하게 된 것이지요. 스스로 말입니다. 제가 제 모습을 꾸미고 고치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없어서 불편하다 싶으면 하나를 더 붙이고 혹은 떼어내면서 구르고 굴러서 진화해 온 것이지요.

그러니 인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쳤겠습니까? 참으로 그 과정을 알면 피 눈물이 나지요.

구르고 굴러서 인간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냐? 아니지요. 또 구르고 굴러서 부처가 안 될 리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 나무 한 그루, 벌레 한마리, 또는 물 한방울 바람 한점도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전부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쉬지 않고 굴러 왔고 쉬지 않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괜한 말이 아니지요.

인간이 되었건 미물이 되었건 자동적으로 한구멍에서 나오고 한구멍으로 드는 것이 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그대로 선이고 계이고 교이지요. 삼합이란 말입니다.

사대가 뭉쳐 모습 만들고
구르고 굴러 진화 했으니
차원바꾸는 원력 누구에게나…



그림 · 최주현

무조건 믿기 어렵습니다

문 스님께서는 말씀 중에 자주 '무조건 믿고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무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가 부처이기에 부처노릇 하지 말래도 그냥 부처 노릇하게 되어 있으니 여러말 말고 그냥 믿고 들어가라, 그러면 물리가 터진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해주는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야예, 무조건 하고 죽어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살아 나오는 도리가 있고 살아나오니까 산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더라는 원리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믿으란다고 밖으로 믿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안으로 제 부처를 믿으라는 말이지요.

가령 경전을 보는 일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구절 구절들도 항상 내면으로 귀결지어야 합니다. 첫째도 나로부터, 둘째도 나로부터, 셋째도 나로부터 입니다.

닥치는 경계 내 업보인가요

문 우리들에게 닥치는 경계가 실은 다 내게서 온 것이니 내 탓이지 누구를 탓할 게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 내 업보요 내 인과로 돌리고 살라는 뜻이 되는가요?

그게 진리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충북 청주 권희영〉

답 그렇게 규정지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나온 곳이 없기에 갈 곳도 없는, 무한의 불성이 밝은 그 자리에 있으니 인과다 업보다 딱 규정지을게 없습니다. 그냥 불성의 내가 있기에 내가 나를 형성시켜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지 무슨 인과가 어때서 이렇게 태어났다 할 게 없다는 말이지요.

가령 우리가 법당을 짓고 그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있기에 법당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내 집이다, 내 법당이다 할 수 없지요.

'나'라는 이 집도 수십억 생명이 들락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어놓았지만 이게 내 집이다 하고 고정되게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업보라는 말이 붙을 수 없지요.

수십억 생명이 들락거리며 사는 데 어떻게 내 업보다, 나만의 팔자운명이 있다라고 딱 잘라서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모순이 아닐까요?

이 마음도리를 모르는 사람에겐 업보라, 인과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모양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업보가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한다면 그게 바른 말이지요.

업보가 아니라 나를 성장케하는 과정이요 공부의 재료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야말로 나무가 잘 자라게 물을 주고 김을 매주는 일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물도 안주고 김도 매주지 않고 그냥 돌 밭에서 자라 봐라, 네 업보니까 견뎌 보아라 한다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고(苦)가 되고 말지요. 팔자운명을 탓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걸 고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참 나가 나를 형성시켜 놓고 내게 수행의 과정을 따르도록 하는구나' '참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나를 가르치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나무에게 물을 주고 잘 자라라고 김을 매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 죄다, 업이다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죄어들게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계발하게 그렇게 해야 옳다 이겁니다.

지금 그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기에다 덧붙여서 '당신은 업보가 많으니 그걸 없앨려면 치성을 드리시오. 부적을 하시오'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네 업보다 그런다면 그렇게 듣는 사람에겐 분명히 업보가 있는게 됩니다.

그 듣는 사람이 '아이구 내 팔자야. 업이 많아서 이렇구나' 한다면 거기에 매였으니 있는 거지요.

반면에 '이 고통마저도 그대로 성숙케 하는 과정이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하고 뚜껑을 따 준다면 꽉 막혔던 생각이 활짝 열려서 얽매이지 않을 것이고 얽매이지 않으면 활달하게, 자유롭게 자기가 자기를 발전시키면서 나아갈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집에 대해 얘기했지만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도 살다가 헐어지면 제 손으로 고쳐서 살고, 살다가 비좁다 싶으면 집을 좀 늘려지어서 삽니다.

그런데 이건 업보니까…, 한다면 거기에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한 푼 어치의 이익도 없겠지요.

그래서 모든게 고맙고 감사한 법입니다. 인간으로 형성시켜 지금 이렇게 사는게 고맙고 서로 서로 오고 가는 행이 또 고맙고…, 그런데 그걸 업보다, 고다 한다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요. 왜냐? 부처를 이루게 인도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수만 겁을 돌고 돌게 만드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 드리지만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돌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스님네들도 괴롭지 않고 신도들도 괴롭지 않게 말이예요.

삶의 의미를 일러주세요

문 스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삶의 의미, 생사의 의미에 대해 무어라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이제 막 불자가 된 사람으로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여쭙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 남춘복〉

답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거론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냥 그런거지' 하고 말겁니다. 그러나 저 벌레 하나를 보더라도 껍데기를 벗고 또 벗고 하면서 새롭게 변모하는 것이 참으로 눈물겹기도 하고 거기에 광대무변한 뜻이 있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껍데기를 벗는다고 아주 죽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진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것이나 물에서 사는 것이나 모두, 생명들이라고 하면 살면서 그래도 뭔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따라 진화하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가운데 거기서 뛰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식으로 거기서 뛰어나오지 못한다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공부를 해라, 어떻게 해서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려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뿐이지 뭐가 있어서 돌고 도느냐 하고, 어떤 이는 그러기에 먹고 마시고 한 세상 즐겁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자유자재권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았다 해도 뭣이 다르겠으며 이날까지 애쓰면서 진화해온 보람이 뭣이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벽도 없고 보꾹도 없고 멀고 가까운 것도 없습니다.

고로 한 찰나에, 빛보다 빠르게 모두를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둘 아니게 응해줄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가 마음도리를 잘 알아서 이날까지 살아온 보람도 살리고 자유권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도 건져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공부 하는데는 말로 꼭 집어서 해드릴 수가 없군요. 참으로 끝간데 없는 묘법이라는 것을 알려 드릴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말이 '허, 참 이건까 보일 수도 없고 어쩌면 좋나'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풀 한 포기를 보아도 범상하게 볼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이치를 느끼시라 이겁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들을지는 몰라도 모양으로야 사람이고 나무고 풀이고 그렇지만 마음으로야 어찌 벽이 있다 보꾹이 있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사는데 급급해서 그렇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는 것은 우리와 같고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통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에 무슨 신묘한 구석이 있는가 보다 하시면 안됩니다.

일체 만물 만생이 태어나는 근본은 '불'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치가 바로 '교'이니 그 속에 불법이 있고 불법속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그대로 여여하니라 하게 되지요.

"苦는 업보이전에 '나' 성숙시키는 기회"
"자기 발견 못하면 바람따라 휩쓸려요"

꿈에 구렁이를 봤습니다

문 스님, 꿈에 큰 구렁이가 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태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구렁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천 강정원〉

답 태몽에 돼지를 봤다, 용을 봤다 그러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대로이니까요.

나는 좋다 나쁘다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렁이를 보았다 하면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평상시에 자고 먹고 생활하는 그 용(用)을 말하는 것이지 뭐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어머님의 생각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 그 아이는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 구렁이를 보면 시른둥하고 용을 보면 큰 인물이 날 거라고 좋아하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구렁이를 보았으니 아주 활력적인 생활을 하던 영혼인 게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소를 보았다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영혼으로 생각하면 될 거구요.

영혼엔 아주 슬픈 영혼, 즐거운 영혼, 아픈 영혼, 한이 많은 영혼…,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나의 영원한 근본을 믿으면서 알고 보면 서로가 똑같은 지경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이끄는게 우선이지 꿈에 보는 모습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협찬 민병순 · 윤후동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4동 204-142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독 자 마 당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KBS 방영 '서울대 출신 9명 출가'를 보고

10월21일 오후 9시10분부터 KBS 제 2TV를 통해 방영된 '특종 비디오 저널-서울대 출신 엘리트 9명의 출가'를 보고 편지와 PC통신을 통해 밝힌 불자들의 의견을 게재한다.

출가동기·과정 외면 불교 신앙행위 왜곡

이 방송에서 제작자는 불교를 사이비 종교 취급하고, 출가한 서울대 출신 9명의 스님들을 마치 광신도인양 왜곡되게 그리고 있었다. 출가자들의 출가동기와 과정, 그에 따른 번민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잘 나가던 내 아들이 필경 누군가의 꾐에 빠져 출가했다. 흑막을 밝혀내고 내 자식을 찾아다오"라는 부모의 하소연을 비중있게 다뤄 그들을 '가출 청소년'쯤으로 폄하시켰다. 또 범죄자들을 쫓듯 그들의 소재지를 차례차례 추적해 나가기도 했다.

지각있는 방송인이라면 공중파 방송에 그런식으로 왜곡된 시각과 짧은 소견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시청자로서 프로그램 제작자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성희〈하이텔 tomboy88〉

불교 비하내용 일관 제작자 편견 드러나

우선 나는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이긴 하지만 불교동아리와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임을 밝힌다. 21일 방영된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첫째는 방송 내용의 주제가 문제제기의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가이다. 과연 서울대생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학생들이었다면, 또 불교계로의 출가가 아니라 타종교로의 출가였다면 이런 얼토당토한 내용의 방송이 제작 되었을까? 불교에 대한 제작자의 편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둘째는 이날의 방송은 내용의 일관성이 없었다. 시종일관 출가한 이들을 폄하하고 부정하더니 말미에서야 나레이터를 통해 구마하는 내용을 내보는 등 제작자로서 통찰력이 수준이하임을 지적하고 싶다.

함석현〈하이텔 VZ447055〉

치열한 구도 수행자 사이비 광신도 몰아

'서울대 출신이 왜 출가를 했는가?'라는 이유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분명 출가자를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종 비디오저널'이 출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려 했다면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더 달디단 속세의 꿀에 정신을 뺏기지 않고 용감하게 벼랑 위로 밧줄을 타고 올라간 그 용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을 것이다. 마치 그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그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취재한 행동은 가장 저열한 인간들이나 할 짓이다.

윤형철〈하이텔 Takoh〉

상부상조 미덕 살려 북녘기아·추위 돕자

갑작스럽게 닥쳐온 추위에 겨울옷을 꺼내 입고서도 '춥다'는 소릴 무의식적으로 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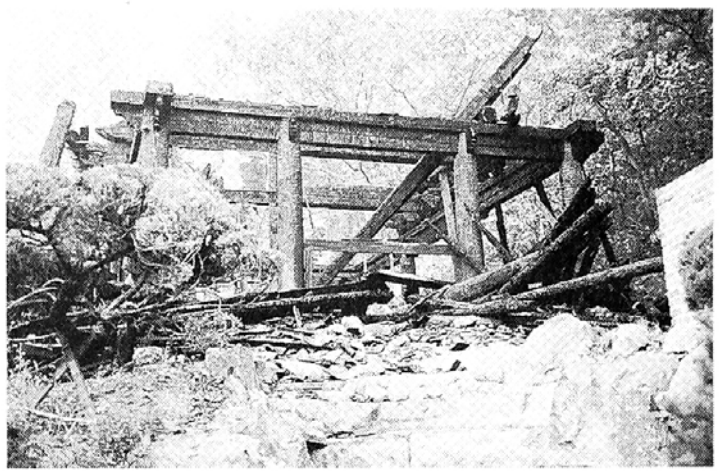
하지만 오랜 굶주림에다가 부실한 몸으로 이 겨울을 맞고 있을 북녘동포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추위에 수선을 떠는 것이 사뭇 부끄럽다.

경제불황에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상황이 '우리도 힘든데 북한까지 걱정할 겨를이 없다'는 말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북한의 식량난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울수록 나눠갖고 서로 의지했던 옛조상들의 미덕을 떠올려 보자.

북녘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손정일〈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 홍보차장〉



잿더미로 변한 파주 용암사

이교도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방화가 쌍미륵 석불로 유명한 용미리 용암사에서 또 발생했다. 10월 21일 재가 되어 이리저리 나 뒹구는 대웅전 구조물들, 특히 부처님의 법음을 싣고 지옥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새벽 어둠을 갈랐던 범종의 녹아버린 쇳물을 보았을 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절실히 느꼈다. 사찰 대중들이 화재를 감지하기도 전에 이미 먼 곳에서 소방서가 아닌 경찰서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또한 종교 범죄자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에서는 상황논리 속에서 화재의 원인을 누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언젠가는 준엄한 인과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각성할 일이다.

법현〈서울 성북구 정릉 천중사 부주지〉

현대불교를 읽고

특정 종교용어 방송 개탄 '공인발언 신중' 지적 공감

요즘 축구 국가대표팀 차범근감독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146호에서도 시원하게 짚어주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10월5일 일본에서 열린 WBA J.L급 타이틀 전 TV 생중계에서 해설자로 나온 역대 챔피언 홍수환씨는 "승리의 하나님께서 최용수선수의…" 했다. 또 얼마전 모 TV 방송에서 아침뉴스 시간에 이효계 농림부장관은 "알맞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공과 사를 구분치 못하는 일부 공인의 어리석음과 간교함에 각성을 촉구한다.

한연수〈경기도 고양시〉

거사불교 특집호 유익 '처사' 호칭 시정 당연

우리 불교집안에서는 엄연히 계를 받아 불명이 있는 거사들을 유교식으로 처사(處士)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다. 현대불교신문 146호가 거사불교를 특집으로 진단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해 대단히 공감했다. 특히 재가자들 사이에서 보다 스님들이 더욱 자주 "처사님"하고 사용하시는 것 같다. 자기 식이름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한 호법이고 포교이다.

덩형관〈조계종 봉선사 강서포교원 원심선원 수석고문〉

독자 시

선운사 있길래

길을 걷다 선운사 있길래
대문 밖 마당에서 발길 돌리고
차마 못잊어
자비하신 부처님 인사 올리고
돌아가신 님을 위해 인사 올리고
하염없이 앉아서 하늘 보다가
생각없이 천왕문 빠져 나왔다

계곡물 피래미 서로 정다워
보고 또 보며 걷는다
웬놈의 설움이 치밀어 오르고
행여나 지나는 이 눈물 볼까봐
슬그머니 바위 틈에 숨어 앉는다

그래도 구름은 흐른다
피래민 서로 정담고…

〈임두빈 충남 보령시 동래동〉

■ 불자의원들께 ■

"사찰문화 보호제도 마련을"

국정감사와 국회환동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신한국당,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정당마다 불자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불자모임이 선거때가 되면 조계사를 방문하고 종정스님을 예방해 불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구성된 것은 아니겠지요.

불자 의원으로서 한번쯤 스스로 되돌아 보며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찰문화가 곧 전통문화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종교를 떠나 우리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절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각각의 종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현실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일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국가발전에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 불자'가 아니라 진정한 '불자 정치인'이시길 바랍니다.

영관〈서울 종로구 홍지동 무량정사 주지〉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 향 원



여성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알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같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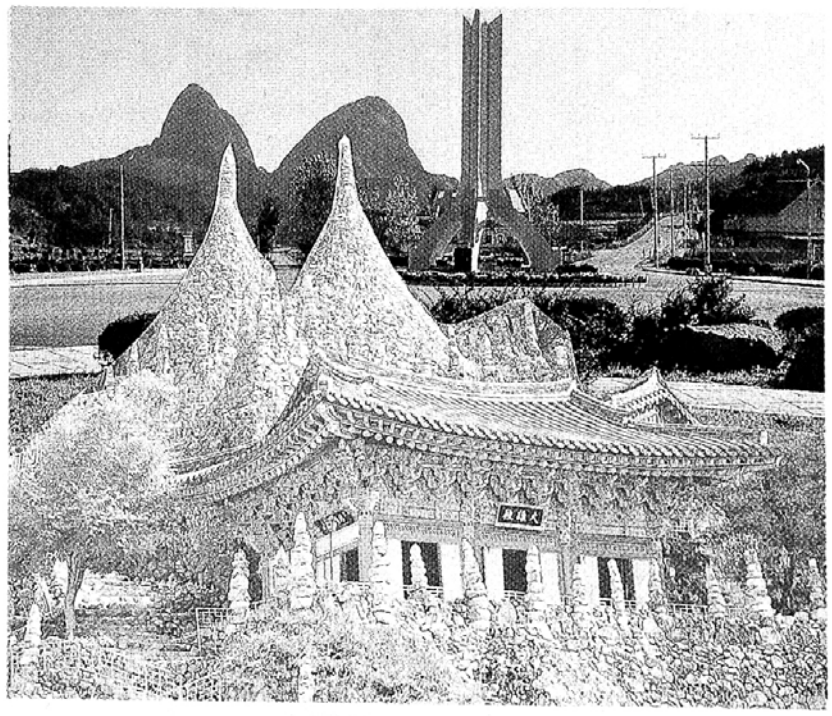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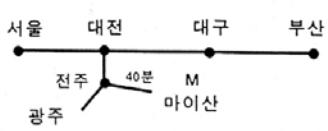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불자 세상보기

카드위조등 개인신상 유출 범죄 속출

정보도둑 신용사회 좀 먹는다

"우편물·카드비밀번호 등 관리철저"

신용카드와 개인용컴퓨터의 급속한 확산 등이 신용-정보사회를 실감케 한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전자화폐의 사용도 일반화된다. 그만큼 물류, 이동비용, 시간이 절감된다. 몇일 걸리던 일이 안방에 앉아 단말기를 두드리는 것으로 해결된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도 편리해졌다. 신용-정보사회의 가장 큰 이점은 편리일 것이다.

그러나 편리한만큼 위험이 뒤따른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전체의 정보 및 신용은 대혼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는 곧장 범죄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위조범죄는 개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개꼴로 신용카드가 보급돼 있다. 신용카드 범죄피해는 무차별적이고 불특정다수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가 되고 있다. 8월까지 적발된 신용카드 위·변조 건수는 1천4백9건으로 지난 한해 9백41건보다 2배 가까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서울지검은 신용카드조회 서비스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자의 정보를 빼내 카드를 대량으로 위조, 5억7천여만원을 챙긴 신용카드 위조단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서비스업체 직원을 매수해 입수한 카드회원 정보를 이용, 1천여장의 카드를 위조해 일본 신간센 정기권을 구입해 되팔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겨왔다.

우편물을 훔쳐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최근들어 늘고 있다. 우편함에는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호출기번호 등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다. 서울 송파결찰서는 9월말 송파구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협박전화사건의 범인이 우편함에서 해당가정의 신상정보를 빼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우편물도둑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범죄대상은 개인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정보의 유출도 나타나고 있다. 걸프전쟁중 미국의 군사기밀이 해커들에 의해 이라크에 제공된 적도 있었다. 이라크가 제공된 정보를 무시했지만,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떳떳치못한 재물 취하지 말라

조선중기 운서스님은 도둑질은 오계를 범하는 무거운 죄라며 크게 경계했다.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몰래 훔치거나 사취하거나 또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 이것들이 모두 도둑질에 속하나니 경에 말씀하시되 '차라리 손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떳떳하지 못한 재물을 취하지 말라' 하셨다."
〈미륵율의요략불투도계〉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안 등 대처방법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컴퓨터범죄수사대도 만들어졌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전산화된 기록 이외의 어떠한 형태의 개인정보의 유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의 보완이 시급하다. 예방을 위한 기술적 장치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우편함 관리,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의 유출을 막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위한 자원봉사대회가 사회 각계인사와 자원봉사자 등 3천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검 주최로 10월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주변 정화를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노인 70% 따로살기 원해

자식과 함께 살면 식구들이 외롭지 않고 손자 손녀와 지낼 수 있어 좋지만 노인 10명중 7명은 출가한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주부모니터들이 자식과 함께 사는 노인 16명과 따로 사는 노인 22명 등 모두 38명에게 물어보니 '따로 사는 게 좋다'고 답한 사람이 70% 가까운 26명이었다. '지금은 함께 살지만, 여건이 된다면 따로 살고 싶다'는 이도 16명중 9경이었다.

따로 살고 싶은 이유는 '세대갈등' '육아부담' '자식 부부싸움하는 게 보기 싫어서' '시골생활을 하고파서' '어른노릇하기 힘들어서' 등의 이유였다.

산에서 흡연 벌금 30만원

앞으로 동네 뒷산이라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산림청은 24일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림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산에서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거나 흡연, 담배꽁초를 버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림청은 산림공익근무요원 1만2천명과 각 시·군 산림과 직원 8천여명을 전국 산림에 배치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키로 했다. 또 산불실화죄의 벌칙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생활정보

자동차 공회전 불필요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연간 12만7천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오존과 매연공해도 줄일 수 있다.

87년 이후 생산된 승용차의 대부분은 연료공급과 연소·배기 등이 모두 전자장치로 제어돼 요즘같은 날씨에는 공회전없이 출발시켜도 차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수돗물 누수확인 하려면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거나, 한밤중에 물새는 소리가 늘리면 수돗물 누수를 의심해봐야 한다.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량기 통의 뚜껑을 열고 수도계량기 유리안에 있는 '별침'(★모양의 빨간침)이 돌고 있으면 물이 새고 있는 것이다. 누수지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1번에 신고하면 누수지점을 탐지해준다.

여성보호전화 1366 개설

보건복지부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연중무휴로 24시간 전화상담을 해주는 '요보호 요청 응급전화 1366'을 내년부터 가동한다.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나 미혼모 등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번으로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제의

대한적십자가 북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상봉면회소 설치를 제의했다. 정원식 한적총재는 10월28일 순수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하루속히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를 판문점 등 남북한이 합의하는 장소라면 한반도내 어디에든 설치하자고 말했다.

민항기 북한하늘 통과 가능

대구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항로 개설을 위한 양해각서가 10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정식서명됐다. 이에따라 내년 4월 23일부터 우리나라 민간항공기도 북한 상공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해각서에는 분쟁발생시 해결절차를 비롯 항로설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됐다. 대구-평양간 소간 직통전화도 개설된다.

에버랜드 환경친화기업 지정

삼성에버랜드가 레저·서비스업체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았다. 에버랜드는 10월 28일 첨단 오폐수처리시설과 환경아카데미(환경교육)를 실시하는 등 꾸준히 환경경영과 환경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환경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최대 7천5백여톤의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췄으며 음식쓰레기를 전량 사료화해 인근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다.

음란 폰팅업자 무더기 적발

음란 폰팅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0월 27일 외국 사설전화업자와 결탁해 국제 음란폰팅 영업을 해온 혐의로 최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곽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이스라엘 네델란드 등 외국 사설전화업자들과 결탁해 국제 폰팅업을 하기로 하고 국내 스포츠신문 등에 광고한 뒤 이용객들에게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변호사가 남의 땅 가로채

서울지검은 10월 29일 남의 땅을 가로챈 혐의로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정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변호사는 최근 시가 60억여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모씨에게 상속세 등을 물지 않기 위해 부동산을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을숙도에 골프연습장 '물의'

대학교수 등 골프동호인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이자 철새도래지인 부산 을숙도내 갈대밭 2천여평을 훼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관할 사하구청측은 올봄부터 모대학 교수 등이 갈대밭을 훼손한 뒤 아침 저녁으로 골프연습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들을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들었다

〈춘추좌씨전〉에 '악속한 말을 지키지 않아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의미의 식언(食言)이란 말이 있다. 12월 18일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지도자의 언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 차범근감독의 공개적인 특정 신앙 표출을 둘러싼 '기도논쟁'도 공인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공인의 언행이 어떠해야 할 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공인의 언행 몸 단속하고 진실 좇아라

▨보살은 언행이 서로 어울리며 본성이 정직하다. 〈문수보초심매경〉

▨몸을 단속하여 진실을 좇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법구경〉

▨말(차)과 저울로 남을 속인다거나, 마음은 악하면서 말만 착한 체하여 언행이 성실치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분별업보경〉

▨속마음이 정직하고 겉모양이 유화(柔和)하며, 모든 사곡(邪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고요하고 견고해서 평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미증유정법경〉

▨만일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스스로 실천한다면 나는 너를 훌륭한 사내라고 인정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말을 들으니 말과 행동이 걸맞지 않는구나. 네 마음을 길들이고 고요히 쉬라. 〈잡아함경〉

▨수보리야, 불퇴전의 보살은 어느 때거나 모든 말이 내용 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점이 있게 마련이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으며, 남의 미오(美惡) 장단(長短)도 살피지 않느니라. 〈불모출생경〉

▨거짓을 말하고 나쁜 곳에 빠지면 스스로 "내가 하지 않았다"한다. 이 천한 업은 뒷날에 나쁜 곳으로 빠져든다. 〈법구경〉

▨사문이 되기는 했어도 몸과 입을 조심하지 못하여, 거칠고 나쁜 말로 중상하는 바가 많으므로 뭇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지혜있는 이가 아끼지 않으며, 죽고 나면 삼도에 윤회하여 스스로 나고 스스로 죽어 괴로움이 끝이 없다. 〈법구비유경〉

▨심견(心見)을 정직히 하여 속이지 말고 아첨하지 말라. 〈화엄경〉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거짓말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말하는 내용이 지성(至誠)스러우며, 말이 진실하며, 전하는 바가 도리에 맞으며, 말이 시기에 적합해야 한다. 꿈 속에서라도 도에 벗어나는 일을 말하지 않고, 늘 바른 가르침의 경전을 설해야 한다. 세속의 행위에 관한 쓸데없는 일을 말하지 않으며, 이간하는 말을 떠나 저쪽의 나쁜 말을 이쪽에 전하지 않고, 이쪽의 나쁜 말을 저쪽에 말하지 않음으로써 다툼을 화해시켜 원한을 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점수일체지덕경〉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새상품

디지털 음성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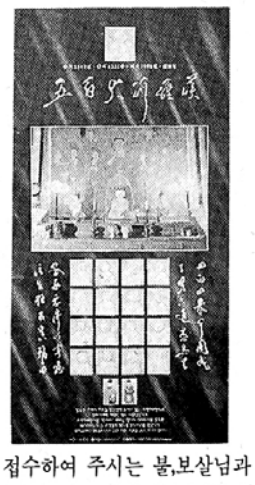
운전중이거나 필기구 없이 급히 메모를 해야 하는 경우 버튼만 누르면 쉽게 녹음할 수 '디지털 음성수첩'이 새로 나왔다. 이 제품은 반도체칩이 내장돼 있어 녹음한 내용을 쉽게 다시 찾아 들을 수 있다. 또 모든 동작은 LCD 액정화면으로 표시돼 사용하기 편리하며 녹음시간도 60분까지 가능하다.



음질면에서도 TAPE방식보다 깨끗한 장점이 있다. 가격은 11만4천원. 스카이전자 (02)992-5431

한 · 단 · 기 · 획

세계최초 오백아라한 성상으로 제작된



'98 새해 달력

- 가로×세로/30×610cm
- 4도 칼라
- 제본/13장 PVC Holder
- 주문/기본 500부
- 1부당 가격/W1,200
- 타지역 우송료 별도

★ 글 : 동곡 일타큰스님
★ 사진 : 오 명 숙
★ 제작 : **한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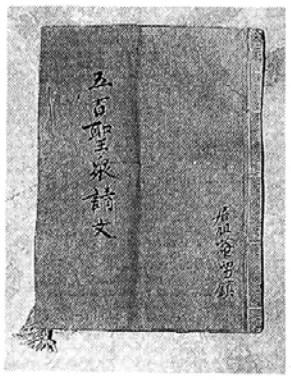
자비로 접수하여 주시는 불,보살님과 스님들께 지성 귀의하옵니다.
그동안 저희 한단기획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98년 새해 달력을 소개허드립니다.
이번 불기 2542년 달력은 팔공산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제14호)에 모시고 있는 526의 나한성상님을 한분도 빠짐없이 실어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최초 오백나한님의 모습을 담은 이 달력의 표지에는동곡일타 큰스님께서 오백나한님을 찬탄하는 글을 써 주셨습니다.
학계의 자료가 되고 불교 달력에 큰 획이 될 오백아라한 98년 달력에 여러 대덕스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아울러 앞으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한단기획이 되겠습니다.

한단기획 대표 박 현 상 합장

200여년전 영파큰스님 친필로 제작되었던 「오백성중청문책자」 재현

가로×세로/37×50cm
200여년전 영파큰스님께서 쓰신 5백성중청문책자가 거조암 영산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나한님을 모신 사찰이나 문화관에서 소장할 수 있도록 한지를 사용하여 원본과 똑같이 제작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 한정주문판매: 200권
- 가 격 : w70,000



■ 주 문 처 ■

한단기획 출판제작부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3-48번지
전화 : 053)255-8612 FAX : 256-8672

시 론

법보다 환경보존 우선

양양 양수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0월 23일 내린 판결은 자연환경의 파멸을 알리는 조종처럼 들린다. 이 판결은 보수적인 법이론은 차치하고라도 자연생태계를 '개인재산'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였다.

양양발전소 계획 '마찰'

1995년 7월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일원에 5천2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백만kw 용량의 양수식 수력발전소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통상산업부가 승인하자 1996년 1월 수몰지역 주민 5명과 환경단체 회원 1백여명은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인근 남대천 점봉산 일대의 희귀어종이 몰살하는 등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된다"며 발전소 사업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전 재 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실장〉

법원은 "원고들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산업부의 승인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하자 및 위법행위가 없었던 만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주민 5명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동원고로 참가한 환경단체회원들은 소송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 판결은 '정당한 법의 절차(적법절차)' 원리를 왜곡함으로써 법이념상의 파탄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법의식의 흐름을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퇴색시켰다.

현재의 법을 형식논리대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적법절차를 따랐다고 말할 수 없다. 법에 정한 절차(법정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절차적 정당성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실체적 정당성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법 내용 자체가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원이 심리기준으로 삼은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정의의 원리에 반한다. 정의의 원리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실시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평가받아야 할' 사업자에게 평가를 맡기는 모순을 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정적으로 내려지면 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사업자가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겠는가? 사업자 아닌 평가대행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돈 줄이다. 평가대행기관으로서는 돈을 내는 사업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법정절차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에 하자가 없다"고 단정함은 정의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따라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자체를 심사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와 인허가 기관이 객관적 수준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가의 여부를 심사할 책무가 있다. 이 건 사안에서 원고들이 평가의 충분성을 다투는 만큼 법원은 '평가의 수준'에 관한 실질심사에 들어갔어야 마땅하다.

환경소송에서 '주거' 요건은 의미가 없다. 자연환경은, 공공신탁의 이론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만의 재산이 아니며 더욱이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세대는 미래세대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려주는 신탁자에 불과하다. 환경선진국들은 아마존 밀림의 파괴까지 금지시키려 하고 한국은 중국의 대기오염까지 시비하는 판국에 소송 당사자가 분쟁 대상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자격을 부인함은 환경분쟁의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

자연환경의 주인은 국민

환경법의 흐름도 당사자 적격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7년 8월에 개정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로 하여금 분쟁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원이 계속 절차적 적법절차 논리에 따라 형식적 합법성만을 따지고 당사자 적격범위를 좁게 새긴다면 인류미래는 어둡다. 스웨덴의 국가환경보호 허가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제약장치들이 마련될 때까지 자연환경의 보전은 법원의 판단에 좌우된다. 법관의 '자유로운 법발견'에 다시 기대를 걸어본다.

열린마당

제2 석굴암 조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의 훼손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국사가 10월20일 석굴암의 영구 보존을 위해 제2 석굴암을 경내에 새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모조석굴암이 석굴암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느냐, 또 석굴암 보존과 참배, 관람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등 불교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 국민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제2 석굴암 조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모조품에 참배발상 '아연'

법달 〈석굴암 암주〉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자 성보를 똑같이 모조로 세워 참배케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도 제2석굴암 조성이 추진됐었다. 그때 월산 조실스님께서 출저하게 반대하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됐던 일도 있다. 석굴암 부처님을 참배하러 오는 사람은 실제 석굴암 부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다고 해서 모조품을 보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진자료를 보면 더욱 찬찬히 살필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석굴암의 마모현상으로 꼭 제2의 석굴암이 필요하다면 방대한 연구자료집을 제작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다.

섣부른 발상 아닐까 우려

황수영 〈前 동국대 총장〉

석굴암은 분명 신라의 토함산을 배경으로 한 영구불멸의 걸작품이다. 많은 분들이 석굴암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 사업에는 비중과 완급, 선후를 가려서 적절한 시책이 있어야 한다. 최근 제2석굴암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은 섣부른 행동이 아닐까하는 회의를 들게 한다. 현재 우리의 기술이나 재력으로 석굴암을 복원하거나 재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보다는 석굴암의 현상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그 보존을 위한 잠정적 조치, 아울러 앞으로의 근본적인 수리대책이 신중히 구상되어야 한다. 선대(先代)의 석굴암 경영의 정신적 조형적 양면에 대해 우리의 용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같은 사실에 대한 해명이 우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훌륭해도 접근 어려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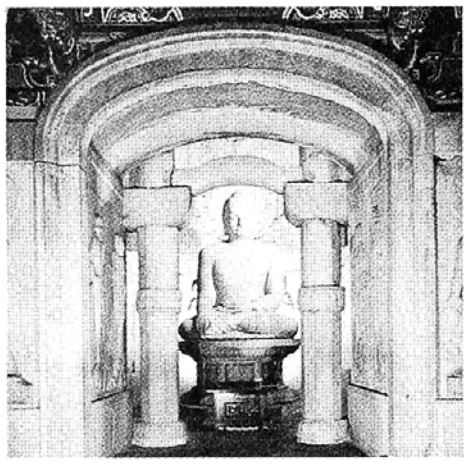
김동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 석굴암은 불교예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세계최고의 건축이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제2석굴암을 조성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석굴암의 예술적 종교적 풍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예술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감응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제2석굴암 조성에 대해 염려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도면과 모형으로 보여주고, 전시실도 만들어서 우리불교예술의 우수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민은 물론 전세계인에게 석굴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제2석굴암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밀조사 거쳐 조성해야

문명대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

날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국보중의 국보 석굴암의 보존을 위해 제2석굴암 조성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일을 처리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우선 별 문제 없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버리고 치밀하고 과학적인 정밀조사와 적절한 보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석굴 전체를 원형 그대로 재현해 석굴암 인근의 비슷한 지형에 새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석굴암을 찾는 사람들이 갖는 불평을 해소하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 소수의 사람들 이외에는 석굴암 내부를 감상하거나 참배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2석굴암을 조성해 누구나 직접 둘러보고 마음껏 예불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석굴암의 영구보존과 참배를 위한 제2석굴암 조성이 제기돼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석굴암 내부.

천년세월 모방 가능한가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

석굴암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를,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정각의 내용을 건축과 조각으로 구상화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적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또 종합예술이라는 차원에서 건축 조각 공예 종교 정치 천문학 기하학 풍수지리 물리학 화학 등이 모두 연관된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의 산물이다. 이러한 석굴암을 보존이라는 이름하에 참배와 관람을 금지시키고 제2석굴암을 조성해 참배 관람케 한다는 것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1천년이 넘는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자신의 본 모습을 지켜온 석굴암을 인위적인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제2석굴암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있는자리 그대로의 가치

황상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2석굴암 조성에 찬성할 수 없다. 기존의 석굴암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면 그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석굴암의 훼손상태는 당장 관람과 참배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 석굴암 자체 조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자들과 관람객들에게 석굴암 모형에 대한 참배와 관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석굴암 같은 참배의 대상은 일반 조형물과 달리 원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원래의 석굴암을 놔두고 어느 누가 모형에다 참배를 하고 싶겠는가. 보존상의 문제 때문이라면 보다 효율적인 보존 관리방법을 연구하면 된다.

자료관 필요…참배 곤란

안장헌 〈신구전문대 교수 · 사진작가〉

석굴암을 직접 보기위해 예산과 시간을 들여 다녀온 사람들의 적지않은 수가 아쉬움을 표한다. 그것은 유리벽 안의 부처님과 십대제자들을 뵙고 와야하며, 줄이은 관람객들로 인해 제대로 예배하고 살피기에는 시간에 쫓긴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진작가들이나 예술하는 이들이 석굴암을 소재로 작품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석굴암 바로 옆에 석굴암을 살필 수 있는 축소 모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바로 자료관이다. 이는 참배건 관광이건 일부러 마음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육적으로는 물론 문화유산의 보호 차원에서도 성과가 클 것이다. 하지만 석굴암이 아닌 곳에 참배도 하고 관광도 할수 있는, 같은 석굴암을 조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세계유산의 홍보 한 방편

허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홍보부장〉

세계유산인 석굴암의 영구보존 방법중의 하나가 제2석굴암의 조성이다. 물론 '가짜' 석굴암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석굴암은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이기도 하다. 프랑스는 1797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라스코 석굴벽화의 보존을 위해 모형 벽화를 그려놓고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관람객의 반발도 있었지만, 프랑스가 석굴벽화의 관람 여건 개선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 반발을 호평으로 바꾸어 놓았다. 라스코 석굴벽화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제2석굴암의 상징적인 종교·문화적 가치는 오직 스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석굴암이 조성되면 제2석굴암-종교문화센터라고 부르고 싶다. 스님들이 일반인들에게 석굴암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토함산 어우러질때 진가

최은미 〈동국대 사학과 탑상연구회〉

토함산에 자리한 석굴암은 종교와 과학이 일치돼 조성된 석굴사원이다. 석굴암은 더 거론할 여지도 없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런만큼 지금 제대로 볼 수 없는 안타까움 또한 크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주는 의미까지도 지금은 끌어안고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석굴암의 맛이라고 하면 토함산을 오를 때까지의 이끌림과 석굴암에서 풍겨지는 오묘한 느낌, 그리고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안타까움 등 모든 것이 어우러진 그 상태일 것이다. 불국사 경내에 제2 석굴암을 복원시키는 그 많은 시간과 재력이면 지금 토함산 꼭대기에 있는 단 하나의 석굴암을 어떻게 더 잘 보존하고 개방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玉혼합원사 · 건강防災服

玉內衣

건강회복 젊음유지 음이온발생 항균성 99.9% 54.8PPM

맑은 머리 고운 피부

옥을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玉으로 온몸을 폭 감싸 주는 것입니다.





옥이불과 함께 빅히트 상품

● 피로감 감소, 병후회복 회춘의 현저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유해전자파 방어에 특효입니다.
● Kirilian+BIO=건강신물질

중국 河北省 滿城지방에서 출토된 前漢시대 竇綰의 金縷玉衣 신강옥으로 만든 2천 498매의 옥조각과 1천 100g의 금실로 되어 있다 2000년전에 죽은 왕의 시체의 피부가 탄력이 있었다

이 옷을 입으면 중국황제 유승의 金縷玉衣를 입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男女각각)

각종 성인병과 질병에 사용되여온 고대 중국의 신강성 백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고갈되고 현재는 춘천玉山家玉만이 세계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合掌
777-0105 (우편판매가)

종단소식

조계종

봉선사 지월당비 제막

경기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는 10월31일 지월당 순재화상 건국유공자 행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순재스님(1891~1944)은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전단배포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옥고를 치렀으며, 1990년 12월 독립운동유공자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삼화사 적광전 준공법회



강원 동해시 삼화사(주지 원행)는 10월28일 국보 철불노사나불 점안 및 적광전 준공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비룡(월정사 조실), 설정(총회의장), 황수영(前 동국대 총장), 김인기(동해시장)씨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태고종

행자 111명 수계산림 입제

총무원(원장 인곡)은 10월28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21회 합동득도수계산림 입제식을 봉행했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남행자 96명, 여행자 15명 등 1백11명이 참가했다. 행자들은 11일까지 보름동안 참선수행 등의 수련과 예경의식, 태고종사, 사미율의 등의 교육을 받는다.

대각국사 942돌 탄신다례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김지암)는 10월29일 대웅전앞 만세루에서 종단간부 및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각국사 탄신 942주년 탄신다례를 봉행했다.

국내 최대 족자형 탱화인 선암사 괘불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법회는 탄신다례에 이어 오후 6시 만등관등법회까지 7시간동안 계속됐다.

천태종

전국 학생회교사 단합법회

총무원(원장 운덕)은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간 경주 하일라론도에서 전국학생회 지도교사 단합법회를 개최했다. 지도교사 60여명이 참가한 이번 단합법회는 경주 보문단지와 분황사, 안압지 등을 둘러보는 문화탐방과 레크레이션, 친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금강불교대 성지순례

금강불교대(학장 이재창)는 1~2일 이틀간 불교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계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신심앙양과 올바른 불교관 확립을 위해 실시된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김제 금산사, 승주 선암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를 참배했으며, 상호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앞서 금강불교대는 10월26일 불교학과 2학년과 교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양 낙산사, 고창 선운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대한법화종

남북통일·호국영령천도

전라교구종무원(원장 최복규)은 10월28일 전남 영암 천황사 주차장 광장에서 남북통일 및 호국영령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전라교구 80개 사찰 신도 1천여명이 참가한 이날 법회는 1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법회, 2부 괘불탱화 점안식, 3부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한국법화종

창종 66주년 기념법회

총무원(원장 김광태)은 10월26일 총무원 법당에서 종단간부와 각 말사 주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 66주년 기념법회 및 총회를 개최했다. 기념법회에 이어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예산결산 및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뤄졌다.

대승종

일오스님 총무원장 재임

대승종 현 총무원장 일오스님이 제6대 총무원장에 연임됐다. 일오스님은 10월 27일 종정 도암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95년부터 제5대 총무원장직을 수행해온 일오스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지난 9월 열린 중앙종회에서 6대 총무원장으로 재선출되자 고사 끝에 총무원장직을 수락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 개신교 인천구치소 불상철거 '억지주장'

인천불교련 "불상을 우상이라니…"



◇인천구치소 內 민원실 주변에 세워진 마리아상과 석가여래석조입상(오른쪽).

구치소측 "종교협의회 협의 거쳤다"

인천불교연합회(회장 도혜스님)는 최근 기독교계의 '인천구치소내 불상 철거' 주장과 관련, 10월 30일 오후 로얄관광호텔에서 '인천불교 수호 지도자 법회'를 열고 불상 수호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번 법회는 10월 23일 인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철우 목사)가 인천실내체육관에서 목회자 및 신도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구치소 불상 철거 기도회'를 가진뒤 인천구치소에 항의방문을 하는등 본격적인 압력행사에 나섬에 따라 불교계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것.

일붕선교종 종정 붕혜, 전 중앙승가대학장 송산, 인천불교련 명예회장 법경, 조계종인천사암련 성일, 인천구치소 불교교화위원장 선응스님, 피안사회복지관 연정혜관장과 각 사암신도회장 등 불교지도자 3백여명은 이날 △타종교에 대한 편견과 아집을 버릴 것 △국가기관을 상대로한 명분없는 종교시위를 중단할 것 △전통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것 △불상을 우상으로 몰지 말 것 △종교 이기주의를 청산할 것 등 기독교계에 대한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철거 주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석불입상은 지난 10월초 인천구치소(소장 김춘홍)가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민원실 양쪽에 높이 1.5m 높이의 마리아상과 함께 세운 3.3m의 석가모니부처님상. "구치소 민원실 입구에 불상을 세워 놓은 것은 특정종교만을 위한 것이며, 특히 관공서에 불상을 세워놓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구치소 측은 "불상과 마리아상은 구치소를 신축 이전하면서 종교교화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세운 것으로 특정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며, 특히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에 불상 15개, 마리아상 22개가 세워져 있는등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일축했다.

인천불교련 사무총장 홍제스님은 "과거 구치소 내에 지장보살상과 마리아상이 함께 세워져 있다가 10여년전 기독교인 소장이 부임하면서 불상을 땅에 묻어버렸다"면서 "불상의 철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불교련은 기독교계와의 타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맞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상 수호의 의지를 계속 천명키로 했다.

〈인천=김재경 기자〉



◇대한생활불교회 근본도량으로 개산될 월해사 전경.

속초 월해사 개산

일만불 점안·백고좌 법회

대한생활불교회(이사장 김덕수)는 19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소재 월해사에서 개산법회및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한다.

대한생활불교회 근본도량으로 꾸며질 월해사(舊 구복암)는 창건주 월해스님이 대한생활불교회에 기증한 것. 이에따라 생활불교회는 이날 개산기념법요식을 비롯 일만불(석불) 점안, 백고좌법회, 정규대학설립추진위원회 발족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서 생활불교회는 월해사에 국제수련원도 개원할 방침이다.

대한불교생활불교회 김덕수 이사장은 "국제수련원을 겸한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불교지도자를 양성하여 한국불교를 선양하는 대중교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도량 보문사 낙성

10일 아산서…수련원·유치원도 추진

충남 아산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갖춘 사찰이 건립된다. 서울 삼청동 칠보사 부설 보문사(주지 현관)는 10일 대웅전·지장전·복지관 낙성식 및 봉불식을 봉행한다.

충남 아산시 염치면 송정리 일대 5천여평의 부지에 건립된 보문사는 이날 대웅전, 지장전, 누각, 복지관을 낙성한다.

특히 5백여평의 부지에 건립된 보문복지관은 31명을 수용할 수 있는 9~12평 규모의 방, 휴게실, 의료실, 수영장 등을 비롯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불교인 전법대회

전북사암 승가회

전북사암승가회(대표 도영스님·금산사 주지)는 2일 금산사에서 제8회 전북불교인 전법대회 및 등반대회를 봉행했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모악산을 살리자'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전법대법회, 등반대회, 자연보호운동, 연예인 공연및 장기자랑등이 펼쳐졌다.

BBS 조사특위 재단감사

불교방송 진상조사 특위(위원장 정대스님)는 10월27일 소위원회를 열고 3일 검찰방문을 시작으로 7일까지 재단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재단감사는 지흥 지만 원학 법일스님과 공인회계사 4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맡아서 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여연 지만 원학 법일스님이 참석했다.

범어사 복지법인 추진

복지관운영·지원 출판·장학사업도

범어사(주지 성오)가 '사회복지법인 범어사'를 설립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10월20일 금정구청에 접수했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는 중생구제의 숭고한 대자대비사상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불국토를 구현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범어사는 관련 단체의 승인이 나는대로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출판 및 장학사업 등을 펼쳐나가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의 이사장은 성오스님, 이사는 벽파·선래·흥교·상운스님, 감사는 정만·선재스님이 각각 맡았다.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설립

내년 3월 개원…대학원 7개학과도 신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0월25일 교육부로부터 특수대학원인 '국제정보대학원'을 신설 인가 받아 내년 3월 개원한다.

국제정보대학원 신설은 국제사회의 변화와 변동을 과학적으로 예측, 설명, 평가해 다변화하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정보대학원의 신설학과는 인문사회계열의 국제해양정책학과와 국제관계학과, 공학계열의 정보보호학과 등 석사학위과정 3개학과다.

한편 동국대는 98학년도부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계열에 정보관리학과, 북한학과와 자연과학계열에 반도체과학과를 신설키로 했다.

또 경영대학원에는 선물·금융공학과, 서비스경영학과를 신설하며, 언론정보대학원에 출판잡지학과, 지역개발대학원에 지역정책학과도 각각 신설키로 했다.

"오전시간대 포교프로 강화"

BBS 청취자 1500명 조사

불교방송 청취자들은 불교관련 프로그램과 교양교육 프로그램, 불교뉴스 비중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새벽5시부터 낮12시까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포교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불교방송이 9월24일~29일까지 서울 본사 및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지방국이 있는 5개 도시 불교신도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7 불교방송 청취자 성향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천4백57명 가운데 불교방송 청취자는 76%, 비청취자는 24%였다. 비청취자들은 비청취 이유에 대해서 무응답이 58%로 가장 많아 아예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주파수를 몰라서(37%) 재미가 없어서(27%) 다른 방송과 차이가 없어서(5%) 등의 답변도 나왔다. 불교방송 청취 이유는 신앙생활에 도움(51%)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이해 강화(47%) 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불교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중 평소 좋아하거나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을 묻는 문항에서는 무응답자가 64%나 돼 불교방송을 대표할 간판 진행자의 부재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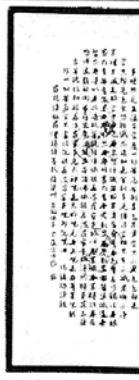
"방송 신앙생활에 도움" 51%
"교리 현대적해석 미흡" 39%

포교프로그램의 문제점도 불교의 현대적 재해석 부족(39%) 정적인 진행(19%) 재미가 없다(14%) 등으로 나타나 불교방송이 청취자들의 수준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137차 수련모임
인간완성, 현세해탈, 완전건강
시민참선수련 전문지도
물질문명에 찌든 현대인은 이제 누구나 참선할 때입니다.
선(禪)은 수십세기의 경험이 축적된 가장 확고한 정신통일법이며 인간완성법(깨달음)입니다. 참선공부는 인간내면을 평화롭게 하고 외면을 아름답게 하며 긴장과 경쟁이 극심한 현대인에게는 최선의 심신건강법이기도 합니다.
본회는 1981년에 부산 대구에 도장을 개설 명상수행과 도가의 학을 함께 지도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도장을 개원하게 되어 참선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교종파를 초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수련종목 / 좌법, 호흡법, 명상식사법, 도인체조, 단식법
◆ 지 도 자 / 이성담(李星潭) 선생
명상의 스승. 평생동안 1일1식. 참선. 생식. 단식으로 일관해 왔으며 도가의학을 집대성 참선명상과 함께 인류의 완전건강법을 지도하고 있다. (저서 33권)
●수련기간 / 3개월('97년 11월 22일(토)~'98년 2월 7일(토)
●수련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6:00~9:00(3시간씩)
●지도방법 / 강의 30% 실참50% 문답20%
●첫 모 임 / '97년 11월 22일(토) 오후 6:00
●신청마감 / '97년 11월 20일(목) 정원 30명 신청순서로 마감
●신청방법 / 먼저 전화로 신청하시고 첫모임시 수련참가신청서 작성함
전화 (02)575-0130~1
※전화신청은 매주 목·금·토요일 오후 1:00~6:00 사이에만 받습니다.
●장 소 / 본회 서울도장〈강남구 포이동 225-1 영풍B/D 2층〉
※ 포이동 삼호물산 맞은편쪽 평화은행 뒷쪽 태광전기골목으로 20M 진입. 남방사선과 뒷편(전철3호선이용 양재역하차 5번출구이용, 서초사회복지관앞에서 마을버스이용 삼호물산에서 하차)
한국참선명상협회·도가양생학술원
도장 : 서울:02)575-0130/부산:051)501-8335~6/대구:053)742-9194

都園佛教修鍊院
도원불교수련원
지암정사(智庵精舍)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5천여평의 대지에 100여평의 건물과 3천여평의 운동장등을 갖추었고 주위에는 산림으로 우거져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앞에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불자들의 심신수련에 최적의 곳입니다.
법당을 비롯하여 참선 기도할 수 있는 방과 취사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가족단위의 불자들에게는 가장 알맞는 수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원 주위에는 이승복 기념관,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의 무대인 봉평장터, 방아다리 약수, 현대성우 리조트, 삼성휘닉스파크에 스키장, 골프장, 콘도시설이 있으며 오대산 월정사 등과 태기산, 계방산 등이 있어 산행도 할 수 있습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개인, 신행단체, 가족단위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곳 수련원은 나이 많은 원로스님들을 무료로 보살펴 드리고 있사오니 서슴치 마시고 오셔서 주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불교수련원
都園佛教修鍊院
계방산 智庵精舍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210의 1번지
院長 性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토요강좌안내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부산·경남지역 불교인을 위한 〈법화삼부경〉 무료강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알 림 ●
1. 개강일시 :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오후3시
2. 강의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3. 동참자격 :
정법을 알고자 하는 모든 분
4. 모집인원 :
오전·오후 각반 50명
5. 문의전화 :
(051)633-6224·017)501-8711
6.강의장소 :
좌천동(오비신호등) 혜남한의원 3층
UN·IAEWP·KOREA MONK ACADEMY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 광 영 (공덕)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전국 佛子기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시절)
※모시본에 속지 마세요.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船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후원을 위하여 승진·사업번창의 후원을 위하여 만성지병 투병환자의 영험적 체유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사경정근하세요.
靜祕한 운정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약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서울미술제 심사위원장(서예)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 중국 대만 화교청년 고등부 서법희호대회 심사위원장
·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약70만점)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教文化 藝術院
雲藏 法師 禪筆 研究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

산사도 오수정화대책을

음식쓰레기등 증가…동학사 암자까지 정화시설 '모범'

맑고 청정한 계곡이 음식점, 산장, 숙박 및 위락시설 등으로 오염되고 있다. 계곡물속에서 음식찌꺼기 등 각종 부산물을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악취까지 풍기고 있다. 여기에 산사의 생활오수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사찰도 환경파괴로부터 해방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사찰에서 각종 세제사용과 음식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오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생활오수를 줄이기 위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찰환경 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신흥사(주지 도후)는 최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중이다. 신흥사를 비롯한 인근 업소들은 국립공원 설악산 일대 계곡과 속초시 상수원인 쌍천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흥사는 문화재관리국이 지시한 보완조치가 끝나는 대로 시설물 설치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찰에서 손쉽게 생활오수를 자연정화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생활오수가 흘어나오는 곳에 연못과 습지를 만들어 연(蓮), 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것이다. 연뿌리는 하수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활오수 등을 정화시켜주는 자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사찰들은 건축물 면적과 오수방출량에 적합한 오수정화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면 종단과 사찰차원에서는 청정한 사찰환경지키기 위한 대처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청정한 계곡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계가 먼저 환경예산확보 등을 비롯 적극적인 환경정화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미 사찰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계룡산 동학사 주지 일연스님은 "빨래할 때 세제를 적게 쓸 것 등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가 급선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동학사를 비롯 미타암 길상암 관음암 등의 산내암자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 2급수였던 동학계곡 수질이 1년만에 1급수의 맑은 계곡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사찰측의 얘기다. 〈김종근 기자〉

"전법의지 상실우려"
조계종 전법예산 축소

조계종총무원이 중앙종회 예산심의에 제출키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전법 관련 사업예산이 대폭 감축돼 종단의 전법의지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법의해 운영주체인 포교원은 최근 기획실에 전법예산 3억8천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획실은 신청예산의 62% 수준인 2억3천7백만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2억원은 교구본사 교부금을 전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계종총무원은 올 2월 전법의 해를 선포하면서 올해안에 전법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인사 납골당 건립 '백지화'

총동문회 발표 성철스님 부도탑 타협될듯

해인사극락암(가칭) 납골당 건립이 백지화되고 성철스님 부도탑 규모조정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광스님(해인사 주지)은 10월 29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납골당 건립을 완전히 백지화하기로 했으며 현재 마무리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한뒤 "성철스님 부도탑 문제는 10월16일 백련문도회 상림회 종무소임자 등으로 된 9인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잘 해결되리라 기대한다"고 공언함으로써 사중의 갈등양상을 빚어온 납골당과 부도탑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총동문회는 이날 △납골당 건립을 백지화하되 그에 따른 손해는 주지이하 3직이 책임질 것 △경북도 및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가야산 순환도로 및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반대 △성철스님 부도탑 문제는 9인위원회에 일임할 것 △임회에 문중대표와 승가대동문을 추가 전면 확대 개편할 것 등 4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北 유아사망률 30% "구호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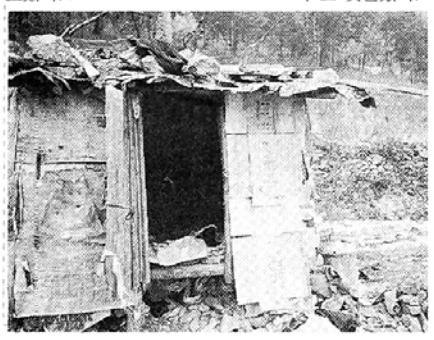
법륜스님 中자료 발표

95년이후 3년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유아사망율(1세~5세)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압록강 상류지역인 중국 장백현과 연변 등을 답사하고 돌아온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은 중국측으로부터 입수한 북한 통계자료에 근거, 이같은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특히 북한 어린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정확한 지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총인구 7만명 군단위 지역의 어린이 연령별 숫자를 조사, 비교한 결과 어린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스님은 "사회주의 특성상 생활력이 떨어지는 남성의 사망률이 높이 관계로 남녀 성비의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의 식량위기는 북한내부의 문제를 넘어 민족적인 문제며 세계적인 해결과제인 만큼 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무조건적이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 탈북자들이 잠을 자기위해 숨어드는 중국인 농막주변에 신발, 헌옷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전국교사불자회 내년 1월중 창립

이달말 발기인 구성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임완숙)를 비롯 충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각 지역 불자교사 대표자 10여명은 25일 광주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전국교사불자연합회를 1월중 전국교사불자 동계연수회를 기해 창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대표자들은 창립에 앞서 11월말경 대전에서 각 지역대표자 30여명 안팎으로 발기인을 구성해 창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키로 했다.

포교원은 내년 청소년단체 지원예산 1억5천만원(미정) 가운데 일부를 전국교사불자회 창립에 지원할 방침이다.

새 국립중앙박물관 기공

용산가족공원에…2003년 완공

통일의 시대 21세기 민족문화의 전당이 될 새 국립중앙박물관 기공식이 10월 31일 서울 용산 가족공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등 3부 요인과 각계 인사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부지가 9만3천평에 연건평 4만6백16평,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단순한 박물관의 기능을 넘어선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지어진다.

첨단 정보통신 설비를 도입, 유물들을 완전 자동 관리하게 되는 새 박물관은 역사실, 미술실, 기증실 등 29개 전시실에 8천여점의 문화유산을 전시하게 된다. 오는 2002년 건물공사를 완료하고 1년간 유물전시 및 시운전을 거쳐 2003년 12월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애국가 왜곡 시정"
보리방송모니터회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최근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부분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보우하사…'로 바뀌어져서 불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방송을 비롯하여 신문 잡지 PC통신 등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왜곡사례에 대해 제보를 접수한다. (02)712-5813



설악산 신흥사 통일대불 점안

민족 통일염원을 담은 설악산 통일대불이 11년간의 불사끝에 완공됐다.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는 10월25일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녹원 동국학원 이사장, 설정 조계종 종회의장스님을 비롯 황수영 前 동국대 총장,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최각규 강원도지사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대불 점안식을 갖고 남북통일 원만성취를 발원했다. 〈속초=김종근 기자〉

목탁소리

마지막 법회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회라는 것이 누구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10월 26일 어린이회 청소년회 등 각급 단체의 마지막 법회가 열리는 목동 법안정사 대웅전은 일정정도 적막이 흘렀다. 식순에서 감사를 표한다는 당사자인 주지 효경스님과 포교원장 현도스님은 불참한채 지도법사 현조스님과 지도교사들이 서로 감사패를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등 답답한 진행이 이어졌다.

어린이들은 상황도 모른채 "왜 선생님들이 상탑니까"라고 묻고 현조스님이 묵묵히 108염주를 나눠주었다. 다만 교사들은 차마 법회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못하고 한달 정도 법회를 쉰다고 짧게 말했고 어린이들은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다.

법안정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도록 방치한 부분에서는 당해사찰 스님들과 신도, 조계종 총무원의 책임은 피할수 없다고 본다. 종교부지를 확보해 설립한 도심 포교당의 선두주자로 모범을 보이며 90년 출발한 법안정사가 처한 현실은 한국불교 포교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93년 창건주인 이병호씨(변호사)와의 14대 대선 지지문제와 그의 개종 등으로 갈등이 빚어져 쇠퇴일로를 걸어오다 끝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스님들이 순순히 손수 법회를 회향시켜야 했으며 4층 법당등이 사찰명의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건주에게 밀려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도들도 있다.

어린이·청소년법회 지도교사들은 "창건주라 하더라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사찰을 운영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어린이법회 어린이들이 교회어린이회에 나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회보를 만들어서 보낼 계획이지만 앞날은 캄캄하기만 하다"고 한숨지었다.

뉴스 & 뉴스

청소년 관람료 인하요구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과 내무부 문체부의 3개기관 합의이후 이번에는 청소년 어린이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마찰이 발생했다.

국립공원 계룡산 관리사무소가 공원내 동학사 갑사 신원사측에 청소년 및 어린이 문화재 관람료를 1백원씩 인하하도록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사찰들은 문제가 됐던 부분의 합의사항은 성인의 문화재관람료일 뿐으로 청소년및 어린이는 종전대로 시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전북·군산 파라미타 창립

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 전북지부 군산지회가 1일 군산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창립 발대식을 가졌다.

기독교 전국 최강세 지역인 군산에서 파라미타 지회에는 군산고, 군산중앙여고 등 8개교 약 4백여명의 회원이 등록했으며 화평스님(은적사 총무)이 지회장을 맡는다.

북한 문화재연구위 발족

북한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연구 조사하기 위한 정부자문기관인 '북한문화재연구위원회(위원장 한병삼)'가 10월28일 새로 구성됐다.

북한의 △건축 △고고학 및 미술사 △민속 △천연기념물 △보존정책 등 5개분과로 나눠진 이 위원회는 북한의 문화재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북한의 문화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속초복지관 노인축제 '성황'

"어른 공경 이제 시작입니다. 배우고 봉사하는 존경받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속초종합복지관(관장 지홍스님)은 10월 27일 속초문화회관에서 관내노인 1천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빛문화대축제를 개최했다. 〈사진〉



속초종합복지관 연꽃어린이집 원아들의 댄스로 시작된 이날행사는 은빛노인대학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 꼭두각시 춤, 시낭송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제는 노인들이 도움만 받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2부에서는 이용식씨의 사회로 송대관 김부자 이영화 김빡국 민속예술단등 불자인기연예인들이 즐거운 한마당 공연을 펼쳤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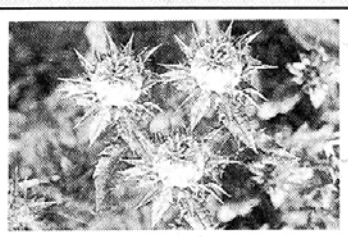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 질 공 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 화 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신비의 옥(玉)이란!

옥에는 5가지의 덕(德)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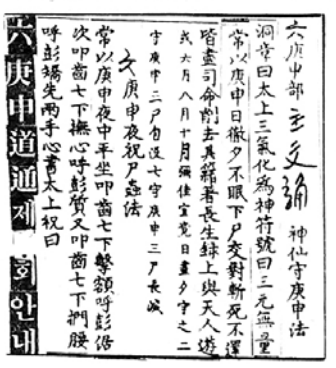
신비의 옥에는 (仁·義·智·勇·潔)등의 5가지 德이 있으니 이를 어찌 귀히 하지 않겠는가!
玉의 특징인 기의 자연 발생과 인체에 관한 실험결과(북경대 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불면증, 심장질환자, 귀울림병, 두통, 어지러움증, 고혈압, 관절염 등의 놀라운 치유효과의 발표가 있는 신비의 옥(108염주, 목걸이)를 염가로 사암 주지스님께 보시하고저 합니다.

※ 한정판매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대 원 사
(0331)262-0606

卍 육신통(육경신)도통·정진법회 卍

무위진인 육신통 대용맹정진에 입문하시여 대도인의 경지에서 도인·선사·신선의 지도자가 되시고 이 기도는 주인공과 장열한 氣를 찾아서 심신·정신·육신의 번뇌마장의 고통을 근본심지에 맞게 성취하는 대용맹 정진기도로써, 이 기도는 외도나 사도나 잡신수행도 아니고 이 정진수행으로 敬天動地 聖人出 亦江三日眞人出 六神道通奇人出 神出鬼沒正人出 參禪道通禪(仙)人出 소림사에서 직송하는 도장경중의 육경신 주문과 기문둔갑 심기선법·옴마니반메훔·참선 10장생법 강의·풍수지리및 동양철학 특강·개인지도.



신선들과 제석천왕이 옹호하여 大道人의 眞人이 되는 六庚申 주문.

이 주문으로 하여금 모든 마장을 항복받을 수 있는 秘傳의 呪文입니다.

입제일 : 97년 11월 13일 음 10.14. (목요일)
해제일 : 97년 11월 14일 음 10.15. (금요일)
회 비 : 5만원. (1박 2일 침식제공)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구모자원고개 하차)
전 화 : (휴대폰) 017-236-3110
02-821-6622 (야)02-923-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부도와 대화… 선지식 가르침 들리는듯"



◀화엄사 입구에 있는 부도밭. 화엄사에 머물다 간 고승들의 체취가 느껴진다.



▶동부도를 그대로 본뜬, 빼어난 조각미의 연곡사 북부도(국보 제54호) 앞에서 소재구선생의 안내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의 눈빛이 진지하기 이를데 없다.

종교와 철학 그리고 모든 문명의 시발점이 '삶'과 '죽음'의 명제로부터 시작한다. 과학적 지식이 극대화되고 분초를 다투어 정보가 쏟아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삶과 죽음은 여전히 인간의 큰 문제이다. 오랜 가뭄으로 단풍이 화려한 자태를 미처 드러내지 못한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120명의 불교문화 테마여행객들은 화엄사·연곡사의 석탑과 석등, 부도를 찾으며 '삶'과 '죽음'의 화두에 몰입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10월 화엄사·연곡사

"한국인의 삶과 죽음"

새벽 3시30분. 그믐 달빛이 웅장하면서도 수려한 산세가 신령스럽기까지 한 지리산 기슭을 밝히고 있었다. 화엄사상의 으뜸도량 전남 구례군 화엄사(주지 종열).

산문 입구 부도전에서 약 1백미터를 오르면 일주문이 나타난다. 일주문을 지나면 문수·보현 동자상을 안치한 금강문, 그 뒤로 목각 사천왕상을 안치한 제3문 천왕문을 갖춰 여느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불이문(不二門) 대신 금강문을 포함시켜 삼문을 이루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경험할 수 있다.

화엄사는 신라 진흥왕 5년(544)에 인도승 연기조사가 창건했고, 670년 신라의 의상대사가 화엄교학을 전파한 10개 도량, 즉 화엄십찰 중 하나로 중창됐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벽암대사가 중건한 대웅전(보물 제299호)은 이 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대웅전과 90도 꺾여져 축대로 이어진 곳에 국보 제67호인 각황전이 늠름하게 서 있다. 정면 7칸 측면 5칸의 2층 팔작지붕 형태로 장중하면서도 세련된 기품을 지닌 우리나라 최대의 목조건물로 지붕 뒷편으로 청정한 송림을 이고 서 있는 모습이 고즙하면서도 당당함을 느끼게 한다. 각황전은 본래 장륙전이라 불리던 곳으로 이 장륙전은 유명한 것은 3층의 사방 7간짜리 이 전각 벽면에 돌에다 새긴 화엄경을 둘렀다는 기록 때문이다. 이 화엄석경은 임진왜란 당시 사찰이 불탈때 산산조각이 나 그 파편이 현재 영전에 보관되어 있다. 아! 경전중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을 돌에 새겨 그 석경을 3층 통벽면에 둘러놓은 모습은 상상만 해도 장엄하고 성스럽기 그지없다. 그야말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소중한 성보가 훼손되었는지… 정말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다.

임진왜란때 불탄 장륙전은 1702년(숙종 28)에 다시 중건되었는데 여기에는 한 거지노파가 지극한 서원을 발해 공주로 태어나 중창불사를 도왔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계달으신 부처님이 계신 곳'이란 의미의 '각황전(覺皇殿)' 편액은 숙종때 예조참판 성재 이진휴가 썼다.

"생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부모님이 날 낳으신 날입니다. 생일날 무슨 선물을 받을까만 바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이 돼야 합니다." 화엄사 포교국장 진조스님은 각황전 앞 108계단을 돌아 오르면 사사자삼층석탑(일명 세존사리탑·국보 제35호)과 석등에 무르녹아 있는 효(孝)의 의미를 전하며 가슴에 새길 것을 이렇게 당부했다. 특이한 모양의 이 석탑은 자장율사가 화엄사에 머물며 창건주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조각수법과 형태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형(異形)석탑으로 흔히 '효대'라고 불리워진다.

아름다운 세 부도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연곡사(주지 종지) 역시 연기조사가 창건한 도량이다. 단풍철인 요즘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이 끊일 사이가 없는 연곡사 오르는 양편 길에 다랑이는 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어 그 자체가 장관이다. 연곡사가 위치한 피아골은 6·25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하며 동시에 민중의 끈질긴 삶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그 참혹했던 세월을 견디며 부도들과 탑비, 삼층석탑은 천년의 침묵을 안고 여전히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으로 내방객들을 맞고 있었다.



◇ 완벽한 형태미와 섬세한 조각장식의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부도중의 꽃'으로 불리는 연곡사 동부도(국보 제53호)의 상륜부 부분.

각황전의 늠름함에 탐방객들 숙연
사사자석탑 보며 효도 의미 되새겨

부도중의 꽃이라는 찬사가 헛말이 아닌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동부도(국보 제53호)는 팔각기단 연화받침에 팔각당 몸체를 앉히고 팔각기둥을 씌운 전형적인 팔각당 사리탑으로 날렵하고 경쾌한 형태가 뛰어나 그 어디를 보아도 정교하고 세련된 조각미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스승의 뛰어난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성과 솜씨를 다해 만든 당시 제자들의 속깊은 마음에 숙연해 지며 요즘 같만 화려한 일부 사찰불사와 저절로 비교되는 것이다.

안내자 소재구 학예연구관은 "부도는 그 자체가 큰 스님들의 수행가풍과 만든 당시의 예술솜씨를 엿볼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며 "부도밭은 을씨년스러움 보다 정갈하게 씻긴 영혼의 쉼터처럼 경화로워 직접 부도를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슴 저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의미와 육체는 소멸되더라도 정신은 면면히 살아있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까지 다시금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화엄사 각황전(국보 제67호). 그 앞의 석등(국보 제12호) 역시 우리나라 석등중 가장 크며 각황전과 짝을 이뤄 당당한 위엄을 느끼게 한다.

글=도필선 사진=고영배 기자

소재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전문가 안내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이란 생성과 소멸의 원리로 움직인다고 했다. 영원이란 없는 것, 그러기에 그 영원한 것을 향한 구도의 길을 우리는 갈구하였고 여기에 부처님은 세상에 나와 생사를 초월한 가르침으로 중생을 제도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 삼보의 숭고함을 밝히고 정법에 앞장섰던 분들은 청사에 빛나는 명승(名僧)들이었다. 그들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초월하고 생사의 번뇌에서 해탈하는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만인의 스승이 되었던 것이다. 스님들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화엄경〉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이로써 연기조사는 화엄사의 대불사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장륙전(각황전)을 세워 장륙존상을 안치하고 벽체를 온통 화엄석경으로 둘렀으며 이에 걸맞는 거대한 석등을 지어 법등을 밝혔다. 대웅전 앞에는 쌍탑을 세우고 동편의 언덕위에는 사자탑을 세웠다. 모두 통일신라 전성기 이후 이루어진 걸작의 석조물이었다. 그중에서도 사사자삼층석탑은 우수하고 독창적인 조형성은 물론 탑을 향하여 합장한 보살상과 탑속에서 정성을 올리는 공양상의 배치로 인하여 더욱 장엄한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연곡사에는 북부도, 동부도, 서부도가 남아있으며 동부도비와 현각선사비, 삼층석탑

"동부도 처마모양 상륜부서 신라 건축미학 유추 가능"

등도 세워져 있어 당시 선사들이 머물렀던 곳임을 알수 있게 한다. 섬진강을 거슬러 연곡사와 화엄사를 넘나들며 사부대중들이 스승을 좇아 구름처럼 모여들었겠고 감화를 일으켜 주신 스승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존재하시도록 그처럼 아름다운 탑을 지었다. 다채로운 조작으로 기단을 마련하고 대좌에는 난간을 둘러 장식하였으며 그 위로 사리각을 안치하고 지붕을 덮었는데 그 사리탑을 보며 우리는 신라시대의 목조건축이 어떠했나 하는 의장(意匠)도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으며 서쪽에 세워진 조선시대 소요대사부도탑 또한 먼저 세워진 인근의 옛탑을 본 뜬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이 부도들의 주인공이셨던 선사들이 누구였는지 부지런히 탐구하여 명백하게 밝혀드리는 일이다. 무지한 중생으로 하여금 사바니즘의 토속적인 차원을 초월하여 생사고뇌의 해탈을 불법의 진리로써 인도하고 한국불교의 정신적 기틀을 이룩하신 스승들이었기 때문이다.



◇ '효대'로 불리는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수맥파차단 방습단열지 알솜 Alsom 개발

알솜 Alsom은 수맥파차단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고순도의 알루미늄과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최초로 개발된 수맥파차단 방습단열지 알솜 Alsom은 간편한 시공으로 수맥파를 차단하면서 단열과 습기, 독성등을 동시에 차단하는 신제품으로 저렴한 시공비와 열효율을 한층높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실용신안특허출원 제26706호 · 실용신안특허등록 제89207호 · 상표등록특허출원 제45121호

전국대리점모집

알솜 1000

■ 수맥파의 가공할 위험 차단효과!
수맥이 흐르거나 습기가 많은 대지에 건축된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되면 머리가 자주 아프고 잔병이 많을뿐만 아니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볍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의 수맥파와 습기를 차단키 위하여 본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 복사열선95%차단하는 경이적인 단열효과!
건축구조물에서는 열효률의 70%정도를 복사현상이 주도합니다. 알루미늄단열재는 복사열선을 95%차단하는 경이적인 단열재입니다. 특히, 여름철은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 방습단열재입니다.

알솜 100

■ 단열과 방습만을 목적으로 사용시는 알솜 1000이 가격 저렴하여 훨씬 경제적!

본 제품의 특성

수맥파 차단	순도 98.6%이상 고순도 알루미늄 2겹사용
단 열	알루미늄 물성상 복사열선 95%차단
완벽한 방습, 방수, 방음효과	아스팔트 왁스 혼합물 사용
독 성 차 단	시멘트 몰타르의 유해성분 차단
편리한 시공	줄무늬를 인쇄하여 절취가 편리하고 재질이 유연하여 사용이 간편
경제적인 가격	알루미늄 재질 사용으로 가격저렴

제조원 SAMMIN 삼민산업주식회사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등 1291-8 (시화공단 4나-109호)
TEL : (0345)498-5533(代) FAX : (0345)498-8998